스퀴어: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품들

올리버 글래드힐(첼로), 이마이 타다시(피아노)

고상하고 우아한 첼로의 매력

스퀴어는 19세기 중반에서 20세기 초반 사이에 활동했던 영국의 첼리스트이자 작곡가였다. 그는 생전에 영국을 대표하는 첼리스트로서 그라모폰과 컬럼비아 레코드에서 약 200여종의 음반을 녹음하기도 했다. 본 음반에는 스퀴어가 드보르작에게 헌정한 '샹소네트(짤막한 샹송, 9번 트랙)'과 더불어 세계 최초로 녹음된 스퀴어의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작품들은 우아하고 고상한 색채로 유명했던 스퀴어의 진면모를 담고 있다. 빛바랜 듯 느껴지는 작품 속 시간을 넘어서는 스퀴어 전문가 올리버 글래드힐의 연주가 인상적이다.

***'마주르카'(6번 트랙), '곤돌라를 젓는 여인'(7번 트랙), '이별'(로망스, 11번 트랙), '칸초네타'(15번 트랙), '엘레지('17번 트랙) 세계 최초 녹음.**

8.571373

NAXOS New Releases

무한한 레퍼토리의 보고(寶庫)

쿠머 & 슈베르트: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이중주 작품들

프리드만 아이히혼(바이올린), 알렉산더 휠스호프(첼로)

현란한 기교 속에서 빛나는 첼로와 바이올린의 호흡

8.573000

카트와르: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작품 전집

로렌스 카얄레(바이올린), 스테판 르블랭(피아노)

카트와르의 작품 세계를 집약해 놓은 음반

8.573345

브람스: 한악사중주 1 & 2번

뉴질랜드 현악사중주단(연주)

엄격하고 무표정함 속에 흐르는 자유로움과 우수

8.573433

포르투갈 작곡가들의 첼로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작품집

부르노 보랄힌호(첼로), 굴벵키안 오케스트라(연주), 페드로 네베스(지휘)

우아한 서정과 기묘한 인상의 대조 – 19세기–20세기 포르투갈 작곡가들의 첼로 협주곡

8.573461

마이어: 서곡 모음집

바이에른 클래식 플레이어즈 외(연주), 프란츠 하우크(지휘)

빈 고전주의와 이탈리아 오페라의 결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마이어의 서곡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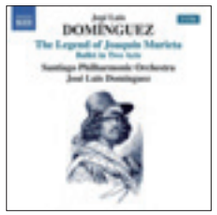
8.573484

폴란드 작곡가들의 바이올린 협주곡

표트르 플라프네르(바이올린), 베를린 캄머심포니(연주), 위르겐 브룬즈(지휘)

작품 속에 면면히 흐르는 폴란드의 정취

8.573496



도밍게스: 발레 음악 – 호아킨 무리에타의 전설

산티아고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연주), 호세 루이스 도밍게스(지휘)

멕시코의 로빈후드, 호아킨 무리에타를 테마로 한 발레 음악

8.573516–17

로시니: 스타바트 마테르(1832년 오리지널 버전) & 조반나 다르코

뷔르템베르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연주), 토니노 폴랴니(지휘) 외

새롭게 복원된 로시니의 스타바트 마테르 오리지널 버전

8.573531

로스 해리스: 교향곡 5번 & 바이올린 협주곡

그린골츠(바이올린), 오클랜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연주), 슈티어 & 개리 워커(지휘) 외

전쟁을 감내해야 했던 소녀의 기억이 담긴 작품

8.573532

오베르: 서곡 1집

칸 오케스트라(연주), 볼프강 되르너(지휘)

우아하고 세련된 파리의 정취가 담긴 오베르의 서곡들

8.573553

21세기 음악예술의 선구자
Aulos media
서울시 동대문구 하정로 3길 10 삼흥빌딩 2층
전화: (02)922-0100 팩스: (02)922-2522
홈페이지 www.aulosmedia.co.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aulosmedia
블로그 http://blog.naver.com/aulosmed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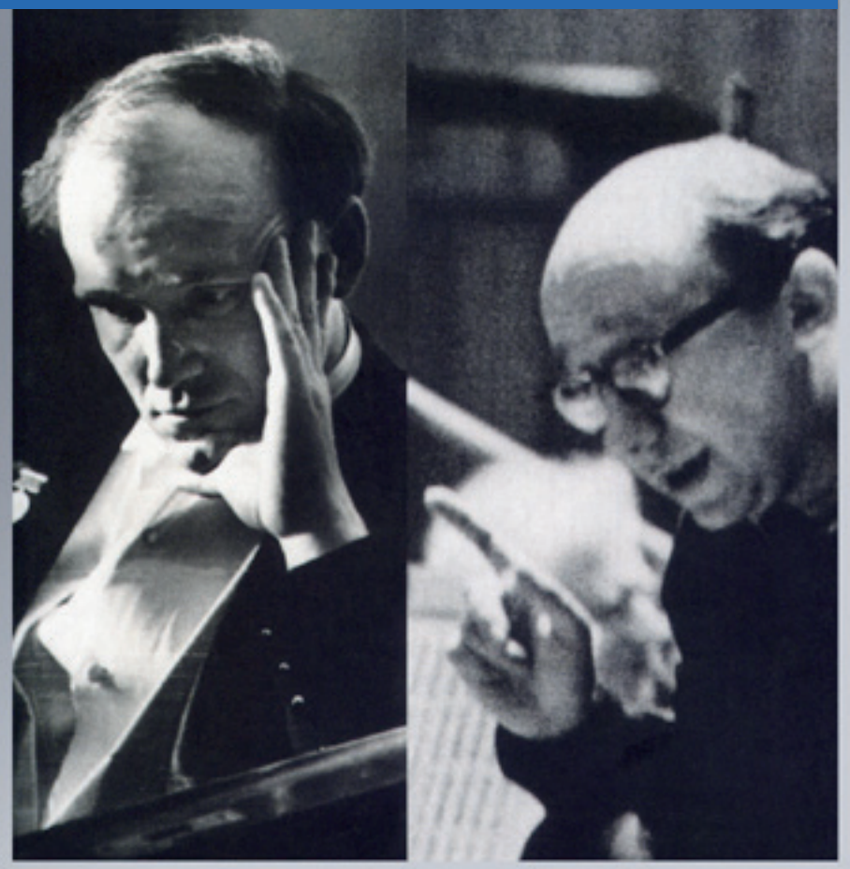
[배포 및 제품 판매처]
전국 교보핫트랙스 매장/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반디앤루니스/ 뮤직랜드/ 풍월당/ 예전레코드/ 올리버/ SJA 뮤직/ 피닉스뮤직프라자(종로)

아울로스 뉴스지 67호
8 809090 673444

www.aulosmedia.co.kr
www.facebook.com/aulosmedia
http://blog.naver.com/aulosmedia

Aulos news

아울로스 뉴스 제 67호 | July 2016



***Key Issue**

유로파콘체르트 시리즈 **25주년 기념 박스 25 DVDs**

바이올리니스트 정혜진의 **슈베르트 세 개의 바이올린 소나타 CD**

***Cover Story**

브루노 몽생종 에디션 3

'리히테르'와 '로제스트벤스키' 5DVDs Box

Key Issue

유로파콘체르트 시리즈 25주년 기념 박스 25DVDs 3
바이올리니스트 정혜진 슈베르트 세 개의 바이올린 소나타 37
피아니스트 주 샤오 메이 CD, DVD 55

Cover Story

브루노 몽생종 에디션 3
스비아토 슬라프 리히테르와 겐나디 로제스트벤스키 4-5

CD

Accentus 5
Accord 3
Athene 7
BR Klassik 8
Dacapo 9
Divine Art 9
Dynamic 10
Gothic 10
Gramola 11
Fanfare Cincinnati 11
Fleur de Son 12
Grand Piano 12-14
Grappa 14
LPO 15
MD&G 15-26
Naxos 21-25
Orlando 26
Paladino 26
Philharmonia Baroque Production 27-28
Philharmonia•rec 28
RCO 29
Rondeau 29-30
Siba 30
Simax 31
Sinfonieorchester Basel 31
Solo Musica 32
Sono Luminus 32-33
Steinway & Sons 33
Swedish Society 34-35
Tactus 36

DVD & Blu-ray

Accentus 38
Arthaus 39-44
C Major 44-47
Dynamic 47-51
EuroArts 51-57
OpusArte 58-62

아울로스 디지털 매거진은
아울로스 웹사이트와
주요 클래식 온라인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으며,
문의처로 연락주시면 e-mail 발송 가능합니다.

본 책자를 받고 싶으신 분은
아울로스 웹사이트에서
PDF파일로 다운 받으실 수 있으며,
문의처로 연락주시면 기타 발송 가능합니다.

www.aulosmedia.co.kr
e-mail: aulos@aulosmusic.co.kr
문의: 02_922_0100

베를린 필하모니커의 생생한 역사이며 유럽 도시들의 현재진행형을 담은 기념비적인 예술품 '유로파콘체르트 시리즈 25주년 기념 박스'

매년 5월 1일 베를린 필하모니커는 저 유명한 유로파콘체르트(유럽 투어 콘서트)를 갖는다. 해마다 유럽의 각기 다른 도시에서 연주회를 갖는 이 유로파콘체르트는 오케스트라의 창단일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유럽의 문화유산을 공유한다는 취지하에 진행되고 있다. 첫 공연은 1991년 5월 1일 시작되었고 유로아츠가 그 충실한 단독 파트너로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연주회 실황들을 영상물로 남기고 있다. 그리하여 현재까지 25개의 연주회가 촬영되었는데, 이번 그 모든 연주회 실황들을 하나로 묶어 박스로 발매하게 된 것이다.

EuroArts 2060988 [25 DVDs]

EUROPAKONZERT 25 DVD | Anniversary BOX 1991 – 2015

베를린 필하모니커를 지휘한 지휘자들을 보면 클라우디오 아바도를 비롯하여 다니엘 바렌보임, 사이먼 래틀, 주빈 메타 등등이 등장하고, 솔리스트로는 레오니다스 카바코스, 트루스 뫼르크, 플라시도 도밍고, 리사 바티아쉬빌리 등등이 출연한다. 그 외에 연주회가 열리는 해당 도시와 관련된 다양한 보너스 영상물들도 포함되어 있다. 총 41시간이 넘는 연주시간을 수록하고 있어 많은 음악 애호가들로부터 커다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유로파콘체르트 시리즈 25주년 기념 박스는 그 자체로서 베를린 필하모니커의 생생한 역사이자 유럽 도시들의 현재진행형을 담은 기념비적인 예술품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연주자]

Leonidas Kavakos, violin/ Magdalena Kožená, mezzo-soprano/ Gautier Capuçon, cello; Cañizares, guitar/ Alisa Weilerstein, cello/ Violeta Urmana, soprano/ Vadim Repin, violin/ Lisa Batiashvili, violin/ Truls Mørk, cello/ Radek Baborák, french horn/ Daniel Barenboim, piano/ Maria João Pires, piano/ Gil Shaham, violin/ Emmanuel Pahud, flute/ Swedish Radio Choir/ Mikhail Pletnev, piano/ Christine Schäfer, soprano/ Emanuel Ax, piano/ Eric Ericson Chamber Choir/ Anatoli Kotscherga, basso/ Kolja Blacher, violin/ Sarah Chang, violin/ Frank Peter Zimmermann, violin/ Plácido Domingo, tenor/ Cheryl Studer, soprano/ Bruno Canino, piano
*Berliner Philharmoniker

[지휘자]

Sir Simon Rattle/ Claudio Abbado/ Pierre Boulez/ Gustavo Dudamel/ Bernard Haitink/ Mariss Jansons/ Zubin Mehta/ Riccardo Mu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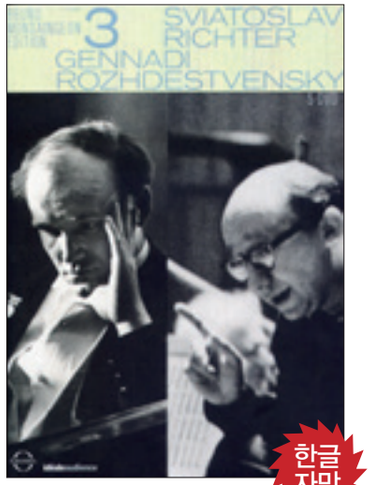
[곡목]

Compositions from Wolfgang Amadeus Mozart/ Giuseppe Verdi/ Hector Berlioz/ Franz Schubert/ Richard Wagner/ Pyotr Ilyich Tchaikovsky/ Igor Stravinsky/ Ludwig van Beethoven/ Johannes Brahms/ Antonín Dvorák/ Boris Blacher/ Niccolò Paganini/ Sergei Prokofiev/ Sergei Rachmaninoff/ Maurice Ravel/ Claude Debussy/ Robert Schumann/ Frédéric Chopin/ Joseph Haydn/ Béla Bartók/ Max Bruch/ Giuseppe Martucci/ Franz Schubert/ Edward Elgar/ Emmanuel Chabrier/ Joaquín Rodrigo/ Ralph Vaughan Williams/ Otto Nicolai/ Jean Sibelius/ Gioacchino Rossini and Johann Sebastian Bach

[BONUS: Documentaries, Interviews]

리히테르와 로제스트벤스키에 대한 삶과 음악적 진실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접근

프랑스의 클래식 음악 전문 다큐멘터리 감독인 브루노 몽생종이 제작한 필름을 시리즈로 발매하고 있는 유로아츠에서 이번에는 두 명의 소비에트 시절의 위대한 예술가들에 대한 영상물들을 여섯 장의 DVD박스로 묶어서 발매했다. DVD1과 2는 이전에 발매된 바 있는 리히테르의 저 유명한 다큐멘터리인 '이니그마', 영상물로 처음 발매되는 로린 마젤/ l'ORTF 국립 오케스트라와 리히테르가 1966년에 협연한 실황으로서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K271 전곡, DVD3은 로제스트벤스키의 소비에트 러시아에서의 삶을 담은 다큐멘터리와 시닛케의 '죽은 영혼'(2003) 및 프로코피에프의 칸타타 '즈드라비짜'(2002) 공연 실황, DVD4와 5은 볼쇼이에서의 활동, 소비에트 작곡가들과의 만남, 그 밖에 여러 음악과 삶에 대해 로제스트벤스키와의 대화를 담은 다큐멘터리로 구성되어 있다.



한글 자막

EuroArts 2075278 **[5 DVDs]**

브루노 몽생종 에디션 3

스비아토슬라프 리히테르와 겐나디 로제스트벤스키

소비에트 시대의 러시아에서 음악가들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권위주의적 사회에 살면서 어떻게 순응하고 속이면서 살 수 있었을까? 그들이 그 외에 직면할 수 밖에 없었던 위험이나 어려움들은 무엇이었을까? 스비아토슬라프 리히테르와 겐나디 로제스트벤스키는 소비에트 시절의 정치구조에서 겪었던 수많은 강제와 권위의 압박, 감시와 견제에 대해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낱낱이 밝히고 있다. 더불어 음악가로서의 개인적인 삶과 추억은 물론이려니와 서방세계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당시 소비에트 음악가들과 함께 했던 교류와 경험, 그리고 그들이 남긴 역사적인 공연 실황 필름을 통해 리히테르와 로제스트벤스키라는 음악가를 다면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

몽생종의 질문은 그들의 음악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주고 편집의 높은 완성도는 영상에 대한 미적 호기심을 만족시키기에 모자람이 없다. 특정 시대, 특정 지역의 음악적 상황을 관찰하기에 이보다 더 생생한 음악적 증언이 있을까?

****스비아토슬라프 리히테르(Sviatoslav Richter)**

[DVD 1 & 2]
'Enigma' 1, 2부 :

클래식 음악 영상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컬트 필름으로 손꼽힐 만한 작품

브루노 몽생종이 18년 전에 제작한 영상물로서 1997년 스비아토슬라프 리히테르가 서거하기 직전에 이루어진 인터뷰를 중심으로 한 예술가의 평생을 낱낱이 조망할 수 있는 역사적인 기록이다. 두 장의 DVD에는 총 17개의 에피소드로 구분된 트랙이 담겨 있어 주제별로 그의 인생을 일별한다. 젊은 시절 그가 연주한 프로코피에프 피아노 협주곡 5번을 시작으로 각 에피소드마다 리히테르의 역사적인 영상물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고, 그의 유년기와 부모님과의 추억, 2차세계대전 때의 암울함과 학창시절 스승 네이가우스에 대한 존경어린 시선, 공연당시의 스케치, 그리고 동료 음악가들인 마리아 유디나, 디스카우, 카라얀, 브리튼 등등과의 기억과 모습들을 다채롭게 꾸며나간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리히테르가 로린 마젤이 지휘하는 l'ORTF 국립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는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K271 전곡 1966년 실황이 보너스 트랙으로 수록되어 있다. 영상물로 처음 발매되는 진귀한 기록이다.

[DVD 3]
Conductor or Conjurer, The Red Baton, Dead Souls :

"카리스마! 그것만이 지휘자가 원하는 것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다."

20세기 소비에트 음악의 산증인인 노장 겐나디 로제스트벤스키(b.1931)는 지휘자란 존재를 이와 같이 정의 내린다. 몽생종이 2003년에 제작한 1시간 짜리 다큐멘터리인 Conductor or Conjurer는 연주회와 리허설, 특히 학생들과의 마스터클래스 영상을 통해 음악 그 자체의 대화와 표현, 정확성과 즉흥, 작품에 대한 이해와 지휘자의 올바른 지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로제스트벤스키 자신의 음악이 얼마나 치열하고 완벽한 것인지를 알려준다. 이 필름에 담긴 내용은 너무나 심원하고 자기 반성적이며 심지어 유쾌하기까지 한데, 우리 시대의 지휘자들이 오케스트라를 통해 무엇을 표현하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그의 말과 지휘를 통해 극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보너스 트랙으로 알프레드 시닛케의 '죽은 영혼'(2003) 및 프로코피에프의 칸타타 '즈드라비짜'(2002) 공연 실황(피아노, 빅토리아 포츠니코바)이 담겨 있어 음악적 완성도를 한껏 높인다.

[DVD 4 & 5]
Conversation with Gennadi Rozhdestvensky 1, 2부 :

1999년부터 2015년까지 오랜 기간 동안 제작한 브루노 몽생종의 회심의 역작!

겐나디 로제스트벤스키의 인터뷰와 그의 기록을 통해 소비에트 음악의 지난 50여년의 역사를 일별하는 회심의 다큐멘터리 필름이다. 그가 왜 우리 시대의 마지막 거장인지, 그리고 소비에트 음악이 왜 위대한지를 바로 이 필름을 통해 우리는 가늠할 수 있다. 이 생생한 역사적 증언에 눈과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그의 어린 시절과 볼쇼이에서의 활동, 전쟁기간, 쇼스타코비치와 프로코피에프, 스트라빈스키에 대한 기억 등등, 이 기록이 아니면 결코 알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20세기 러시아 음악의 타임캡슐을 바로 이 영상물을 통해 비로소 열어볼 수 있을 것이다.

[FORMAT]
[RUNNING TIME] Total 642min.
[SOUND] PCM Stereo/ Dolby Digital
[SUBTITLES] Francais/ Deutsch/ English/ Russian/ Korean/ Japanese
[REGION CODE] 0 (Worldwide)
[PICTURE FORMAT] NTSC 4:3/ NTSC 16:9 (Conversations)
[LANGUAGES] Russian/ Francais/ German/ English

Accentus

www.accentus.com

추천음반

ACC 30372
바흐:
골드베르크 변주곡, BWV988
주 샤오-메이(피아노)

순환하는 도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정중동의 이미지
주 샤오-메이는 파리음악원과 북경음악원에서 가르쳤으며, 퇴임 이후 녹음 작업과 젊은 연주자를 돕는 일에 매진하고 있다. 그녀의 녹음 레퍼토리는 바흐로, 이것은 그녀의 평생의 꿈이기도 하다. 특히 〈골드베르크 변주곡〉은 '모택동의 노동캠프부터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까지'라는 자서전에서 볼 수 있듯이 목적지와 같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주 샤오-메이는 이 곡을 노자의 말을 빌어 "도의 움직임"이라고 말한다. 그녀의 연주는 지나치지 않고 경건함에 이르며, 그러면서도 그 안에 인간의 삶이 생동하는 정중동의 경지에 이른다.

ACC 30308
바흐: 푸가의 기법
주 샤오 메이(피아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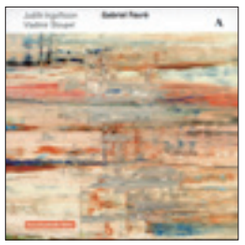
깊은 호흡, 참신한 해석에 빛나는 주 샤오만의 바흐
중국 태생의 피아니스트 주 샤오 메이는 1964년 문화대혁명 시기에 유럽음악 연주 금지로 연주를 그만두어야 했으며, 그 후 5년간의 몽골의 수용소에서 몰래 악보를 복사하며 음악에 대한 열정을 키워왔다. 바흐의 평균율 클라이버곡집 전곡과 골드베르크 변주곡 녹음 등으로 바흐음악의 깊이를 탐구해온 주 샤오의 의지와 깊이 있는 연주는, 바흐가 8년 동안 공들였다는 '푸가의 기법'에서도 어김없이 발휘된다. 단순 · 반행 · 대칭푸가 등 총 20곡의 배열을 어떻게 하는가도 연주만큼 중요한 이 곡의 연주와 배열에 대한 주 샤오 메이만의 진지한 자세를 느낄 수 있다. 명료한 음색을 담은 녹음 컨디션도 최상급이다.

ACC 30350
바흐: 인벤션과 신포니아
주 샤오 메이(피아노)

바흐의 교과서 음악에 유려하고 부드러운 흐름을 더한 독특한 해석
깨끗한 녹음, 유려하고 부드럽게 흐르는 바흐를 애호하는 마니아라면 반드시 지녀야 할 음반이다. 바흐의 인벤션과 신포니아는 아들 프리데만을 위해 쓴 곡으로, 평균율 클라비어곡집과 함께 바흐의 교육적인 작품을 대표하는 명작이다. 음을 이어 선율을 노래한다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한 당시 작곡된 곡이지만, 주 샤오 메이는 해석과 기교는 능수능란하게 이 곡을 '노래'한다. 1964년 문화대혁명기의 시련과 이후 5년간 몽골 수용소 복역 등을 이겨낸 중국 피아니스트가 깊이 천착해온 바흐 해석과 그 탐구심이 빛을 발하는 음반이다.

ACC 303712
비에른:
바이올린 소나타, 피아노 오중주
유디트 잉골프손(바이올린),
블라디미르 스투펠(피아노)

매 순간 펼쳐지는 환상적인 음향과 아름답고 유려한 선율
프랑스의 심포닉 오르간 전통의 핵심에 위치한 루이 비에른은 오르가니스트이자 오르간 작곡가로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는 교향곡과 협주곡, 실내악곡을 비롯하여 상당한 양의 가곡을 남기기도 했다. 특히 그의 실내악은 당시 프랑스를 지배하던 인상주의와는 거리를 두고 있으면서도 고전적인 안정감을 갖추고 있으면서 프랑스적인 자유로운 낭만을 노래한다. 이 음반에 수록된 〈바이올린 소나타〉와 〈피아노 오중주〉는 이러한 비에른의 특징이 잘 나타나는 곡으로, 매 순간 펼쳐지는 환상적인 음향과 아름답고 유려한 선율에 탄복하게 된다.



ACC 303713
포레: 바이올린 소나타 1, 2번
유디트 잉골프손(바이올린),
블라디미르 스토우펠(피아노)

세월만큼이나 다른 스타일을 보여주는 포레의 두 걸작 바이올린 소나타
슈테만/마냐르 및 비에른의 작품 녹음에 이은 잉골프손/스토우펠 콤비의 '세기의 콘서트'(Concert-Centenaire) 제3집은 가브리엘 포레의 작품으로 채워져 있다. 비에른은 포레에게 "당신의 '바이올린 소나타 2번'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라고 말한 적도 있다. '소나타 1번'(1876)과 '2번'(1917) 사이에는 무려 40년의 세월이 가로놓여 있으며 둘의 스타일 또한 그만큼 다르다. 그러나 프랑스다운 우아함과 낭만적 동경이 조화를 이룬 '1번'과 한층 금욕적이고도 절박한 '2번' 모두 포레의 걸작이자 프랑스 바이올린 소나타의 보물로 남아 있다.

Accord

www.cdaccord.com.pl

ACD 080
쇼팽: 피아노 협주곡 1번, 2번
아르투르 루빈스타인(피아노), 마르타 아르헤리치(피아노), 바르샤바 국립 관현악단 외, 비톨드 로비츠키(지휘), 신포니아 바르소비아, 그제고시 노바크(지휘)

거장들의 드림팀이 바르샤바에서 연주한 쇼팽 협주곡들
쇼팽이 남긴 두 곡의 피아노 협주곡은 폴란드를 떠나기 직전에 바르샤바에서 초연되었다. 이 음반은 바르샤바에서 이루어진 두 거장의 연주를 담아 더욱 의미가 깊다. 루빈스타인은 폴란드 출신의 전설적인 피아니스트로, 쇼팽의 연주에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의 〈협주곡 2번〉 연주는 이 곡이 〈협주곡 1번〉에 가려진 이유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그 곡만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십분 펼친다. 설명이 필요 없는 우리 시대의 거장 아르헤치리의 〈협주곡 1번〉은 51세 때의 연주로, 숨길 수 없는 에너지와 섬세한 감성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다.

ACD 226-2
코다이이: 바이올린과 첼로 이중주/ 로자: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 두 대의 바이올린 소나타
시몬 크셰소비에츠(바이올린), 바르트워미에이 니지오우(바이올린), 아담 크셰소비에츠(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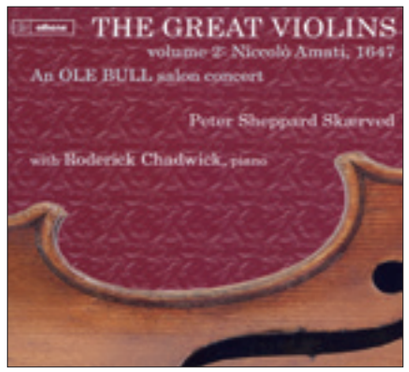
헝가리 출신의 두 작곡가, 미클로슈 로자와 졸탄 코다이의 대표적인 실내악곡
로자는 영화 '벤허'로 잘 알려져 있는 영화음악 작곡가지만, 여러 관현악곡과 협주곡, 소나타 등 진지한 작품을 다수 작곡한 클래식 작곡가이기도 하다. 헝가리 취향이 강한 선율이 많이 등장하면서도 구성이 탄탄한 그의 클래식 작품이 가진 두 측면은 각각 코다이와 바르톡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다. 로자의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와 〈두 대의 바이올린 소나타〉는 이러한 그의 특징이 잘 나타나는 역동적인 작품들이다. 코다이의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이중주〉는 그의 대표적인 실내악 작품으로, 과감한 표현과 다이나믹한 움직임이 돋보인다.

ACD 020-2
차이코프스키: 피아노 협주곡 1번/ 슈만: 피아노 협주곡 등
마르타 아르헤리치(피아노), 바르샤바 국립 관현악단, 카지미에르 코르드(지휘)

아르헤리치의 거침없는 타건과 폭발적인 표현력, 그리고 시적인 섬세함
1979년 12월과 1980년 10월에 바르샤바에서 있었던 연주 실황이다. 차이코프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에서는 아르헤리치의 놀라울 정도로 거침없는 타건과 폭발적인 표현력이 고스란히 기록되어있다. 폴란드의 거장 카지미에르 코르드가 지휘하는 바르샤바 국립 관현악단은 이에 경쟁하는 듯 거칠고 극적인 사운드를 들려주어 신선한 조화를 이룬다.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에서는 아르헤리치의 섬세함이 돋보이며, 슈만의 시적인 멜랑콜리가 아름답게 승화한다. 함께 수록한 바흐, 스카를라티, 쇼팽, 히나스테라의 앵콜곡은 최고의 선물이다.

Athene

www.divineartrecords.com



ath23205
아마티(1647년 제작)로 재현된 올레 본의 살롱 콘서트
페터 셰퍼드 스케르베드(바이올린), 로데릭 채드윅(피아노)

노르웨이의 파가니니 올레 본의 애장 바이올린과 그의 살롱 콘서트
노르웨이 출신의 비르투오소 바이올리니스트 올레 본은 그가 누렸던 명성이나 세상에 드러난 음악적 능력 모두 슈만이 지적하듯 파가니니에 비견될 만 했다. 올레 본은 당시 연주자(작곡가)들과 마찬가지로 극장과 살롱을 무대로 활동했는데, 본 음반에서는 올레 본의 애장 바이올린인 아마티(1647년 제작)로 그의 살롱 콘서트를 재현했다. 음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올레 본 자신의 작품에서는 기교와 즉흥성, 속도감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앞서 슈만의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보여준다.

BR Klassik

www.br-klassik.de

900144 ***추천음반***

시벨리우스: 핀란디아, 교향곡 2번, 카렐리아 모음곡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 마리스 얀손스(지휘)

시벨리우스 특유의 청명한 분위기와 얀손스의 낙천적인 스타일이 융화된 연주

시벨리우스 탄생 150주년을 맞았던 2015년에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이 연주했던 시벨리우스의 작품들을 담았다. 시벨리우스의 가장 유명한 작품인 〈핀란디아〉를 비롯하여 그의 일곱 개의 교향곡 중 가장 자주 연주되는 〈교향곡 2번〉, 그리고 시벨리우스의 민족음악적 특성을 보여주는 〈카렐리아 모음곡〉이 수록되었다. 마리스 얀손스는 자신의 낙천적인 스타일로 이 곡들을 시벨리우스 특유의 청명한 분위기로 이끈다. 그래서 과감한 진행으로 비극적인 장면을 충분히 보여주면서도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승리의 확신을 준다.

900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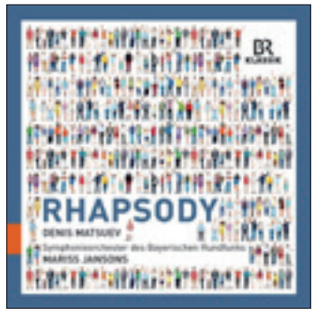
드보르작: 교향곡 8번, 사육제 서곡

수크: 현을 위한 세레나데

바에에른 방송 교향악단, 마리스 얀손스(지휘)

체코 음악을 평정한 두 거장의 하모니

드보르작의 〈교향곡 8번〉은 미국으로 가기 전 체코에서 작곡한 작품들 중 가장 뛰어난 곡 중 하나이다. 유럽적인 탄탄한 구성과 체코의 지역적 특색이 완벽하게 결합되어 있으며, 드보르작의 남다른 음악적 재능과 개성적인 표현이 훌륭히 어우러져 있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현을 위한 세레나데'는 19세기에 유행했던 밝고 가벼운 다악장의 작품으로, 수크는 자신의 〈세레나데〉에 드보르작의 딸인 오틸카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담았다. 오늘날 이 곡은 차이코프스키, 드보르작과 함께 가장 뛰어난 낭만 세레나데로 인정받고 있다.



900146

랩소디

– 샤브리에, 거슈윈, 에네스쿠, 라벨, 리스트의 작품

데니스 마추예프(피아노),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 마리스 얀손스(지휘)

샴페인 같은 가벼움과 흥취가 가득한 얀손스의 랩소디 모음집

2015년 10월 8~9일 뮌헨 헤르쿨레스잘 공연 실황. 제목 그대로 랩소디로만 구성된 이 음반은 샤브리에 '에스파냐'의 경쾌한 연주로 시원하게 포문을 연다. 거슈윈의 '랩소디 인 블루'에서는 현재 최정상의 위치에 있는 피아니스트 마추예프가 날렵함과 흥취를 겸비한 연주를 들려주며, 화사하고 단아하게 해석된 에네스쿠의 '루마니아 랩소디'는 빈 왈츠를 듣는 듯한 착각마저 불러일으킨다. 라벨의 '스페인 랩소디'는 대단히 경묘하게 연주되었으며, 얀손스는 리스트 '헝가리 랩소디 2번'의 관현악 버전에서도 일사불란한 연주로 끝까지 즐거움을 준다.

Dacapo

www.dacapo-records.dk

8.224727

'(더 많은) 프랑스 음악' – 드뷔시, 포레, 비에른, 생상스의 작품들

헨리크 담 톰센(첼로), 울리히 스태르크(피아노)

프랑스 첼로 레퍼토리를 대표하는 명곡들의 모음

첫 곡인 드뷔시 말년의 걸작 '첼로 소나타'에서 톰센은 템포를 약간 늦추는 대신 모든 음을 명료하게 연주하면서 각 악장의 성격을 극명하게 대비시킨다. 포레의 작품들은 서정적인 선율미를 잘 살렸으며, 특히 유명한 가곡 '꿈꾼 뒤에'의 고즈넉한 연주는 일품이다. 루이 비에르네의 두 소품은 양식적인 면에서 낭만주의의 잔영이 남아 있는 포레와 드뷔시의 인상주의 사이에 놓인 가교 역할을 하며, 특히 '전설'은 멋진 선율미를 지닌 곡이다. 생상스의 작품들은 고전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며, 차분하고 기품 있게 연주된 '백조'가 전체 음반을 마무리한다.

8.226111

헬스테드: 10중주, 현악사중주

덴마크 신포니에타

독일 낭만음악과 덴마크의 순수하고 투명한 구성의 완벽한 결합

덴마크는 독일과 국경을 접하여 음악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았다. 덴마크 작곡가 구스타프 헬스테드(1857–1924)는 초기에는 슈만과 멘델스존으로부터 많은 영감을 얻었으며, 완숙한 시기에는 바그너, 브루크너, 말러 등의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그의 음악은 19세기 후반 독일 낭만음악과 연결되어 있으며, 또한 덴마크의 순수하고 투명한 구성을 갖추고 있다. 덴마크 신포니에타의 멤버들은 헬스테드의 음악이 지닌 극적인 낭만성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여 새로운 거장을 발굴했다. 브람스에 바그너적인 이디엄을 배합한 독특한 음악이다.

Divine art

www.divineartrecords.com

dda21228

로이 히튼 스미스 작품으로의 초대

클레어 윌킨슨(메조소프라노), 존 터너(리코더), 린다 머릭(클라리넷), 솔렘 현악사중주단

새롭게 조명되는 로이 히튼 스미스의 음악 세계

영국의 작곡가 로이 히튼 스미스는 로열 소사이어티 상을 수상하는 등 작곡가로서 나름의 입지를 갖추고 있었다. 그동안 로이 히튼 스미스의 초기 작품을 제외한 나머지 작품들은 출판조차 되지 않아 그와 그의 작품 세계는 가려져 있었다. 본 음반은 실내악과 소품은 물론 오케스트라 작품에 이르기 까지 로이 히튼 스미스의 폭넓고 다양한 작품 세계를 담고 있는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의 작품들은 TV드라마 배경 음악을 듣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 특히, 리코더와 클라리넷의 정겹고 재치 있는 선율에 절로 미소 짓게 된다.

dda25028

드보르작: 교향곡 9번 & 멘델스존: 교향곡 3번(피아노 듀오 편곡 버전)

앤소니 골드스톤, 캐롤린 클레모(피아노)

너무나 익숙해서 더욱 새롭게 다가오는 연주

드보르작의 교향곡 9번과 멘델스존의 교향곡 3번은 해당 작곡가의 작품 중 가장 대중적이며, 인기 있는 작품일 것이다. 두 작품 모두 작곡가 자신에 의한 피아노 편곡 버전이 존재하는데, 이는 소규모 콘서트에서 자신과 친분 있는 이들에게 작품을 소개하기 위함이었다. 너무나도 익숙한 작품들인 만큼 피아노 편곡버전이 다소 싱겁게 느껴질지 모른다는 선입견은 감상하는 순간 사라진다. 오히려 피아노 편곡 버전에 손길이 갈 정도로 골드스톤과 클레모는 원곡의 스케일과 디테일을 훌륭하게 표현하고 있다.

*** '멘델스존: 교향곡 3번(5~8번 트랙)' 세계 최초 녹음**

Dynamic

www.dynamic.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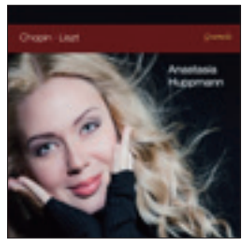
CDS 7759 ***세계 최초 녹음***
코스트: 오보에 콘체르티노, 오보에 소나타, 위로, 후회, 카바티나 등
엔리코 칼카니(오보에), 소니아 발라린(피아노)
우아하면서도 아름다운 멜로디를 가진 낭만음악의 진수
나폴레옹 코스트는 유명한 기타음악 작곡가지만, 이 음반은 그의 오보에 작품들을 수록했다. 이 곡들은 우아하면서도 아름다운 멜로디를 가지고 있으며, 피아노는 마치 기타 연주와 같이 화음과 리듬 위주의 반주를 들려준다. 이를 통해 가볍고 발랄하면서도 진지한 19세기 기악음악의 전형적인 스타일을 보여준다. 〈오보에 콘체르티노〉는 다양한 스타일을 구사하며 오보에에게 뛰어난 음악적 리더의 역할을 요구한다면, 〈오보에 소나타〉는 베토벤적인 고전적이면서 진지한 면모가 있다. 함께 수록된 소품들은 지극히 아름다운 낭만음악의 진수이다.

CDS 7761
18세기 이탈리아 오페라 서곡
이탈리아 오페라의 영광의 시대를 추억하는 서곡 모음
이탈리아 오페라가 가장 융성했던 때는 18세기였다.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이탈리아 오페라가 상연되었고, 수많은 음악가들이 오페라를 공부하고 또한 성공하기 위해 이탈리아로 모였으며, 뛰어난 이탈리아 음악가를 초청하기 위해 경쟁하기도 했다. 이 음반은 당시 이탈리아 오페라를 이끌었던 아홉 명의 작곡가의 오페라 서곡으로 당시의 영광을 추억한다. 비발디의 〈바자제〉를 비롯하여 교향곡을 확립했던 사마르티니의 〈메메트〉, 19세기 후반 빈 최고의 작곡가였던 살리에리의 〈다나이드〉, 이탈리아 고전의 최고봉 케루비니의 작품 등을 수록했다.

Gramola

www.gramola.at

99100
줄리아니: 그랑 듀오 콘체르탄테/ 데 칼: 세레나데/ 브레스겐: 다섯 개의 소품 등
엘리자베트 뫼스트(플루트), 마로예 브르치치(기타)
고전부터 오늘날까지 섭렵하는 플루트와 기타를 위한 음악
오스트리아의 플루티스트인 엘리자베트 뫼스트가 약 200여년에 걸친 다양한 음악을 들려준다. 고전시대 작곡가인 레오나르도 데 칼의 〈세레나데〉는 갈랑 스타일의 단아하고 아름다운 선율로 가득하다. 19세기 초 기타음악으로 유명한 마우로 줄리아니의 〈그랑 듀오 콘체르탄테〉는 25분에 이르는 대곡으로, 명랑하면서도 거장의 기풍이 느껴진다. 체자르 브레스겐은 잘츠부르크의 작곡가로, 〈다섯 개의 소품〉은 가볍고도 진지한 독특한 작품이다. 체코 작곡가 얀 트루흘라르시의 〈소나타 셈플리체〉는 짧은 인형극이 연상될 정도로 유머러스하고 극적이다.



99113
쇼팽: 연습곡, 폴로네이즈/ 리스트: 메피스토 왈츠, 헝가리 랩소디 등
아나스타샤 후프만(피아노)
"요즘 피아노를 이렇게 잘 연주하는 연주자를 거의 보지 못했다."
러시아의 피아니스트 아나스타샤 후프만은 어린 시절부터 피아노 신동으로 알려졌으며, 8세 때에 첫 콩쿠르 우승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수많은 국제 콩쿠르를 휩쓸었다. "그녀의 풍부한 사운드 팔레트와 뛰어난 기술, 섬세한 감각은 음악을 연주하는 것은 즐거움으로 변화시킨다."는 그녀에 대한 평가는 이 음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쇼팽과 리스트로 꾸며진 결코 만만치 않은 레퍼토리임에도 불구하고, 후프만의 손끝에서 울리는 소리는 한없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듣는 이의 마음을 가볍게 떠오르게 한다. 마법에 홀린 듯한 연주이다.

Gothic

www.gothic-catalog.com

G–49298
저녁 찬송
조지아 주립대 싱어즈, 디나 조셉(지휘)
아름다운 멜로디와 화음을 가진 경건한 성가와 진지한 사랑 노래
르네상스 시대의 위대한 영국 작곡가인 토마스 탈리스의 〈이 날이 가기 전에〉와 아름다운 독일 성가를 남긴 멘델스존의 작품 〈저의 기도를 들으소서〉를 비롯하여, 가디너의 〈이 날이 가기 전에〉, 라바의 〈잠들기 전의 은혜〉 등 다양한 스타일의 아름다운 성가들을 수록했다. 또한 셰퍼드의 〈평화 속에서〉와 도브의 〈일곱별을 만드신 분을 찾아〉, 린드플라이쉬의 〈그의 음악에〉 등 세 곡의 시편송도 황홀하다. 브람스의 〈연인에게 가는 길〉과 엘가의 〈세레나데〉는 거장의 명곡들이며, 지휘자로 잘 알려진 칼 봄의 〈밤처럼 고요하게〉도 들을 수 있다.

Fanfare Cincinnati

www.cincinnatisymphony.org

FC–008
라흐마니노프: 쇼팽 변주곡, 코렐리 변주곡
마리아나 프레발스카야(피아노)
모든 낭만적인 표현을 쏟아 넣은 감각적인 사운드
프레발스카야는 "위대한 피아니스트", "피아노의 거장", "위대한 음악성을 가진 성숙한 피아니스트"등의 호평을 받고 있다. 그녀가 연주한 라흐마니노프의 두 변주곡은 이러한 평가가 옳다는 것을 보여준다. 〈쇼팽 주제에 의한 변주곡〉은 쇼팽의 c단조 전주곡을 주제로 하며, 〈코렐리 주제에 의한 변주곡〉은 코렐리의 '라 폴리아'를 주제로 한다. 이 두 곡은 먼저 주제를 연주한 후 쇼팽 변주곡을 22개, 코렐리 변주곡은 20개의 변주곡을 연주한다. 프레발스카야는 변주에 자신의 모든 낭만적인 표현을 쏟아 넣어 감각적인 사운드를 들려준다.

Fleur de Son

www.fleurdeson.com

FDS58034
모차르트: 바이올린 소나타 28, 32, 35번
자크 이스라엘리비치(바이올린), 크리스티나 페트로프스카 킬리코(피아노)
바이올린의 효과와 피아노의 역할이 맛깔스럽게 배합된 명연주
바이올리니스트 이스라엘리비치는 파가니니 콩쿠르 우승자이며, 셰링, 슈타커, 프림로즈, 진골드 등 20세기 거장들을 사사했다. 토론토 심포니와 세인트 루이스 심포니의 악장을 역임했으며, 토론토 대학과 요크 대학에서 가르쳤다. 그는 모차르트가 완숙했던 시기에 작곡한 바이올린 소나타 세 곡을 연주했다. 이스라엘리비치는 다년간의 앙상블 경험으로 바이올린과 피아노의 조화로운 앙상블과 하모니로 음악을 이끌어간다. 그런 만큼 모차르트가 의도했던 바이올린의 효과와 피아노의 역할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맛깔스럽게 배합되었다.

Grand Piano

www.grandpiano.org

GP709
알메이다 프라두: 카타스 첼레스테
알레이슨 스코펠
피아노의 다양한 음향과 색채를 보여주는 브라질의 현대음악
그랜드피아노 레이블은 보리스 차이콥스키, 모솔로프, 실베스트로, 리오테 등 독특한 음향세계를 추구한 작곡가들의 앨범을 녹음하여 발매하고 있다. 호세 안토니오 헨젠지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는 알메이다 프라두(b.1943)는 브라질의 작곡가로, 브라질의 천문학과 우주에 관한 여러 지식과 전설을 소재로 '카타스 첼레스테' 시리즈를 꾸준히 작곡 · 발표해왔다. 그 중 1번(1974), 2번과 3번(1981), 15번(2009)이 수록되었고, 15번은 세계 최초로 녹음이다. 피아노 건반과 페달의 자유롭고 신비로운 활용법이 압도적이며, 브라질 태생 알레이슨 스코펠의 연주는 예리하고 날카로운 터치로 작곡가의 의도를 살리고 있다.

GP717
페르 뇌르고르, 핀 뤼케보, 라르스 비스고르: 덴마크의 피아노곡
칼 피터슨(피아노)
북구의 현대음악을 느낄 수 있는, 덴마크 피아노곡 모음집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20~21세기 작곡가들의 피아노곡을 발굴하여 청량한 음향과 함께 색다른 음반을 내놓고 있는 그랜드피아노 레이블에서 출시된 덴마크 작곡가들의 피아노 모음 앨범이다. 시벨리우스의 영향을 받은 페르 뇌르고르(b.1932), 시적인 감수성이 돋보이는 핀 뤼케보(b.1937~1984), 상징적인 성격이 강한 라르스 비스고르(b.1947)가 작곡한 피아노 독주곡들이 담겨 있는 이 앨범 속 대부분의 곡들은 세계 최초로 레코딩된 것으로, 독일의 플로토와 노르웨이의 그리그 레퍼토리에 강세를 보이는 젊은 피아니스트 칼 피터슨이 수학적이고 명료하게 세 작곡가의 세계를 풀어내고 있다.

GP723
에르빈 숄호프: 피아노 독주곡 모음 3집
카롤리네 바이허트(피아노)
동유럽 작곡가와 재즈의 묘한 만남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20~21세기 작곡가들의 피아노곡을 발굴하여 청량한 음향과 함께 색다른 음반을 내놓고 있는 그랜드피아노 레이블에서 카롤리네 바이허트는 체코 작곡가 에르빈 숄호프(1894~1942)의 피아노 독주곡집을 지속적으로 녹음 · 발매하고 있다. 숄호프는 1930년에 재즈 오라토리오를 작곡할 정도로 재즈적인 요소와 기법을 많이 활용한 작곡가. 이번 3집 앨범에는 숄호프가 1913년부터 1931년까지 작곡 · 발표한 5곡의 독주곡을 담았다. 이를 통하여 동유럽의 정서와 재즈의 묘한 랑데부를 느낄 수 있다.

GP725
다디&모타: 포르투갈의 피아노 음악
소피아 로렌코(피아노)
낯설지만 매력적인 포르투갈 피아노곡들
피아노 음반 전문 레이블 그랜드 피아노에서 내놓은 포르투갈 작곡가 조아스 길레미르 다디(1813~1887)와 호세 비아나 모타(1868~1948)의 곡을 수록한 앨범이다. 이들이 생전에 구사하던 작곡법은 비르투오소들에 의해 널리 알려졌는가 하면, 대중적 성격의 오페라에도 영향을 끼쳤고, 왈츠 같은 경쾌한 춤곡을 떠올리게도 한다. 다디의 4곡과 모타의 세레나타는 세계 최초 녹음이다. 유럽의 음악들 중 다소 낯설면서도 민속적 선율이 친숙하게 다가오는 이 곡들을 동향의 후배 피아니스트 소피아 로렌코는 낭만적으로 풀어내고 있다.

GP703–04
모솔로프: 피아노 소나타 1, 2, 4, 5번 외
올가 안드류시첸코(피아노)
20세기 러시아 작곡가가 그린 불안한 시대상
20~21세기 작곡가들의 피아노곡을 발굴하여 청량한 음향과 함께 색다른 음반을 내놓고 있는 그랜드피아노 레이블에서 출시한 알렉산더 모솔로프(1900~1973)의 피아노독주곡을 모은 앨범이다. 키예프 출신인 그는 스탈린의 문화정책에 희생된 또 한 명의 잊혀진 러시아 작곡가로, 전위적이고 미래주의적인 색채가 강하던 1920년대에 작곡한 피아노 소나타들을 비롯하여 총 8곡을 두 장의 CD에 담았다. 키예프 태생의 피아니스트 올가 안드류시첸코는 모솔로프의 곡에 담긴 불협화의 시대상을 고스란히 재현한다. 쇼스타코비치나 프로코피예프와는 다른 매력을 지닌 20세기 러시아음악에 관심이 많은 이들에게 추천한다.

GP711 ***추천음반***
프리드만: '에두아르드 가트너를 위한 비엔나 왈츠', 피아노 소곡 Op.27 외
조셉 바노베츠(피아노)
'20세기 쇼팽' 프리드만의 서정적인 선율을 담은 음반
이그나츠 프리드만(1882~1948)은 폴란드의 유명한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이다. 생전에 쇼팽 · 리스트 스페셜리스트였던 그가 작곡한 '에두아르드 가트너를 위한 비엔나 왈츠'(1916), 피아노 소곡 Op.27(1908), '스트로프' Op.71(1917), '인상' Op.79(1918), 4개의 프렐류드 Op.61(1915)을 담은 음반이다. 이 중 소곡과 '스트로프', 4개의 프렐류드는 세계 최초 레코딩이다. 28개의 트랙 모두 서정적인 선율과 발라드풍의 곡들로 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프리드만이 쇼팽으로부터 받은 영향을 느낄수 있다. 잔잔한 피아노의 음색에 취하고 싶은 이들에게 적극 추천한다.

GP647 ***세계 최초 녹음***
코젤루흐: 피아노 소나타 21~24번
켐프 잉글리시(포르테피아노)
고전시대 후기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정통 피아노 소나타
고전시대의 체코 작곡가 레오폴트 코젤루흐(1747-1818)는 빈에서 활동했던, 당대 최고의 건반 연주자였다. 그의 건반을 위한 작품들은 큰 인기가 있었으며, 후에 베토벤과 슈베르트에게 음악형식에 대한 안목을 키워줄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다. 코젤루흐의 소나타 6집에서는 소나타 21번부터 24번까지 네 곡을 수록했다. 이 곡들은 고전시대 후기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높은 완성도를 지니고 있는 작품으로, 1785~86년 작곡 당시 명성이 높았던 모차르트의 영향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투명하고 단아한 스카를라티풍의 22번은 독특하다.

GP692 ***세계 최초 녹음***
글래스: 영화음악 '디 아워스', 모던 러브 왈츠, 5도 음악 등
니콜라 호르밧(피아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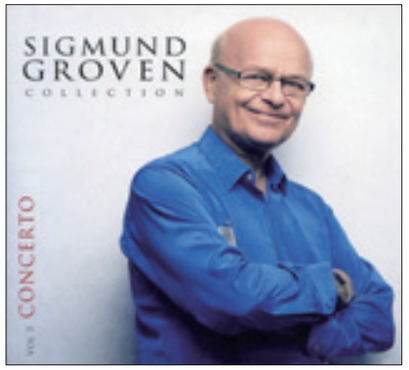
영화음악 작곡가로서의 글래스를 피아노로 만나다
필립 글래스의 서정적인 멜로디와 단순한 반주는 순수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으며, 글래스가 음악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진정한 내면의 목소리를 투명하게 전달한다. 피아노 작품 4집은 영화 '디 아워스'의 음악으로, 각 곡이 저마다 하나의 감정에 집중하게 한다. 〈모던 러브 왈츠〉는 1977년 작품으로, 글래스의 반복구조가 갖는 매력이 십분 발휘되어 있으며, 반면 2006년 작품인 〈Notes on a Scandal〉은 영화와 같은 로맨틱한 감수성을 담은 최근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초기곡 〈5도 음악〉은 몇 되지 않은 글래스의 진정한 미니멀리즘 음악이다.

GP705
에네스쿠: 녹턴, 측흥적 작품, 피아노 소나타 1번
호수 데 솔라운(피아노)

20세기 초 최고의 천재 음악가였던 에네스쿠의 천재성이 집약된 작품들
루마니아 출신으로 파리에서 활동했던 제오르제 에네스쿠(1881-1955)는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였으며 성공적인 작곡가로서 매력적인 피아노 작품들을 다수 남겼다. 26세의 작품인 〈녹턴〉은 드뷔시를 필적하는 서정성과 풍부한 음향을 들려주며, 현대적 감각과 극적 구성은 라벨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천재적이다. 35세 작품인 〈즉흥적 작품〉은 우수에 찬 낭만적 작품들과 춤곡들, 코랄, 카리용의 모방 등 에네스쿠의 폭넓은 상상의 세계가 가득하다. 43세 작품 〈피아노 소나타 1번〉은 낭만의 짙은 멜랑콜리에 현대적 화성감각이 더해진 걸작이다.

Grappa

www.grappa.no



GRCD 4510
그로벤 컬렉션 3집: 콘체르토
시그문 그로벤(크로마틱 하모니카), 노르웨이 방송 관현악단 등

협주곡의 독주악기로서, 또한 앙상블 악기로서의 들려주는 하모니카의 절대 매력
세계 정상의 하모니카 연주자인 그로벤이 1980년대부터 녹음해온 음원으로 컬렉션 음반을 내놓고 있다. 이 음반은 그 중 세 번째로, 주제는 콘체르토이다. 가장 위대한 하모니카 협주곡인 빌라-로보스의 협주곡 2악장과 그리그의 〈솔베이그의 노래〉, 〈아니트라의 춤〉 등 클래식 음악과 비틀즈의 〈여기, 저기, 모든 곳에〉, 영화 '마농의 샘' 테마, 재즈 아티스트 제임스 무디의 〈1771〉과 〈톨레도〉, 비틀즈의 프로듀서였던 조지 마틴의 〈뉴욕, 뉴욕〉 등을 관현악과 함께 연주했다. 이외에도 편안하고 아름다운 자작곡을 다수 수록한 애정 어린 앨범이다.

LPO

www.lpo.org.uk

LPO-0090
브루크너: 교향곡 5번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스타니스와프 스크로바체프스키(지휘)

서서히 에너지를 축적하고 클라이맥스에서 분출하는 스크로바체프스키의 마력
브루크너의 교향곡들은 종교적이라고 하기도 하고 신비적이라고 하기도 하며 우주적이라고 하기도 한다. 〈교향곡 5번〉은 이러한 표현들이 가장 알맞은 첫 교향곡일 것이다. 감정을 쉽게 드러내 보이지 않으면서 서서히 에너지를 축적하고 클라이맥스에서 분출하는 특징은 그가 남긴 교향곡 중에서 5번이 최고일 것이다. 따라서 에너지를 축적하는 것이 〈교향곡 5번〉의 최고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브루크너 교향곡 전곡을 녹음한 전력이 있는 스크로바체프스키는 지나치게 느리지 않으면서 다이나믹을 폭넓게 활용하여 성공적으로 완성한다.

MD&G

www.mdg.de

703 1958-2
가곡: 슈만 '리더크라이스', 브람스 가곡과 민요 13곡
에파 호프만(소프라노), 에드워드 러시톤(피아노)

슈만과 브람스의 서정성을 고스란히 전하는 목소리
슈만 '리더크라이스'(12곡)와 브람스 가곡과 민요 13곡이 실린 이 음반은 독일낭만주의 가곡의 정수를 느끼게 한다. 특히 낭만주의 문학에 친숙한 브람스의 시정(詩情)을 전하는 에파 호프만의 목소리는 품위 있으며 서정적이다. '리더크라이스'에 이어지는 '숲 속의 정경' 중 '예언하는 새', 브람스 가곡들 중 중간에 위치한 인터메조 Op.118은 노래의 흐름을 잠시 쉬게 하면서, 그 호흡의 농도를 더하는 숨고르기 트랙이다. 피아노도 반주가 아닌 독립적인 곡처럼 해석하였기에 슈만 · 브람스의 피아노곡을 좋아하는 애호가에게도 적극 추천한다.

903 1940-6 [SACD]
로베르트 칸: 피아노 삼중주 Op.19 & Op.33
커스틴 슈트라부르크(피아노), 피터 라이너(바이올린), 크리스토프 람프레히트(첼로)

삼중주의 바이블을 섭렵하고 있는 맥스 브로드 트리오의 야심작
2005년 창단된 맥스 브로드 삼중주단은 오디오맥스 레이블에서 드보르자크, 베토벤, 슈베르트의 대표적인 삼중주를 세 장의 음반으로 발매한 적이 있다. 이 음반에는 독일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빌헬름 캠프의 스승이기도 했던 로베르트 칸(1865~1951)의 피아노 삼중주 Op.19와 Op.33을 담았다. 시종일관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연주로 몰입하게 이들의 연주는 국내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로베르트 칸의 매력을 발견하게 해준다. 급변하는 물살을 타고 흐르는 듯한 흐름에서도 안정감을 잃지 않으면서, 한편으로는 현악과 건반악기의 조화와 긴장을 연출하는 이들의 호흡은 피아노 삼중주의 정석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912 1944-6 [SACD]
도그마 첼버 오케스트라: 브리튼, 버클리, 브라이어스, 니만
미하일 구레츠키(지휘), 도그마 첼버 오케스트라

20세기 브리튼부터 니만이 그리는 영국식 모더니즘
20 · 21세기 영국음악에는 전통과 모더니즘, 낭만주의와 현대의 미니멀리즘이 서로 교차한다. 브리튼(1913~1976)의 '심플리 오케스트라', 레녹스 버클리(1903~1989)의 현악합주를 위한 응답 송가(交誦), 개빈 브라이어스(b.1943)가 17세기 퍼셀을 응용한 '인 노마인', 영화음악가 마이클 니만(b.1944)이 도그마 첼버 오케스트라를 위해 작곡한 곡을 수록한 이 음반은 이 같은 흐름에 영향을 주고받은 영국 작곡가들에 대한 재발견의 결과물이다. 풍성하고 윤택한 현악의 울림과 이를 깨끗하게 담아낸 음질이 압도적이다. '신조'를 뜻하는 도그마라는 악단 명처럼 영국 작곡가 특유의 풍성한 선율미를 지휘자 구레츠키는 '신조'있는 사운드로 담았다.

MDG 307 1917–2

타네예프: 피아노 5중주 Op.30, 가곡 '7개의 시' Op.34

라이프치히 현악 4중주단, 올가 골레이(피아노), 마리나 프루덴스카야(메조소프라노)

러시아 음악에 담긴 서정성과 문학성

1988년에 결성된 라이프치히 현악 4중주단은 엠데게 레이블에서 9장의 음반을 지속적으로 녹음 · 발매했다. 이 음반은 러시아 작곡가이자 명피아니스트 세르게이 타네예프(1856~1915)의 피아노 5중주와 '7개의 시' Op.34를 수록했다. 라이프치히 현악 4중주단은 주로 현악 4중주곡만 녹음했지만 이번 녹음에 합류한 카자흐스탄 태생의 올가 골레이와의 호흡에서 상생을 도모하는 자세에는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다. 벨벨같은 목소리를 지닌 마리나 프루덴스카야의 노래와 올가의 피아노가 함께 하는 '7개의 시'는 폴로스키의 시를 타나예프가 노래화한 것으로, 우리에게 낯선 러시아 가곡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게 한다.

MDG 307 1957–2 ***추천음반***

시벨리우스: 현악 4중주 JS183, '친근한 목소리' Op.56

라이프치히 현악 4중주단

풍성하게 살려낸 시벨리우스 현악의 정수

1988년에 결성된 라이프치히 현악 4중주단은 엠데게 레이블에서 드보르자크, 멘델스존, 라이만, 쇠크, 드뷔시, 포레, 캐플릿, 베토벤 등의 주옥같은 곡들을 총 8장의 음반으로 발매한 바 있다. 이번 음반에 수록된 시벨리우스의 '친근한 목소리' Op.56과 JS183은 모두 느린 안단테로 시작하는 우수에 가득 찬 분위기로, 라이프치히 현악 4중주단은 그 울림을 고즈넉이 잘 살리며 자신들의 저력과 시벨리우스 실내악이 지닌 특징을 잘 살리고 있다. 마리엔뮌스터 홀의 음향은 이들의 현에 윤기를 가하는 또 다른 악기처럼 작용한다.

MDG 606 1948–2

얀 얀카: 오르간, 합창곡집 4집

루벤 스트룸(오르간), 오푸스 보칼레 베를린, 베를린 카를 포르스터 합창단, 폴커 헬트펠트(지휘), 헤이코 홀트마이어(오르간)

맑은 음향에 더욱더 빛나는 오르간 창작곡들

폴란드계 독일인 오르가니스트이자 작곡가인 얀 얀카는 1933년 생으로 펜데레츠키와 함께 수학했으며, 뒤프레가 지닌 오르간 전통을 잇고 있다. 엠데게(MDG)에서 얀카의 오르간 · 합창곡을 모은 앨범이 꾸준히 발매되고 있는데, 이번 앨범은 4집으로 자연스런 공명과 잔향을 살린 최적의 녹음 컨디션으로 독일 튀빙겐에 위치한 요한 성당의 오르간 음색과 울림을 담았다. 수록곡은 총 11곡으로, 10곡(트랙 1~16)을 연주한 루벤 스트룸은 오르간 특유의 웅장한 멋을 잘 살렸으며, 합창곡 '천사 미사곡'(트랙 17~23)을 통하여 얀카의 종교적 감수성의 정수를 느낄 수 있다.

MDG 901 1947–6 **[SACD]**

발레리 키타, 안드레이 룹초소프, 안드레이 에슈파이의 오보에 협주곡

마리아 소르나체바(오보에), 크리스토프 마티아스 뮬러(지휘), 괴팅겐 심포니 오케스트라

20세기 러시아 작곡가의 오보에 협주곡들

러시아의 작곡가 발레리 키타(b.1941), 안드레이 룹츠소프(b.1982), 안드레이 에슈파이(1925~2015)의 협주곡을 수록한 음반이다. 마리아 소르나체바는 러시아 출신으로 2007년 독일 ARD 콩쿠르에서 우승 후, 스위스 빈터투어 뮤지크 콜레기움 종신 단원으로 재직 중이다. 전위적인 어법보다는 러시아의 전통 민요를 차용한듯한 세 작곡가의 곡을 지휘자 뮬러와 괴팅겐 심포니의 풍부한 사운드가 뒷받침하며, 소르나체바의 오보에에 의해 여덟 개의 트랙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새로운 레퍼토리의 매력은 물론 두텁고 풍부한 음색을 필살기로 한 소르나체바의 음색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음반이다.

MDG 903 1952–6 **[SACD]**

힌데미트: 비올라 소나타

크리스티안 오일러(비올라), 파울 리비뉴스(피아노)

힌데미트 비올라의 정수를 담은 음반

비올라를 직접 연주했던 파울 힌데미트(1895~1963)만큼 비올라의 매력을 간파하고 있는 작곡가는 없을 것이다. 이 음반에는 비올라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Op.11 No.4와 Op.25 No4, 무반주 독주곡 Op.25 No.1과 Op.11 No.5가 수록되었다. 현악의 울림을 풍성하고 입체감 있게 담아내는 엠데게 레이블에서 영국작곡가 블리스(1891~1975) · 백스(1883~1953) · 윌리엄스(1872~1958)의 비올라 소나타와 모음곡을 내놓은 적이 있는 오일러와 리비뉴스는 이번 음반에서도 빼어난 호흡을 자랑한다. 중저음을 강조하는 연주나 녹음방식과 달리 비올라에 숨겨진 다양한 색채를 연출하는 오일러의 연주는 특히 두 곡의 무반주곡에서 더욱더 빛난다.

MDG 301 1967–2 **[SACD]**

슈베르트 · 브루흐 · 마이어베어 · 바겐자일 · 알브레헤츠버거 등의 관악 중주곡 모음

디터 클뢰커(클라리넷), 콘소르티움 클라시쿰

목관악기의 매력을 담은 12곡의 관악 중주곡 모음집

이제는 전설이 된 클라리네티스트 디터 클뢰커(1936~2011)는 일류 목관주자들을 모아 1965년 콘소르티움 클라시쿰을 창단했다. 작품 발굴과 단원 개개인의 해석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관악기의 역사를 새롭게 써온 이 앙상블이 1969년부터 1993년까지 퀼른 서독일방송국(WDR)에 남긴 녹음 중 12곡을 선별하여 4장의 CD에 담았다. 브루흐나 슈베르트의 명곡부터 미슬리베체크(1737~1781)처럼 생소하고 낯선 작곡가, 율리우스 룀트겐처럼 20세기까지 활동한 이의 곡이 담겼다. 맑은 소리를 지향하는 클뢰커의 철학과 편안함을 제공하고자 하는 녹음의 음향철학은 모든 곡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MDG 330 0756–2 ***추천음반***

막스 레거: 모차르트 주제에 의한 변주곡과 푸가 Op.132a, 베토벤 주제에 의한 변주곡 과 푸가 Op.86, 파사칼리아와 푸가 Op.96

피아노 듀오 트렌크너–스파이델(이블린 트렌크너, 손트라우드 스파이델)

연탄곡으로 다시 태어난 모차르트와 베토벤

푸가나 변주곡과 같은 형식미를 중요시 하는 음악을 선호하는 이들에게 레거의 손을 거친 모차르트(Op.132a), 베토벤(Op.86)은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다. 본 음악에 함께 수록된 레거의 파사칼리아와 푸가 Op.96도 레거만의 엄격한 구성미와 전통미를 보여준다. 스트라빈스키, 말러 등의 교향곡들을 연탄 곡으로 바꿔 엠데레(MDG)에서 8종의 음반을 선보였던 피아노 듀오 트렌크너–스파이델은 본 앨범에서도 역시 모차르트 · 베토벤의 특징을 살리며 피아노 편곡의 묘미도 함께 연출하고 있다.

MDG 901 1949–6 **[SACD]**

멘델스존: 서곡 '뤼 블라' '아름다운 멜루지네의 이야기', 교향곡 '발푸르기스의 첫날밤'

더글러스 보이드(지휘), 빈터투르 무지크콜레기움, 취리히 합창단, 브리기트 레머르트(알토), 요르크 뒤밀러(테너), 루벤 드롤레(바리톤), 레인하르트 마이어(베이스)

멘델스존의 명곡을 빛내는 연주

영국 출신인 더글러스 보이드의 지휘로 스위스 빈터투르 무지콜레기움이 연주한 멘델스존의 '뤼 블라' '아름다운 멜루지네의 이야기' '헤브리디스'의 서곡과 교향곡 '발푸르기스의 첫날밤'을 담은 앨범이다. 맑고 명료한 녹음은 멘델스존의 음악에 서려 있는 서정성과 속도감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발푸르기스의 첫날밤'은 괴테의 '파우스트' 중 '발푸르기스의 밤'을 묘사한 표제음악적인 성격이 강한 작품이다. 오케스트라, 합창단, 4명의 솔리스트는 켈트족과 이교도의 의식의 횡횡하던 시대의 설정과 괴테의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다.

MDG 902 1959–6 **[SACD]**

막스 레거, 브루크너, 브람스, 쇤베르크: 18곡의 무반주 합창곡

볼케르 헤트펠트(지휘), 오푸스 보칼레

레거를 기리는 천상의 합창 사운드

2016년에 서거 100주년을 맞은 막스 레거를 기리는 뜻을 담은 음반이다. 레거의 대표적인 무반주 합창곡 12곡을 수록한 이 앨범에는 그와 동시대(19세기)에 활동한 브람스, 브루크너, 쇤베르크를 대표하는 무반주 합창곡을 수록하여 그 뜻을 더욱더 빛내고 있다. 네 작곡가의 합창은 동시대 양식이라도 공유한 듯, 총 18개의 트랙의 흐름에 자연스럽게 흐른다. 2002년 결성된 오푸스 보칼레의 음성은 엠데게가 자랑하는 멀티채널 레코딩(2+2+2 Recoding) 속에서 청량하게 빛난다. 음반에는 독일어 가사지가 포함되었다.

MDG 903 1950–6 [SACD] ***추천음반***

바흐: 골드베르크 변주곡(라인베르거 편곡)

마틴 겝하르트(오보에), 로스비타 킬리언(바이올린), 미리암 로저(테너 오보에), 레베카 퍼스(첼로)

오보에와 현악의 하모니로 골드베르크 변주곡을!

2000년에 창단한 아울로스 4중주단은 보통 취리히 오보에 4중주단으로도 알려져 있기도 하다. 오보에 · 테너 오보에 · 바이올린 · 첼로로 구성된 이들은 바로크와 낭만을 비롯하여 현대음악까지 다양한 작업을 선보이고 있다. 이 음반에는 작곡가 요제프 라인베르거가 1883년에 편곡한 골드베르크 변주곡을 담았다. 음반을 틀자마자 나오는 1번 트랙 '아리아'를 노래하는 오보에와 바이올린의 선율은 건반악기로 이 곡을 들을 때와 전혀 다른 매력을 선사하는, 이 음반만의 핵심이다! 모던한 연주보다는 원전연주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 이들의 하모니와 음향은 엠데게 특유의 음향기술로 더욱더 맑고 빛난다.

MDG 903 1951–6 [SACD]

러시아음악: 라흐마니노프 · 프로코피예프 · 스크랴빈 · 소피아 구바이둘리나 외

에바 반 그린스벤(색소폰), 헬레나 바실로바(피아노), 마리아 밀슈타인(바이올린), 라르스 니에더스트라버(색소폰)

색소폰으로 노래하는 러시아음악의 로맨스와 황홀함

'러시아와의 만남'이라는 앨범 제목처럼, 라흐마니노프의 성악곡과 가곡, 프로코피예프의 바이올린곡, 쇼스타코비치의 피아노 트리오와 바이올린곡, 스크랴빈의 호른곡 그리고 생존하는 구바이둘리나(b.1931)의 바순곡을 색소폰을 위해 편곡하여 담은 음반이다. 로열 콘세르트허바우 오케스트라 등과 협연경력이 있는 색소포니스트 에바 그린스벤의 소리는 각 곡마다 색채를 바꿔가며 바순 · 오보에 · 플루트 · 클라리넷 · 호른처럼 다가온다. 1920~1930년대 프랑스와 러시아의 음악을 발굴하여 연주하기를 즐기는 그녀의 연주는 어느 한 트랙도 놓칠 수 없게 만든다. 레퍼토리와 연주 모두를 만족시키는 최고의 음반이다.

MDG 940 1922–6 [SACD]

베버: 클라리넷 협주곡 1번 · 2번, 클라리넷 소협주곡 Op.26

폴 메이어(클라리넷 · 지휘), 로잔 실내오케스트라

클라리넷의 소리를 한 올 한 올 살린 연주와 음향

한때 서울시향의 부지휘자 겸 목관섹션 트레이너로 활동하여 우리에게도 친숙한 프랑스 클라리네티스트 폴 메이어가 스위스 로잔 실내오케스트라를 직접 지휘하며, 협연까지 한 음반이다. 유독 클라리넷 협주곡 작곡에 애착을 보인 베버의 클라리넷 대표 레퍼토리를 담았다. 메이어는 주관적인 해석보다는 악보에 충실한 연주를 선보인다. 말끔한 음향을 자랑하는 엠데게 레이블의 녹음은 자칫 귀에 거슬릴 수 있는 관악주자의 숨소리를 제거하며, 폴 메이어 특유의 맑은 소리를 돋보이게 한다. 특히 협주곡 1 · 2번에 들어가 있는 느린 악장은 이 음반이 지닌 별미이다.

MDG 940 1955–6 [SACD]

스트라빈스키: '풀치넬라' 모음곡, '뮤즈를 인도하는 아폴로', 현을 위한 협주곡

조슈아 바일러슈타인(지휘), 로잔 실내 오케스트라

탄력있는 음색으로 스트라빈스키의 신고전주의기의 대표작을 담다

2015/16시즌부터 스위스 로잔 실내 오케스트라의 예술감독으로 재직하고 있는 미국 태생의 지휘자 조슈아 바일러슈타인가 엠데게(MDG) 레이블에서 처음으로 발행한 음반으로 스트라빈스키의 발레음악과 현악곡을 담았다. 수록된 '풀치넬라'는 페르골레지(1710~1736)의 작품에서 많은 주제를 인용했으며, '뮤즈를 인도하는 아폴론'은 스트라빈스키의 신고전주의를 대표하는 발레음악이다. 바일러슈타인의 지휘에는 해학과 풍부함이 가득 배어 있다. 일명 '바젤'로도 불리는 현을 위한 협주곡을 통해 이 악단이 지닌 현의 깊고 풍부한 매력을 가늠할 수 있다.

MDG 903 1953–6 [SACD]

베토벤: 플루트 · 바이올린 · 비올라를 위한 세레나데 Op.25, 바이올린 · 비올라 · 첼로를 위한 3중주 Op.3

아르딩겔로 앙상블(플루트 · 바이올린 · 비올라 · 첼로), 카를 카이저(플루트), 아넷 레베르거(바이올린), 세바스티안 볼파르트(비올라), 제신 케라스(첼로)

3중주로 표현되는 베토벤의 경쾌하고 맑은 화음

엠데게(MDG) 레이블에서 프란츠 단치(1763~1826)와 안드레아스 롬베르크(1767~1821)의 실내악곡을 담은 2종의 앨범을 발매했던 아르딩겔로 앙상블의 이번 선택은 베토벤이다. 베토벤이 피아노 · 첼로 소나타 작곡을 시작하던 초기에 작곡된 세레나데 Op.25와 삼중주 Op.3에는 앞으로 진행될 음악적 응집력이 단단하게 모여 있다. 이를 풀어내는 아르딩겔로 앙상블의 연주는 아기자기하며 섬세하다. 특히, 엠데게 특유의 청량한 녹음에 담긴 카를 카이저의 목관 플루트 소리는 이 음반을 아침에 틀고 싶게 만든다.

MDG 937 1899–6 [SACD] ***추천음반***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

슈테판 블루니어(지휘), 본 베토벤 오케스트라, 브르노 체코 필하모닉 합창단, 엘자 판 덴 히버(소프라노), 재니나 비츨(알토), 로버트 딘 스미스(테너), 게오르그 체펜펠트(베이스)

음향으로 승부 건 베토벤 교향곡 '합창'

베토벤의 고향 본에 위치한 베토벤 오케스트라 음악감독으로 취임한 슈테판 블루니어는 엠데게에서 8종의 SACD앨범을 발매했다. 1806년에 창단된 오케스트라와 2008년에 취임한 지휘자는 18세기 작곡가 프란츠 단치부터 20세기의 말러를 녹음해왔다. 베토벤 교향곡 1 · 5번을 수록한 음반에 이어 이번에는 교향곡 9번을 내놓았다. 녹음 장소였던 본 베토벤홀의 음향과 엠데게가 자랑하는 멀티채널 레코딩(2+2+2 Recoding)이 청량한 울림과 화려함을 한층 더한다. 이러한 음향조건은 이들의 교향곡 9번을 희망과 밝은 분위기로 가득 채운다.

MDG 942 1962–6 [SACD]

브람스 1집: 피아노 3중주 1번 Op.8(1889 개정판), 2번 Op.87

빈 피아노 트리오 – 데이비드 맥캐럴(바이올린), 마티아스 그레틀러(첼로), 스테판 멘틀(피아노)

만년에 이른 브람스의 정취를 느끼게 한다

브람스의 피아노 3중주 Op.8은 1853년에 작곡되어 만년인 1889년에 개정판을 나왔다. 앨범에 이 개정판과 1880년에 작곡된 피아노 3중주 Op.87이 함께 수록되었다. 따라서 이 음반은 1897년에 사망한 브람스가 피아노 3중주에 녹여 넣은 만년의 향기를 느끼게 한다. 1988년 결성 후 엠데게 레이블에서 8종의 굵직한 앨범을 발매한 빈 피아노 트리오는 이번 앨범을 1집으로 하여 브람스 레퍼토리를 계속 녹음할 것을 예고한다. 엠데게의 음향은 세 개의 악기에 우열 없이 입체감을 부여하여 눈앞에서 연주가 진행되는 것처럼 느끼게 한다.

MDG 613–1935–2

몸포우: 먼 곳의 축제

슈테펜 슐라이어마허(피아노)

스페인 현대음악의 문을 연 몸포우의 매혹적인 피아노 작품

페데리코 몸포우는 진정한 의미에서 스페인 현대음악의 문을 연 작곡가라 할 수 있다. 그의 작품 대다수는 '프랑스 6인조'가 등장한 뒤에 나왔다. 그리고 이 가운데 대부분은 피아노곡인데, 이전 스페인 작곡가에게서 흔했던 지역색을 찾기 어려우며 유연하고 섬세한 음색을 지녔다는 공통점이 있다. 음반 표제곡인 '먼 곳의 축제' 외에도 '매력', '마법의 노래', '교외' 등 여기 실린 모든 곡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내지 해설을 직접 썼을 정도로 몸포우의 작품을 심도 있게 연구한 슐라이어마허는 모든 악상을 극히 주의 깊은 태도로 연주하고 있다.

MDG 901 1964-6 [SACD]
닐센, 드뷔시, 프랑세: 클라리넷 협주곡
블라디미르 솔탄(클라리넷), 함부르크 심포니 오케스트라, 호세 루이스 고메스(지휘)

빼어난 솜씨로 연주된 20세기 주요 클라리넷 협주곡들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열린 21세기 음악 콩쿠르에서 우승한 바 있는 블라디미르 솔탄은 이 음반에서 20세기에 작곡된 클라리넷 협주곡 가운데서도 특히 중요한 것들을 골라 녹음했다. 닐센 말년의 대작 중 하나인 '클라리넷 협주곡'은 극도로 미니멀한 편성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게끔 효과적으로 짜여 있다. 드뷔시의 '랩소디 1번'은 클라리넷의 서정적이고 따뜻한 음향이 작곡가 특유의 섬세한 화성과 맞물려 지극히 몽환적인 분위기를 내는 작품이다. 한편 장 프랑세의 협주곡은 밝고 낙천적이며 유희적인 성격이 주조를 이루는 유쾌한 분위기의 곡이다.

MDG 903 1956-6 [SACD]
수크: 피아노 작품집
카를-안드레아스 콜리(피아노)

체코 음악의 거장 요세프 수크의 서정적인 피아노 작품들
드보르자크의 제자이자 사위였던 수크는 작곡 경력의 초창기에 피아노곡에 주력했으며 이 영역에서 많은 성과를 거뒀다. 초기작인 '분위기'에서 수크는 다양한 형태의 서정성을 탐구하고 있다. '살면서 꿈꿨던 것들'은 그의 피아노 연작 가운데서도 가장 길고 중요한 작품이다. 이 곡은 아이러니에 찬 당김음(1번)으로 시작해 강압적인 힘(7번)을 거쳐 평화로운 명상(10번)으로 마무리된다. '둠카' 역시 같은 장르에 속하는 드보르자크의 작품보다 서정적이고 내향적인 성격을 띤다. 다소 몽환적으로 시작해 점차 열기를 더해가는 '사랑 노래' 역시 매혹적이다.

MDG 903 1963-6 [SACD]
레거: 클라리넷과 피아노를 위한 작품 전곡
로베르트 오버라이크너(클라리넷), 미하엘 쇠흐(피아노)

레거의 매력적인 클라리넷 작품에 대한 최상의 안내자
바흐 이래의 대위법과 바그너의 반음계 진행을 결합해 새로운 길을 모색했던 막스 레거의 음악세계는 아직도 않은 부분이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다. 자비네 마이어의 제자로 이 시대의 젊은 클라리넷 연주자 가운데 단연 돋보이는 로베르트 오버라이크너는 이 미지의 영역 중 하나인 레거의 클라리넷 소나타에 과감히 뛰어들어 풍부하면서도 명징한 연주로 모든 곡에서 서정미와 독특한 재치를 함께 살리는 데 성공하고 있다. 오르간 주자로서도 명성을 날리고 있는 미하엘 쇠흐 역시 명료한 아티큘레이션으로 오버라이크너를 충실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MDG 930 1960-6 [SACD]
스메타나: 나의 조국
트렝크너, 슈파이델 피아노 이중주단

지극히 풍부한 표현력을 보여주는 '나의 조국' 피아노 이중주 버전
독일 출신의 두 여성 피아니스트 에벨린데 트렝크너와 존트라우트 슈파이델은 오래 전부터 위대한 명작의 잘 알려지지 않은 피아노 이중주 편곡을 꾸준히 소개하고 있으며, 이들이 MDG에서 녹음한 말러 및 브루크너 교향곡 음반은 평단의 격찬을 받은 바 있다. 두 사람은 스메타나의 연작 교향시 '나의 조국' 역시 관현악 효과를 풍부하게 암시하면서 더할 나위 없이 멋지게 연주했다. 이 녹음에 사용된 1901년산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 '만프레트 뷔르키'는 제작된 지 100년이 훌쩍 넘었음에도 고상하고 여전히 풍부한 음향을 자랑한다.

Naxos

www.naxos.com

8.572664 ***추천음반***
클레멘티: 피아노 소나타 4집
수잔 알렉산더-막스(포르테피아노)

클레멘티의 음악 여정, 수잔 알렉산더-막스 삶의 마지막 여정
클레멘티 피아노 소나타 시리즈 네 번째 음반에는 도싯과 빈 시기를 대표하는 소나타(op.1-2, op.8-2)를 비롯해 케루비니에게 헌정된 작품 번호 50번의 소나타들 중 두 작품(op.50-2, op.50-3)이 수록되어 있다. 이중 작품번호 50-3번은 베르길리우스의 '디도와 아이네아스'를 바탕으로 작곡되었는데, 스케일과 구조 모두 클레멘티 피아노 소나타의 결정판이라 할 만하다. 클레멘티의 작곡 여정이 집약되어 있는 본 음반은 낙소스 레이블을 통해 클레멘티 피아노 음악의 진수를 보여준 수잔 알렉산더-막스 삶의 마지막 여정이 담겨있기도 하다.

8.555500
슈포어: 교향곡 1 & 5번
슬로바키아 국립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알프레드 발터(지휘)

슈포어 교향곡의 첫 걸음과 백미
오페라, 실내악 등에 걸친 방대한 작품으로 유명한 루이 슈포어는 모두 10개의 교향곡을 남겼다. 교향곡 5번에서 정점에 이른 이후 그의 교향곡은 실험적인 색채가 보다 강하게 나타난다. 슈포어의 이상인 모차르트의 영향이 드러나는 교향곡 1번과 슈만으로부터 극찬을 받은 교향곡 5번이 수록된 본 음반은 슈포어 교향곡의 첫 걸음과 백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명암의 교차를 인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교향곡 5번이 특히 인상적인데, 이는 상실의 슬픔을 겪으며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고뇌하고 있었던 슈포어의 모습이기도 하다.

8.573497
미하일 하이든: 교향곡 1집
파두리체 체코 체임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패트릭 갈루아(지휘)

콜로레도 주교 당시(1780년대) 미하일 하이든이 작곡한 4개의 신포니아
요제프 하이든의 동생인 미하일 하이든의 교향곡을 조명하는 시리즈 첫 번째 음반. 형의 그림자에 가려졌지만, 종교음악 작품들에서 볼 수 있듯 미하일 하이든 역시 뛰어난 작곡가였다. 1780년대에 작곡된 4개의 신포니아(P.15·16·19·20)는 모차르트와의 악연으로 유명한 콜로레도 대주교 시절의 작품으로서 모차르트의 작품과 깊은 연관 관계가 있는 미하일 하이든의 면모를 떠올려 볼 수 있어 흥미롭다. 산뜻한 악단의 연주와 감미로운 하프시코드의 추임새가 특히 인상적으로 다가온다. 모차르트 시절 잘츠부르크 궁정의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다.

8.573577
파벨 쿠흐카: 기타 연주곡집
파벨 쿠흐카(기타)

정확한 음정과 기교로 빚어내는 극적 연주 이상의 묘미
2015년 하인스베르크 국제 기타 콩쿠르에서 우승한 벨라루스 출신 기타리스트 파벨 쿠흐카의 연주가 담겨있는 음반이다. 음반은 갈리나 코렐로바를 비롯해 레오 브라우어, 로드리고, 로베르토 게르하르트, 아두아르도 모랄레스-카소 등 폭넓고 깊이 있는 레퍼토리로 구성되어 있다. 쇼스타코비치의 영향이 드러나는 코렐로바의 '프렐류드와 푸가'는 쿠흐카가 직접 편곡한 작품이기도 하다. 그의 기타는 전체적으로 정연하며 침착한 인상을 준다. 극적 면모는 덜하지만,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정확한 음정과 뛰어난 기교는 그 이상의 묘미를 자아낸다. ***'프렐류드와 푸가'(2 · 3번 트랙), '블루 몬투노'(12번 트랙) 세계 최초 녹음**

8.660336
라벨: 아이와 마법 & 어미 거위
리옹 국립 오케스트라, 레너드 슬래트킨(지휘) 외

지휘자 슬래트킨의 각별한 애정이 담긴 음반
어린이를 주인공으로 하고 있는 '어린이와 마법', '어미거위'는 지휘자 레너드 슬래트킨과 각별한 관계가 있다. 그는 '어린이와 마법'에서는 작품의 명료한 전달력에, 그가 피아노로 자주 연주했던 '어미거위'에서는 작품 속 캐릭터를 다루는 라벨의 천재성에 감탄했다고 한다. 이 때문인지는 몰라도 다른 음반보다 단순하면서도 정밀한 라벨 작품의 면모는 균형 잡힌 앙상블 속에 살아있다. 재즈적인 요소('어린이와 마법')의 탁월한 표현과 더불어 '어미거위' 마지막 트랙에서의 매혹적인 색채감이 남다르게 다가온다. ***오페라 뉴스 2016년 4월 에디터스 초이스**

8.573485 ***추천음반***

리스트:

교향시 (피아노 편곡버전)

세르히오 몬테이로(피아노)

명민한 터치와 은은한 색채감으로 그려낸 리스트의 교향시

교향시의 창시자인 프란츠 리스트는 그의 교향시를 직접 피아노로 편곡하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칼 클라우저, 프리드리히 스피로, 로베르트 프로인트 등 다른 사람이 피아노로 편곡한 자신의 교향시를 개정하기도 했다. 제2회 아르헤리치 피아노 콩쿠르 우승자인 브라질 출신의 피아니스트 세르히오 몬테이로는 본 음반에서 전작인 헨리크 오스왈드 작품에서 보여준 기품 있는 해석으로 리스트의 교향시에 접근하고 있다. 절제된 음향과 은은한 색채감, 명민한 터치가 인상적인 몬테이로의 연주는 작품에 내포된 메시지를 꾸밈없이 보여준다.

8.660337

라벨: 스페인의 시간 & 돈키호테와 둘치네

이자벨 드뤼에(메조 소프라노) 외, 리옹 국립 오케스트라, 레너드 슬래트킨(지휘)

또렷한 색채, 생동감과 위트 넘치는 연주

스페인은 라벨의 음악적 영감 중 하나였다. 본 음반에 담긴 '스페인의 시간'과 '돈키호테와 둘치네' 역시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리옹 국립오케스트라와 함께 라벨의 작품을 녹음하고 있는 레너드 슬래트킨은 작품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스페인의 정취를 또렷한 색채와 생동감 넘치는 연주로 표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작품 속 위트 역시 특징적으로 살려내고 있어 스토리 라인을 훌륭하게 뒷받침한다. 이자벨 드뤼에를 비롯한 성악진의 능청스런 연기 또한 작품의 매력을 느끼기에 부족함 없다.

*** 'Allmusic.com' 2016년 3월 에디터스 초이스**

8.573433

브람스: 현악사중주 1 & 2번

뉴질랜드 현악사중주단

엄격하고 무표정함 속에 흐르는 자유로움과 우수

브람스의 3개뿐인 현악사중주는 교향곡 1번과 마찬가지로 작품마다 시간을 두고 완벽을 기했던 브람스의 모습을 보여준다. 본 음반에는 그 중 전통을 배경으로 고심을 거듭했던 현악사중주 1번과 '자유롭게 그러나 고독하게(Frei aber einsam)'의 동기가 쓰인 현악사중주 2번이 수록되어 있다. 내한공연과 멘델스존 현악 사중주 음반으로 익숙한 뉴질랜드 현악 사중주단은 엄격하고 무표정함 속에 흐르는 자유로움과 우수를 담담하면서도 역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시간의 흐름이 묻어나는 무언의 어울림은 다시 한 번 빛을 발하고 있다.

8.573345

카트와르: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작품 전집

로렌스 카얄레(바이올린), 스테판 르블랭(피아노)

카트와르의 작품 세계를 집약해 놓은 음반

미야코프스키의 스승인 러시아 작곡가 카트와르는 바그너의 열렬한 추종자로 잘 알려져 있다. 그의 작품 세계는 '바그네리안'의 면모 위에서 차이코프스키, 아렌스키, 쇼팽 그리고 드뷔시의 영향을 받으며 발전했다. 니콜라이 매트너에게 헌정된 '바이올린 소나타 1번'과 알렉산더 골덴바이저에게 헌정된 '바이올린 소나타 2번' 등 본 음반에는 작곡가 카트와르의 작품 세계가 집약되어 있다. 카알레와 르블랭은 장대한 흐름을 갖고 굽이치는 서정과 그 위에 드리우는 색채를 거침없이 표현하고 있다.

8.573461

포르투갈 작곡가들의 첼로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작품집

부르노 보랄힌호(첼로), 굴벵키안 오케스트라(연주), 페드로 네베스(지휘)

우아한 서정과 기묘한 인상의 대조 – 19세기–20세기 포르투갈 작곡가들의 첼로 협주곡

19세기 후반에서부터 20세기 후반 사이 포르투갈 음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이는 작곡가들의 첼로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작품이 수록된 음반이다. 쉽지 않지만 뜻 깊은 시도가 담겨 있는 음반이라 할 수 있다. 페드로 고메스의 가필로 완성된 루이스 코스타의 '포에마'와 프레이타스 브랑코의 '세나 리리카'에서 느껴지는 우아한 서정은 로스트로포비치의 위촉으로 완성된 로페스–그라사의 '실내악 첼로협주곡'과 브라가 산토스의 '첼로 협주곡'의 우울하고 기묘한 인상과 대조를 이룬다.

*** '포에마'(1번 트랙), '세나 리리카'(5번 트랙) 세계 최초 녹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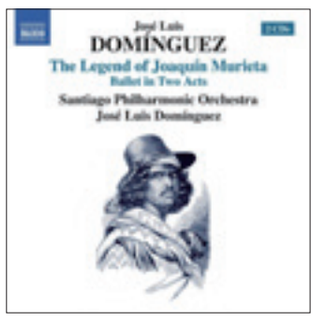
8.573484

마이어: 서곡 모음집

바이에른 클래식 플레이어즈 외, 프란츠 하우크(지휘)

빈 고전주의와 이탈리아 오페라의 결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마이어의 서곡들

바이에른에서 태어나 이탈리아에서 주로 활동한 시몬 마이어는 생전에 오페라 작곡가로서 명성이 높았다. 그는 도니제티의 스승으로서 이탈리아 벨칸토 오페라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길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의 작품은 이탈리아 오페라 전통에 독일 고전주의적인 요소를 결합하고 있는데, 본 음반에 수록된 서곡들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마이어의 서곡들은 단순히 관객의 흥미를 유도하는데서 벗어나 본편의 주요 테마들을 도입해 일종의 '예고편' 역할을 하도록 했다. 모차르트와 베토벤의 정취도 느낄 수 있어 이채롭다.



8.573516–17

도밍게스: 발레 음악 – 호아킨 무리에타의 전설

산티아고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호세 루이스 도밍게스(지휘)

멕시코의 로빈후드, 호아킨 무리에타를 테마로 한 발레 음악

산티아고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상임 지휘자이자 작곡가인 호세 루이스 도밍게즈는 현대 칠레 음악계를 대표할 만한 인물 중 한사람이다. 전 2막으로 구성된 그의 발레 음악 '호아킨 무리에타'는 '멕시코의 로빈 후드(또는 엘도라도의 로빈후드)' 호아킨 무리에타의 전설을 주제로 작곡되었다. 골드러시 시절 캘리포니아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무리에타의 전설은 영화뿐만 아니라 네루다의 작품과 이를 바탕으로 한 오페라의 주제가 되기도 했다. 액션 영화를 연상시키는 박진감 있고 장쾌한 스케일 속에서 무리에타의 활약상은 생생하게 살아있다.

*** 전곡 세계 최초녹음**

8.573496

폴란드 작곡가들의 바이올린 협주곡

표트르 플라프네르(바이올린), 베를린 캄머심포니, 위르겐 브룬즈(지휘)

작품 속에 면면히 흐르는 폴란드의 정취

본 음반에는 폴란드의 유명 작곡가 바체비치와 탄스만, 스피사크와 파누프니크의 바이올린 협주곡이 수록되어 있다. 바체비치의 작품에는 뛰어난 바이올린 연주자이기도 했던 그녀의 면모가, 스피사크의 작품에는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의 작은 이야기가 담겨있다. 틴스만과 파누프니크의 작품은 각각 시게키와 메뉴힌의 위촉으로 탄생했다. 네 사람의 작곡가 중 바체비치 만이 폴란드에 남았지만, 이들의 작품 속에는 모두 폴란드의 정취가 면면히 흐르고 있다. 좀 더 알려져야 할 작품들을 수록하고 있어 새롭다.

8.573531

로시니: 스타바트 마테르(1832년 오리지널 버전) & 조반나 다르코

뷔르템베르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토니노 폴랴니(지휘) 외

새롭게 복원된 로시니의 스타바트 마테르 오리지널 버전

본 음반에는 로시니가 같은 해에 작곡한 두개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하나는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스타바트 마테르'이고, 다른 하나는 잔다르크를 주제로 한 '조반나 다르코(잔다르크)'이다. 두 작품은 각각 안토니노 폴랴니와 마르코 타랄리가 편곡했는데, 이 중 '스타바트 마테르'는 타돌라니가 작곡한 부분의 피아노 악보를 오케스트라로 편곡함으로써 오리지널 버전을 온전히 복원했다는 점에서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 때문인지는 몰라도 실황의 감흥은 더욱 특별하게 다가온다.

(2011년 빌트바트 로시니 페스티벌 실황)

*** 전곡 세계 최초녹음**

8.571373
스퀴어: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품들
올리버 글래드힐(첼로), 이마이 타다시(피아노)

고상하고 우아한 첼로의 매력
스퀴어는 19세기 중반에서 20세기 초반 사이에 활동했던 영국의 첼리스트이자 작곡가였다. 그는 생전에 영국을 대표하는 첼리스트로서 그라모폰과 컬럼비아 레코드에서 약 200여종의 음반을 녹음하기도 했다. 본 음반에는 스퀴어가 드보르작에게 헌정한 '샹소네트(짤막한 샹송, 9번 트랙)'과 더불어 세계 최초로 녹음된 스퀴어의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작품들은 우아하고 고상한 색채로 유명했던 스퀴어의 진면모를 담고 있다. 빛바랜 듯 느껴지는 작품 속 시간을 넘어서는 스퀴어 전문가 올리버 글래드힐의 연주가 인상적이다.
*** '마주르카'(6번 트랙), '곤돌라를 젓는 여인'(7번 트랙), '이별'(로망스, 11번 트랙), '칸초네타'(15번 트랙), '엘레지('17번 트랙) 세계 최초 녹음**

8.573566
스페인과 라틴 아메리카의 방랑, 그리고 열정의 노래
야니프 도르(카운터 테너), 앙상블 나야 & 바로카데, 아미트 티펜브룬(지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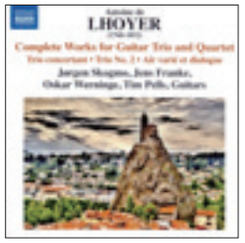
방황하는 세파르디의 노래
세파르디는 스페인 및 포르투갈계 유대인을 뜻한다. 이들은 1492년 레콩키스타 이후 탄압을 받게 되면서 세계 각지로 흩어졌다. 본 음반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부터 프랑스, 이탈리아, 터키, 그리스,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에 이르는 지역의 세파르디 전통 음악을 담고 있는데, 이 중 만돌린과 기타로 편곡된 알베니즈의 '아스투리아스'는 세파르디 방황의 발단이 된 레콩키스타가 시작된 지명이기도 하다. 시대 악기로 연주되는 각 지역의 다양한 색채는 세파르디의 방황과 애환을 노래하는 야니프 도르의 호소력 짙은 목소리에 힘을 더한다.

8.573532
로스 해리스: 교향곡 5번 & 바이올린 협주곡
그린골츠(바이올린), 오클랜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슈티어 & 개리 워커(지휘) 외

전쟁을 감내해야 했던 소녀의 기억이 담긴 작품
헝가리 출신의 작가 파니 팔라스티는 어린 시절 나치와 소비에트 사회주의 치하에서 헝가리의 참상을 직접 경험했다. 뉴질랜드의 작곡가 로스 해리스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부다페스트 공방전의 기억이 담긴 팔라스티의 시 3편을 주제로 교향곡 5번을 작곡했다. 로스 패리스는 전체 7악장 중 짝수 악장에서 메조소프라노를 등장시키고 있는데, 이는 적막가운데 울리는 팔라스티의 목소리(3편의 시)를 대변하고 있다. 같이 수록된 해리스의 바이올린 협주곡은 폴란드 아방가르드 색채를 내뿜고 있다. 일리야 그린골츠의 경쾌한 연주가 인상적이다.
*** 전곡 세계 최초녹음**

8.573553
오베르: 서곡 1집
칸 오케스트라, 볼프강 되르너(지휘)

우아하고 세련된 파리의 정취가 담긴 오베르의 서곡들
볼프강 되르너와 칸 오케스트라는 빈의 정취를 머금은 전작, '요제프 라너'의 작품에 이어 오베르의 서곡을 음반에 담았다. 프랑스 오페라 코미크의 절정을 구가한 오베르의 작품에는 세련되고 고상한 파리의 정취가 배어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작품은 대중성과 단순명료함까지 갖추고 있는데, 이는 당대 최고의 인기를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이기도 했다. 로시니와 주페의 서곡만큼이나 인기 있었던 오베르의 서곡에는 이 같은 요소들이 모두 망라되어 있다. 악단의 박진감 넘치는 연주는 오베르 작품의 매력을 한층 배가시키고 있다.



8.573575
로예르: 기타 삼중주 & 사중주 전집
외르겐 스코모 & 옌스 프랑케 & 오스카 베르닝게 & 팀 펠스(기타)

이중주에 이어 로예르 기타 음악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음반
베토벤과 쇼팽의 시대를 모두 경험한 프랑스의 작곡가 로예르는 그가 살았던 시대만큼 이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 유럽에서 가장 뛰어난 기타 연주자이자 군인이기도 했다. 음반에 수록된 그의 삼중주와 사중주는 각각 12년의 시간차를 두고 작곡되었는데, 스타일은 모두 후기 모차르트 작품과 유사하다. 두 작품의 정교함은 이 중주를 능가하고 있는데, 이 같은 정교함 속에서 로예르 특유의 따뜻한 분위기와 새콤달콤한 멜로디는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이 중주가 수록된 전작(8.570146)에 이어 기타 마니아라면 필청 할 만한 음반이다.

8.573584
아일랜드 & 모런: 합창음악
캐리스 싱어즈, 데이비드 오언 노리스(피아노), 조지 패리스(지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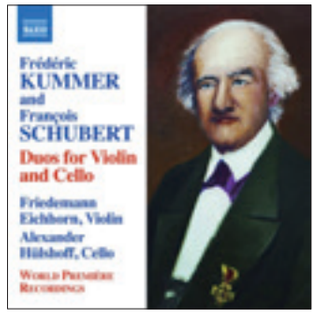
격조와 낭만을 갖춘 아일랜드와 모런의 파트송
존 아일랜드는 실내악과 피아노 소품 외에 '파트송'도 다수 작곡하였다. 여기에는 그가 홀리 트리니티 교회와 세인트 루크 교회에서 수년간 오르간 연주자로 재직하며 쌓은 합창 음악에 대한 지식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영국과 아일랜드의 민요에 일생의 관심을 기울인 모런의 작품은 앨리자베스(1세) 시기의 마드리갈 요소, 르네상스 시대 춤곡의 요소를 더해 내면의 우수를 표현하고 있다. 두 사람이 동일한 가사(토마스 내시의 시)에 곡을 붙인 '봄 아름다운 봄(5 & 18번 트랙)'은 비슷한 듯 다른 두 사람의 색채를 보여준다.

8.559787
폴 볼스: 피아노 작품 2집
인벤시아 피아노 듀오

세계 각지에서 얻은 영감을 간결함과 재즈적 색채로 표현한 폴 볼스 만의 매력
미국의 작가이자 작곡가인 폴 볼스의 피아노 작품을 담은 2번째 음반이자 시리즈 마지막 음반이다. 폴 볼스는 번스타인을 비롯한 당대의 음악가들과 영감을 주고받았을 정도로 뛰어난 역량을 갖추고 있었다. 그의 음악적 유산은 작곡가 자신의 관리 소홀로 사후 잊혀 졌다가 이레네 헤르만에 의해 복원되면서 전기를 맞이했다. 본 음반에는 폴 볼스가 세계 각지를 여행하면서 얻은 영감이 투영된 작품들이 주로 수록되어 있는데, 특히 재즈에 대한 각별한 열정을 엿볼 수 있어 흥미롭다. 여기에 더해 그만의 간결한 매력은 거쉰의 피아노 소품을 연상시킨다.
*** '네 개의 피아노 소품'(4–7번 트랙), '타마나르'(18번 트랙), '블루마운틴 발라드'(포핸즈 피아노 버전, 카스파로프 편곡), '세 개의 피아노 듀오'(26–28번 트랙, 아서 골드 & 로버트 피츠달 편곡) 세계 최초녹음**

8.559782
코릴리아노 & 토르케 & 코플랜드: 관현악작품집
내셔널 오케스트럴 인스티튜트 필하모닉, 데이비드 앨런 밀러(지휘)

선명하고 입체적인 음향, 파국과 광활함을 표현하는 관악기 & 타악기의 색채
본 음반은 내셔널 오케스트럴 인스티튜트 필하모닉의 낙소스 데뷔 음반이다. 음반은 1880-90년대 타계한 작곡가의 지인을 추모하기 위해 작곡된 존 코릴리아노의 교향곡 1번과 서정적인 색채가 인상적인 토르케의 '브라이트 블루 뮤직', 코플랜드의 발레 모음곡 '애팔래치아의 봄'으로 구성되어있다. 앨런 밀러가 지휘하는 악단은 미국 작곡가들의 매력을 한껏 느끼기에 흡족한 연주를 보여주고 있다. 입체적인 음향과 더불어 특히, 파국과 추모, 드넓은 황야의 광활함을 표현하는 관악기와 타악기의 선율이 강렬한 여운을 남긴다.



8.573000
쿠머 & 슈베르트: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이중주 작품들
프리드만 아이히혼(바이올린), 알렉산더 휠스호프(첼로)

현란한 기교 속에서 빛나는 첼로와 바이올린의 호흡
프레데리크 쿠머와 프랑수아 슈베르트는 모두 19세기 드레스덴 선제후 궁정에서 각각 첼로와바이올린 수석으로 활동했던 연주자였다. 쿠머는 드레스덴 음악원에서 첼로를 가르쳤으며, 쇼팽의 친구이기도 했던 슈베르트는 프란츠 슈베르트와 이름만 같을 뿐이었지만 그 역시 작곡가로 활동하기도 했다. 본 음반은 쿠머와 슈베르트가 당시 유행하던 오페라를 주제로 작곡한 첼로와 바이올린 이중주가 수록되어 있다. 대중적인 선율 속의 현란한 기교는 뛰어난 연주자였던 두 사람의 역량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 각별하게 다가온다.
*** 전곡 세계 최초 녹음**

Orlando Records

www.orlando-records.com

or0022

바흐: 이탈리아 협주곡/ 모차르트: 소나타 8번/ 프랑크: 목가 등

니콜라 조릭(아코디언)

아코디언으로 만나는 진지한 클래식 작품들의 우리시대 감성

빈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아코디언 연주자 니콜라 조릭은 "아코디언의 시인"이라고 불리며 독보적인 존재로 인정받고 있다. 이 앨범에서는 바흐부터 프랑크까지 폭넓은 시대를 아우르는 진지한 클래식 작품을 연주했다. 바흐의 〈이탈리아 협주곡〉은 다이나믹 조절과 섬세한 표현으로 솔로와 투티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스카를라티의 세 개의 소나타들과 모차르트의 〈소나타 8번〉은 건반과는 다른 새로운 우리시대의 감성을 전달한다. 프랑크의 〈목가〉는 본래 오르간 혹은 하모니움을 위한 곡으로, 아코디언은 매우 훌륭한 대안이다.

Paladino Music

www.paladino.at

pmr 0076

브람스: 피아노 삼중주 1번, 브릿지: 환상곡 1번

주형기(피아노), 라팔 잠브쉬츠키-페인(바이올린), 토마스 캐롤(첼로)

세계적인 코믹 피아니스트 주형기의 고전 음악 연주자로서의 진지한 연주

한국계 영국인 피아니스트 주형기는 '이구스데만 & 주'라는 클래식 코믹 듀오로 잘 알려져 있지만, 10세 때에 예후디 메뉴힌 학교에 입학하고 바비칸 센터에서 메뉴힌의 지휘로 데뷔했을 만큼 뛰어난 음악가로 인정을 받았다. 그는 다양한 형태의 공연을 시도하고 방송과 영화 등에도 모습을 비쳤는데, 메뉴힌 학교 동창들과 함께한 이 음반에서 주형기의 진지한 연주를 들을 수 있다. 이들의 연주는 공간을 타고 울리는 풍부한 음향 속에 소리의 달콤함을 음미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며, 그 가운데 긴장을 놓치지 않는 극적 흐름이 탄탄하게 이끌어간다.

pmr 0080

프락세디스가 선사하는 사랑의 노래

프락세디스 후그-뤼티(하프), 프락세디스 주니비에브 후그(피아노)

유명 오페라 서곡과 클래식 명곡으로 음악의 기쁨을 선사하는 모녀 듀오

스위스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듀오 프락세디스'는 하프와 피아노라는 악기 조합뿐만 아니라 모녀지간의 이중주라는 점에서 매우 독특하다. 그래서 그들의 호흡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완벽한 앙상블로 높은 명성을 얻고 있다. 이 음반은 로시니의 〈빌헬름 텔〉 서곡과 니콜라이의 〈윈저의 유쾌한 아낙네들〉 서곡, 그리고 베버의 〈오베론〉 서곡 등 유명한 오페라 서곡의 편곡을 수록했다. 또한 생상스의 〈삼손과 데릴라〉 중 '사제들의 춤과 축제', 레하르의 〈즐거운 미망인〉 중 '춤의 요정 왈츠' 등의 클래식 명곡으로 음악의 기쁨을 선사한다.

Philharmonia Baroque Production

www.philharmonia.org

Philharmonia Baroque Production은

지난 2011년에 출범한 Philharmonia Baroque Orchestra의 레이블입니다. 1981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창단된 Philharmonia Baroque Orchestra는 시대악기를 사용하여 바로크와 고전, 초기 낭만음악을 연주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새롭게 작곡되는 음악도 연주하여 폭넓은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2004년 올해의 앙상블'(무지컬 아메리카)로 선정되는 등 큰 명성을 얻고 있으며, 하이든의 교향곡 88번과 101번 '시계', 104번 '런던'을 수록한 음반은 그래미 상의 베스트 오케스트라 연주 부문에 후보로 오르는 등, 정상급의 연주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PBP-01

베를리오즈: 여름 밤/ 헨델: 아리아

로레인 헌트 리버슨(메조소프라노), 필하모니아 바로크 오케스트라, 니콜라스 맥기건(지휘)

팔방미인과 같은 리버슨이 들려주는 전혀 다른 성격의 두 작곡가의 걸작

리버슨은 '2001년 올해의 성악가'(뮤지컬 아메리카), '2003년 뛰어난 예술가'(런던 가디언)로 선정되는 등 큰 명성을 얻고 있으며, 세계를 누비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베를리오즈의 〈여름 밤〉은 그녀의 대표 리퍼토리로, 이 음반에서 그녀의 감동적인 감성적 표현과 뛰어난 실력뿐만 아니라, 그동안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이 작품의 섬세한 매력도 발견하게 한다. 그녀는 바로크부터 현대까지 오페라의 히로인으로서도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 특별히 화려한 헨델의 아리아를 선택하여 팔방미인과 같은 그녀의 또 다른 매력을 발산한다.

PBP-02

하이든: 교향곡 88번, 101번 '시계', 104번 '런던'

필하모니아 바로크 오케스트라, 니콜라스 맥기건(지휘)

하이든의 후기 음악에 혼합되어있는 다양한 묘미를 훌륭히 표현한 연주

하이든의 삶은 바로크 말기부터 낭만 초기까지 걸쳐 있어 그의 음악은 다양한 양식이 혼합되어있으며, 흥미로운 새로운 시도들로 당대의 청중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이 음반은 하이든의 음악이 성숙단계에 있는 후기 교향곡들로, 갈랑 스타일의 음악적 효과와 고전적인 탄탄한 구성, 그리고 낭만을 예견하는 극적 표현이 어우러져 있다. 특히 〈시계 교향곡〉은 시계추와 같이 움직이는 단순한 리듬 오스티나토로 매우 유명하다. PBO는 시대악기를 사용하여 당대 연주를 재현하는 단체로, 하이든의 음악의 이러한 묘미를 훌륭히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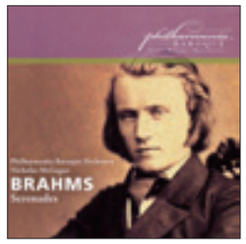
PBP-03

비발디: 바이올린 협주곡 '사계', '총아', '연인' 등

엘리자베스 블루멘스톡(바이올린), 필하모니아 바로크 오케스트라, 니콜라스 맥기건(지휘)

사계의 묘사적 특징을 부각시켜 뛰어난 극적 표현을 들려주는 호연

비발디의 '사계'는 '화상과 창의의 대결'이라는 제목으로 1725년에 출판된 12곡의 바이올린 협주곡 중 첫 네 곡이다. 특히 각 악장마다 붙어있는 짧은 글이 제시하고 있는 여러 소리들을 음악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많은 흥미를 끌고 있다. 시대악기 연주단체인 필하모니아 바로크 오케스트라의 악장이자 1660년에 제작된 과르네리를 연주하는 엘리자베스 블루멘스톡은 이러한 묘사적 특징을 더욱 부각시켜 뛰어난 극적 표현력을 보여준다. 또한 리듬의 움직임을 강조하는 오케스트라의 해석도 매우 흥미롭다. 〈총아〉와 〈연인〉 등도 수록되어있다.



PBP-05

브람스: 세레나데 1번, 2번

필하모니아 바로크 오케스트라, 니콜라스 맥기건(지휘)

베토벤에 필적하는 교향곡을 꿈꾸었던 20대의 젊은 브람스의 시도

'세레나데'는 낭만시대에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었던 기악 앙상블 장르 중 하나였다. 브람스는 20대 때인 1850년대에 두 곡의 세레나데를 작곡했는데, 이들은 현악 위주였던 당시 세레나데와는 달리 전체 관현악을 사용하는 새로운 시도를 선보였다. 사실 이것은 그가 교향곡을 쓰기 위한 연습이었다. 그의 교향곡에서 들을 수 있는 브람스 특유의 긴 호흡을 가진 아름다운 선율과 티 없이 맑은 목관 음색이 이 곡에서도 나타난다. 가볍고 즐거운 분위기가 지배하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묵직한 무게감은 〈교향곡 2번〉을 연상케 하는 모습도 있다.

PBP-06

베토벤: 교향곡 4번, 7번

필하모니아 바로크 오케스트라, 니콜라스 맥기건(지휘)

베토벤의 교향곡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꾸기에 충분한 시대악기 연주

베토벤의 아홉 개의 교향곡들은 각각의 특징과 시도들이 있다. 〈교향곡 4번〉은 밝은 분위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애써 진지한 표정을 지으려는 모습이 슈베르트를 예견하는 듯하며, 〈교향곡 7번〉은 교향곡에 무곡 리듬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큰 흥미를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특징들은 오늘날의 무거운 악기보다는 당시의 가벼운 악기로 연주할 때 보다 효과적으로 드러나는데, 필하모니아 바로크 오케스트라의 연주는 이를 잘 보여준다. 가볍게 움직이면서 무리 없이 돌진하는 이들의 연주는 베토벤의 교향곡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꾸기에 충분하다.

PBP-08

하이든: 교향곡 57, 67, 68번

필하모니아 바로크 오케스트라, 니콜라스 맥기건(지휘)

에스테르하지 궁정에서 연주하는 하이든의 모습이 연상되는 즐거운 연주

40대 중엽인 1770년대에 작곡된 하이든의 교향곡 세 곡을 수록했다. 당시 하이든은 에스테르하지 궁정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었던 때로, 교향곡의 규모를 확대하면서 갈랑 스타일의 화려하고 밝은 분위기의 음악을 만들었다. 여기에는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리듬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니콜라스 맥기건이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바로크 오케스트라는 시대악기 연주단체로서 이러한 특징을 효과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이들의 연주에서 에스테르하지 궁정에서 연주하는 하이든과 즐겁게 듣고 있을 청중들의 모습이 그려진다.

Philharmonia•rec

www.philharmonia-records.com

PHR0105

브루크너: 교향곡 8번(1887년 버전)

필하모니아 취리히, 파비오 루이지(지휘)

오리지널 버전의 가치를 유감없이 보여주는 음반!

본 음반을 처음 접했을 때 몇 가지 의문이 생긴다. 하나는 오리지널 버전의 선택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오페라 극장에 소속 되어 있는 악단의 역량에 관한 것이다. 작품에 대한 파비오 루이지의 강력한 확신은 이 같은 의문을 불식시킨다. 이미 바그너의 작품에서 보여준 파비오 루이지와 악단의 저력은 작품의 서사적 스케일에서 나아가 오리지널 버전의 진면모를 드러내기에 이른다. 번잡함을 느낄 수 없는 전개와 너른 음향, 균형 잡힌 금관의 색채 모두 오리지널 버전 역시 온전한 브루크너의 역작임을 실감케 한다. 감상을 적극 추천한다.

RCO Live

www.concertgebouworkest.nl

RCO16002

프로코피에프: 교향곡 5번

로얄 콘세르트허바우 오케스트라, 마리스 얀손스(지휘)

감상자도 하나의 멜로디로 참여하고 있는 느낌을 주는 환상적인 연주

프로코피에프의 〈교향곡 5번〉은 그의 걸작 중의 걸작으로 손꼽힌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때에 작곡된 곡으로, 전쟁에 대한 이미지가 상징적으로 부여되어있다. 프로코피에프는 이 곡에 대해 "자유롭고 행복한 인류에게, 인류의 강인한 힘과 순수하고 고결한 정신에게 바치는 찬가"라고 말했다. 말기 낭만의 두터운 사운드와는 달리, 대위적으로 진행되는 여러 멜로디들이 투명한 음악 공간에 펼쳐지며 다양한 색채로 채색되어있다. 얀손스의 연주는 이 작품을 듣고 있는 감상자도 하나의 멜로디로 참여하고 있다는 환상적인 느낌을 준다.

RCO 16004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2번

로열 콘세르트허바우, 마리스 얀손스(지휘)

라흐마니노프를 차이콥스키의 정통 후계자로 대하는 얀손스의 시선

2010년 1월 28~29 및 31일 암스테르담 콘세르트허바우 실황. 얀손스가 라흐마니노프의 이 유명한 교향곡을 다른 어느 지휘자와도 다르게 대하고 있다는 사실은 1악장 첫머리부터 명백하게 알 수 있다. 그는 주선율 위주의 선 굵은 진행 대신 모든 성부를 균등한 비중으로 세심하게 다루면서 지나친 감상을 지향하고 대신 작곡가의 대선배인 차이콥스키의 발레곡에서 들었음직한 세련된 음향을 부여했다. 처음에는 귀에 낯설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곧 많은 이들에게 익숙할 이 교향곡에 얼마나 많은 선율이 숨어 있었는지 듣고 놀라게 될 것이다.

Rondeau

www.rondeau.de

ROP6112

듀크 엘링턴: 성가 콘서트

하노버 청소년 보컬앙상블, 빅밴드 페테 후페, 외른 마르쿠센-불페(음악감독)

1965년과 1968년에 작곡된 종교적인 작품들을 모은 독특한 앨범

전설적인 재즈 아티스트 듀크 엘링턴의 음악은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요즘 시대에 수많은 음악가들에 의해 자주 연주되고 있다. 이 음반은 엘링턴의 음악 중에서도 1965년과 1968년에 작곡된 종교적인 내용을 담은 작품들을 모은 독특한 앨범이다. 재즈 빅밴드가 기악을 맡고, 성악가와 전통적인 합창단이 노래하는 콜라보 앙상블 형태로 구성되었다. 하지만 음악은 본연의 재지한 스타일로 연주되며, 빅밴드 페테 후페는 화려한 콜재즈의 세계를 유감없이 보여준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춤추는 다윗〉, 〈주기도문〉, 〈목자〉, 〈자유〉 등이 수록되어있다.

ROP6120

여섯 개의 순수의 노래

슈투트가르트 콜레기움 이우베눔 소년합창단, 시리우스 사중주단, 미하엘 출로(지휘)

오늘날의 감성을 담은 우리시대의 음악으로 전하는 소년들의 메시지

슈투트가르트 콜레기움 이우베눔 소년합창단은 소년합창단 중에서 가장 도전적인 단체 중 하나일 것이다. 생존해있는 작곡가의 작품을 연주하여 오늘날의 감성을 담은 새로운 음악을 자주 소개하고 있으며, 이를 훌륭하게 표현한 합창단의 실력에 감탄하게 된다. 특히 이 음반은 시리우스 현악사중주단과의 프로젝트로, 제1바이올리니스트인 그레고르 휘브너가 작곡한 〈순수의 노래〉는 오늘날 음악의 넓은 스펙트럼을 조망하는 흥미로운 작품이다. 이외에도 합창음악의 거장인 존 루터와 빌리 조엘 '피아노맨' 등 오늘날의 아름다운 음악들로 가득하다.

ROP6107

바흐, 헨델, 텔레만: 리코더 소나타/ 하세: 첼발로 소나타

엘리자베트 슈반다(리코더), 베른바르트 로어(첼발로)

따뜻하면서도 고풍스러운 음색으로 감성을 자극하는 연주

리코디스트인 엘리자베트 슈반다는 헤어포르트 교회음악대학 교수이자 하노버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상급 연주자이며, 첼발리스트인 베른바르트 로어는 하노버 음대 교수로서 여러 음반상과 음악상을 받은 고음악 전문가이다. 독일 하이바로크 시대의 거장들인 바흐와 헨델, 텔레만의 리코더 소나타에서 슈반다는 따뜻하면서도 고풍스러운 음색으로 감성을 자극하는 연주를 들려주며, 로어는 화려하고 풍부한 사운드를 들려주면서도 슈반다의 리코더를 충실히 받쳐준다. 이외에도 당대 최고의 오페라 거장이었던 하세의 첼발로 소나타도 수록했다.

ROP6114

페르골레시: 슬픈 성모/ 라트게버: 작은 미사/ 북스테후데: 애가

도르트문트 합창 아카데미 어린이합창단, 요스트 잘름(지휘)

독창과 이중창에 합창을 더하여 극적 효과를 배가시킨 새로운 시도

페르골레시는 오페라 부파 작곡가로서 음악사에 기록되어있지만, 바로크 시대의 이탈리아 성가로서 최고의 걸작 중 하나인 〈슬픈 성모〉를 남겼다. 이 곡은 고성과 저성, 그리고 앙상블을 위한 곡으로, 이 음반에서는 보이소프라노와 보이알토, 어린이 합창단이 등장하여 독창과 이중창에 합창을 더하여 음악의 극적 효과를 배가시켰다. 함께 수록된 요한 발렌틴 라트게버는 뷔르츠부르크에서 활동하다가 베네딕트회 수도사가 되어 밤베르크 부근에서 수도원에서 활동한 음악가였다. 그의 〈작은 미사〉는 짧은 길이지만 감동만큼은 더없이 깊다.

SIBARECORDS Siba

www.siba.fi

SRCD–1019

윔패리 얌패리!

무타베이야리트

진흙 놀이, 물놀이와 관련된 재미있는 어린이 노래

'무타베이야리트'는 시벨리우스 음악원에서 만든 어린이 음악 전문 앙상블로,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는 여덟 명의 멤버로 구성되어있다. 이들은 3~8세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며, 쉽고 명랑하며 포크송 스타일의 음악을 만들고 연주한다. 타이틀 '윔패리 얌패리!'는 '양동이 주위에'라는 뜻으로, 알리 얘르벨래, 미아 레코, 에벨리나 사이코넨, 베이코 무이쿠 등 멤버들이 직접 만든 진흙 놀이와 물놀이 등과 관련된 재미있는 노래를 모았다. 단체를 소개하는 첫 곡 〈무타베이야리〉를 비롯하여 가볍고 흥겨운 리듬과 유쾌한 멜로디로 기분을 밝게 한다.

SIMAX Simax

www.simax.no

PSC1342

OCTOPHONIA – 북유럽의 더블베이스 음악

단 스튀페(더블베이스), 잉그리드 안스네스(피아노)

우리시대 현대인들의 도시적인 감수성을 자극하는 우리시대 거장의 연주

더블베이스의 전설 게리 카의 제자이자 노르웨이 음악원 교수인 단 스튀페는 유럽에서 가장 도전적인 연주자 중 한 사람이다. 특히 그는 가장 전방위적인 현대음악을 연주하면서도 감성적인 표현력을 십분 발휘하여, 우리시대 현대인들의 도시적인 감수성을 자극한다. 스튀페의 이러한 모습은 이 음반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스웨덴 작곡가 리드홀름의 〈환상곡〉과 핀란드 작곡가 살리넨의 〈비가〉, 그리고 노르웨이 작곡가 노르드헤임의 〈파르티타〉와 〈세 개의 문장〉 등 북유럽 작곡가들의 작품은 더블베이스만의 가슴 깊은 울림을 훌륭히 전달한다.

Sinfonieorchester Basel

www.sinfonieorchesterbasel.ch

SOB11

스트라빈스키: 페트루슈카 (1911년 관현악 버전, 피아노 연탄곡 버전)

바젤 심포니 오케스트라, 데니스 러셀 데이비스(지휘, 피아노), 나메카와 마키(피아노)

현대적인 음향과 리듬을 돋보이도록 하여 작품의 특징을 최대한 부각 시킨 명연

스트라빈스키는 〈봄의 제전〉 이전에 〈불새〉와 〈페트루슈카〉로 이미 세간에 화제가 되어있었다. 이 세 곡은 모두 러시아의 전래 이야기를 소재로 하는데, 그 중에서도 〈페트루슈카〉는 러시아 전통 인형극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가장 아기자기하고 리드미컬하다. 그래서 타악기적인 효과가 많이 보이는데, 이것은 〈봄의 제전〉의 밑바탕이 되었다. 지휘자 데니스 루셀 데이비스는 현대음악의 거장으로, 〈페트루슈카〉의 현대적인 음향과 리듬을 돋보이도록 하여 작품의 특징을 최대한 부각시켰다. 또한 피아노 연탄곡 버전도 함께 수록했다.

Solo Musica

www.solo-musica.de

SM 236
바흐: 인벤션과 신포니아
토마스 라고싱(하프시코드)

조성을 기준으로 두 곡씩 쌍을 이루도록 재배치하여 만든 새로운 세트
유럽 정상의 하프시코드 연주자 중 한 사람인 토마스 라고싱이 바흐의 인벤션과 신포니아를 연주했다. 인벤션은 두 성부로 이루어진 단순한 대위법으로 작곡된 데 반해, 신포니아는 세 성부로 보다 복잡한 대위법으로 작곡되었다. 그런데 이 음반은 각각 열다섯 곡의 인벤션과 신포니아를 조성을 기준으로 재배치하여 마치 〈평균율 피아노곡집〉처럼 두 곡씩 쌍을 이루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세트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배치는 바흐의 제자인 베른하르트 크리스티안 카이저의 사본에서 힌트를 얻은 것으로, 조성 진행은 〈클라비어 뷔흘라인〉을 참고했다.

SM 238
리스트: '순례의 해' 중 스포살리치오, 일 펜세로소 등 / 드뷔시: 전주곡 1권
크리스티안 에르니(피아노)

19세기 중엽부터 20세기 초까지 프랑스 음악의 핵심
피아니스트 크리스티안 에르니는 스위스에서 주목받는 신예 피아니스트이며, 취리히 챔버 실어즈를 창단하고 이끌 정도로 합창 지휘에도 일가견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향기, 색채 그리고 그들의 어울리는 소리'라는 독특한 제목의 앨범에서 리스트와 드뷔시의 음악을 녹음했다. 대상을 주관적으로 묘사하고 음악화한 두 작곡가의 작품은 19세기 중엽부터 20세기 초까지 프랑스 음악의 핵심을 보여준다. 에르니의 탁월한 프로그램과 연주는 이 두 작곡가의 곡이 '프랑스'라는 가상의 한 인물이 작곡한 듯 하나로 융화시키며 새로운 감각을 눈뜨게 한다.

SM 229
마르토: 샤콘, 여덟 개의 가곡, 파르티타 등
한스 칼라푸스(바이올린), 유미 세키야(피아노), 율리 카우프만(소프라노) 등

브람스와 말러의 영향이 느껴지는 감동적인 낭만음악의 깊은 표현
앙리 마르토는 20세기 초의 프랑스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작곡가로, 브람스, 브루흐, 구노, 마스네, 칼 플레시 등으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 중에 간첩 협의로 수차례 투옥된 후 재기에 실패하여 세인의 관심에서 잊혀지고 말았다. 이 음반은 마르토의 〈샤콘〉 등 바이올린음악과 함께 〈여덟 개의 가곡〉, 그리고 〈플루트와 비올라를 위한 파르티타〉를 수록했다. 그의 바이올린 작품은 20세기 초의 바이올리니스트–작곡가들의 소품들과 맥락을 같이 하면서도 브람스와 말러의 영향이 느껴지는 깊은 표현들이 감동을 준다.

Sono Luminus

www.sonoluminus.com

DSL–92201
마래: 라 폴리아/ 히나스테라: 팜페아나 2번/ 에네스쿠: 첼로 소나타 1번 등
로라 멧캘프(첼로), 마테이 바르가(피아노)

"굉장한 첼로 레가토" –*워싱턴 포스트*
"감각적이고 선율적인 터치" –*블로그 크리틱스 매거진*
이 음반은 뉴욕 출신의 첼리시트 로라 멧캘프에 쏟아지는 흥미로운 찬사를 부족함 없이 증명한다. '첫날'이라는 감성적인 제목은 그녀가 첼리스트로 활동하기 시작했을 때의 추억을 담은 것으로, 그런 만큼 첼로의 선적인 아름다움과 풍부한 음향, 그리고 감각적인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작품들을 수록했다. 17세기의 마랭 마레의 〈라 폴리아〉부터 남미의 정서를 가득 담은 히나스테라와 브라가토, 20세기 초 파리의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풀렝크와 에네스쿠, 오늘날 뉴욕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버핸스와 비스콘티 등 그녀와의 행복한 첫 만남이다.

DSL–92203
보리의 달 (Barley Moon)
에어하트

민요와 예술음악이 하나였던 그 시절을 향하여
민요와 예술음악은 오늘날 거의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여겨진다. 이런 사고방식은 항상 정당했을까? 악단 '에어하트'는 이에 대한 의문에서 탄생했고, 그들이 내린 결론은 '아니다'이다. 존 다울랜드와 윌리엄 버드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민요와 예술음악은 동일한 토양에서 비롯한 것이며 다만 작곡가들이 이를 좀 더 다듬어 내놓았을 뿐이라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코무즈(3현짜리 류트)나 콜라시오네(류트의 일종) 같은 희귀한 악기들의 반주로 노래하는 21세기의 음유시인 브라이언 케이는 이들의 주장이 옳음을 보여준다. 블루레이 오디오 포맷 지원.

SLE–70004
그림자, 메아리, 기억 – 포레, 라흐마니노프, 리게티, 말러 외
노스웨스턴 대학교 첼로 앙상블, 한스 외르겐 옌센(지휘)

기량과 진취성, 서정성을 함께 보여주는 젊은 음악가들의 멋진 데뷔 앨범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및 시카고 지역의 재능있는 고등학생들이 모여 결성한 노스웨스턴 대학교 첼로 앙상블은 2013년에 말러의 '아다지에토'를 녹음한 것을 계기로 이 데뷔 앨범을 만들게 되었다. 1983년생인 재커리 와즈워스의 '세 개의 래커 그림'을 필두로 포레의 '꿈꾼 뒤에', 라흐마니노프의 '보칼리제', 말러 등 비교적 전통적인 레퍼토리와 반 데어 슬로트의 '그림자, 메아리, 기억', 토말라의 '간주곡' 등 최근에 창작된 곡들이 골고루 수록된 이 음반은 이 악단의 뛰어난 기량과 진취성, 결코 바래지 않는 서정성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

Steinway & Sons

www.steinway.com

30060
IMAGO
모이라 로 비앙코(피아노)

옛것을 현대적으로, 현대적인 것을 영원한 것으로 만드는 비앙코의 매력
이탈리아 출신의 피아니스트 모이라 로 비앙코는 클래식 교육을 받았지만 영화음악을 공부하기도 했으며, 2013년 보스턴 음악상에서 올해의 재즈 아티스트로 후보에 올랐다. 그리고 현재 대중음악의 명문인 버클리 음대 교수이다. 이 음반은 비앙코의 독특한 이력을 반영하고 있다. 루이 쿠프랭과 사티, 패르트 등 클래식 작품과 함께 커트 코베인(록그룹 너바나의 보컬), 스테파니 저마노타(레이디 가가) 등 뛰어난 대중음악 작곡가의 작품을 함께 수록했다. 그리고 이 둘을 잇는 자신의 작품으로 경계를 뛰어넘는 오늘날 음악의 패러다임을 보여준다.

30057
프로코피에프: 신포니아 콘체르탄테, 첼로 소나타
쥘 베일리(첼로), 노스캐롤라이나 심포니, 그랜트 르웰린(지휘), 나타샤 파렘스키(피아노)

모질었던 프로코피에프의 삶을 노래한 쥘 베일리의 폭넓은 표현력
오늘날 가장 중요한 남성 첼리스트 중 한 사람인 쥘 베일리가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첼로 협주곡 중 하나인 프로코피에프의 〈신포니아 콘체르탄테〉를 연주했다. 이 곡은 프로코피에프가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인 61세 때의 곡으로서 그의 가장 완숙한 작품에 속하며, 화려한 독주를 충분히 부각시키면서 교향곡적인 규모와 구성을 갖추고 있다. 쥘 베일리는 어떤 때는 서정적인 아름다움으로, 어떤 때는 서사적인 메시지로 들려주며 모질었던 프로코피에프의 삶을 노래한다. 〈첼로 소나타〉는 58세의 작품으로, 실내악다운 내면적인 무게감이 남다르다.

Swedish Society

www.swedishsociety.se

스웨디시 소사이어티는

1958년 스웨덴에서 탄생된 첫 클래식 전문 음반 레이블입니다. 이 레이블은 스웨덴과 북유럽의 작곡가들의 작품들을 소개하는 데에 오랫동안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스웨덴 작곡가 후고 알펜은 세계적으로 수많은 애호가를 얻었으며, 스웨덴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요한 헬미히 로만의 존재를 알리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웨덴에서 활동하고 있는 세계 정상급 연주자들의 고전음악 연주를 발매하고 있습니다. 전설적인 테너 유시 비욜링과 바이올리니스트 닐스-에리크 스파르프와 아돌프 프레드리크 바흐 합창단, 웁살라 챔버 오케스트라 등 스웨덴 정상의 연주자들의 음악을 스웨디시 소사이어티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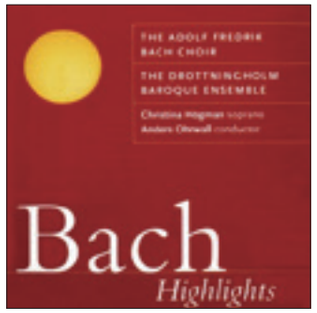
SCD 1077

바흐: 파르티타 3번, 환상곡과 푸가 c단조, 반음계적 환상곡과 푸가, 여섯 개의 전주곡

크리스티나 스반베리(피아노)

바흐의 건반에 대한 탁월한 감각을 즐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선곡

이 음반은 파르티타와 전주곡, 환상곡 등을 수록하여 바흐의 건반에 대한 탁월한 감각을 즐기기에 부족함이 없다. 파르티타는 본래 변주곡의 하나였으나 바흐 시대에는 모음곡 형식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파르티타 3번, BWV827〉은 일반적인 모음곡과는 달리 전주곡이나 서곡, 심포니가 아닌 환상곡으로 시작하며, 부를레스카와 스케르초가 들어있는 매우 특이한 구성을 가진 작품이다. 〈여섯 개의 작은 전주곡, BWV933-938〉은 바흐의 감수성이 스며있으며, 두 곡의 '환상곡과 푸가'는 바흐의 거장다운 측면이 거대한 스케일로 발휘되어있다.



SCD 1091

바흐 – 하이라이트

아돌프 프레드릭 바흐 합창단, 크리스티나 회그만(소프라노), 안데르스 외르발(지휘)

한 장의 음반에 담아낸 바흐의 대표적인 합창곡들

스톡홀름 중앙에 위치한 아돌프 프레드리크 교회는 데카르트가 프랑스로 이장되기 전에 묻혔던 교회로, 17~18세기에 건축된 유서 깊은 교회이다. 스웨덴을 대표하는 바로크 전문 합창단인 '아돌프 프레드릭 바흐 합창단'이 바로 이 교회의 소속이다. 이 합창단은 이 음반에 유명한 〈예수는 나의 기쁨〉, 〈하늘의 왕이여 환영합니다〉 등 칸타타의 아리아와 합창곡들을 비롯하여 두 개의 모테트 등 바흐의 주요 작품들을 수록했다. 또한 〈관현악 모음곡 3번〉 중 '가보트'를 관현악과 함께 합창이 함께 부르는 흥미로운 연주도 들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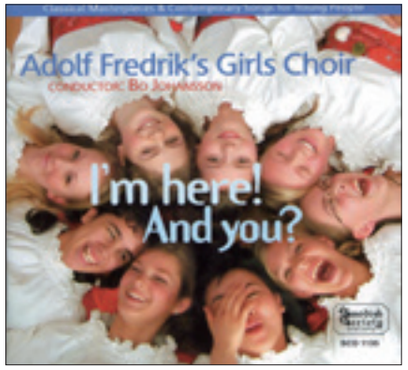
SCD 1100

유시 비욜링이 부르는 명가곡: 바다를 향하여

유시 비욜링(테너), 왕립 관현악단, 닐스 그레빌리우스(지휘)

크리스마스 캐롤 〈거룩한 밤〉의 환상적인 노래를 비롯한 전성기 시절의 녹음

아날로그 시절 전설적인 위대한 테너를 꼽는다면 유시 비욜링은 전설 중의 전설이다. '철성'(鐵聲)이라고 불렸던 그의 목소리는 강렬한 에너지와 짙은 감수성으로 전 세계의 모든 음악 팬들을 사로잡았다. 이 음반은 전성기를 구가하던 1957~59년 녹음으로, 그는 이 음반에서 모든 곡을 그의 모국어인 스웨덴어로 불렀다. 후고 알펜, 빌헬름 스텐하마르 등 스웨덴을 대표하는 작곡가들을 비롯하여 베토벤, 시벨리우스, 아당의 노래도 수록되었다. 특히 아당의 유명한 크리스마스 캐롤 〈거룩한 밤〉을 부르는 비욜링의 스웨덴어 버전은 환상적이다.



SCD 1135

아돌프 프레드릭 소녀 합창단이 노래하는 민요와 유명 합창곡들

아돌프 프레드릭 소녀합창단, 보 요한슨(지휘)

스웨덴의 대표 소녀합창단이 부르는 민요와 유명 합창곡

스웨덴이 자랑하는 아돌프 프레드릭 소녀합창단의 해맑은 음성으로 감상하는 북구의 민요와 애청 합창곡들이 사랑스럽다. 스웨덴과 핀란드 각 지방의 독특한 색채의 민요들과 함께 프랑크의 생명의 양식, 드뷔시의 봄을 노래함, 색다른 미감으로 편곡된 바흐/구노의 아베마리아 등이 귀를 즐겁게 한다. 그리고 너무나 친숙한 프랑스 민요 자크 페레의 영어 버전도 함께 들을 수 있다.

SCD 1139

스산한 한 겨울에

아돌프 프레드릭 소년합창단, 카를-망누스 프레드릭손(바리톤), 크리스토퍼 홀레르손(지휘)

스웨덴의 대표 소년합창단이 부르는 크리스마스 캐롤과 성탄음악

스톡홀름 중앙에 위치한 아돌프 프레드리크 교회는 데카르트가 프랑스로 이장되기 전에 묻혔던 교회로, 17~18세기에 건축된 유서 깊은 교회이다. 이 교회에는 스웨덴을 대표하는 소년 합창단인 '아돌프 프레드릭 소년합창단'이 있다. 이 합창단은 이 음반에서 여러 크리스마스 음악을 녹음했다. 유명한 크리스마스 캐롤인 〈크리스마스 장식〉과 〈징글 벨〉, 그루버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아당의 〈거룩한 밤〉을 비롯하여, 시벨리우스의 〈크리스마스 노래〉, 존 러터의 〈나는 세 척의 배를 보았네〉, 브리튼의 〈캐롤의 의식〉 등 뛰어난 성탄음악들을 소개한다.

SCD 1158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 전곡

닐스-에리크 스파르프(바이올린), 웁살라 챔버 오케스트라

고전 시대의 연주관습에 따르는 해석과 거장다운 안정감

닐스-에리크 스파르프는 스톡홀름 궁정 관현악단과 스톡홀름 왕립 관현악단의 악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웁살라 챔버 오케스트라의 악장이자 웁살라 챔버 솔로이스츠의 수석 바이올리니스트이다. 또한 드로트닝홀름 바로크 앙상블의 리더이며, 스톡홀름 신포니에타의 악장을 맡고 있다. 그리고 왕립음악원에서 가르치고 있으며, 1709년에 제작된 스트라디바리우스를 연주한다. 스웨덴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유럽 정상급 연주자인 그는 모차르트의 협주곡에서 고전 시대의 연주관습에 따르는 품위 있는 해석과 거장다운 안정감을 보여준다.

Toccata Classics

www.toccataclassics.com

TOCC 0228
하세: 솔로 칸타타 전곡 1집
호프–무지치
후기 바로크 최고의 오페라 작곡가가 들려주는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
요한 아돌프 하세는 독일 출신으로서 오페라의 본고장 이탈리아에서 최고의 오페라 작곡가로 큰 명성을 떨쳤다. 그는 오페라뿐만 아니라 사적인 음악회를 위해 칸타타를 다수 작곡했는데, 생전에는 마리아 테레자 여왕도 부를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하지만, 그의 죽음과 함께 잊히고 말았다. 오늘날 흩어져 있는 악보들을 모아 녹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음반은 그 중 실내용 솔로 소나타 여섯 곡을 수록했다. 아리아–레치타티보–아리아의 간단한 형식을 갖고 있지만,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에 오페라적인 극적 긴장감과 표현력을 갖춘 수작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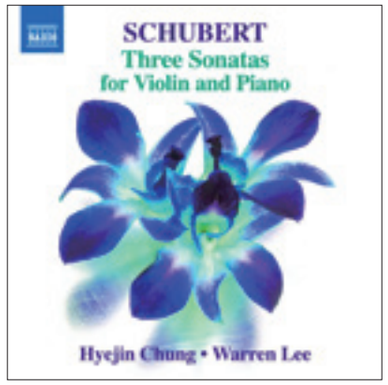
TOCC 0346
데이비드 캔 필드: 3곡의 '애프터' 협주곡
데이비드 캔 필드(작곡), 하이라페트 아라케리안(알토 · 소프라노 색소폰), 레이첼 페트릭(바이올린), 이언 홉(지휘), 신포니아 바르소비아
위대한 작곡가를 모티프로 이 시대의 '명작'을 빚은 캔필드의 명곡 음반
라인홀트 글리에르(1875~1956)의 서사시적인 웅장함과 서정성, 차이콥스키의 로맨틱, 거슈윈의 재즈 스타일을 미국 작곡가 데이비드 캔필드(b.1950)를 통하여 느낄 수 있는 음반이다. 대중적인 곡부터 컨템퍼러리 음악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자랑하는 캔필드가 쓴 세 곡의 '애프터' 협주곡은 세 작곡가의 스타일로 만든 알토색소폰 · 소프라노색소폰 · 바이올린 협주곡이다. 글리에르와 차이콥스키 모티프를 연주하는 하이라페트 아라케리안, 거슈윈 모티프를 연주하는 레이첼 페트릭은 캔필드의 의도는 물론 세 작곡가의 뿌리와 특징을 훤히 이해하고 있는 듯 환상적인 연주를 선보인다.

TOCC 0350
요한 게오르크 릭클: 오보에 4중주, 카사치오네, 트리오
라요스 렌체슈(오보에), 나탈리 치(바이올린), 폴 페스티(비올라), 안스가 슈나이더(첼로), 디르크 알트만(클라리넷), 볼프강 위플러(호른), 리보르 시마(바순)
렌체슈의 오보에에 담긴 투명한 소리
오스트리아의 작곡가 요한 게오르크 릭클(1769~1843)은 오르가니스트이자 헝가리 페치성당 카펠마이스터였다. 이 앨범에는 릭클의 오보에 4중주 Op.26 No.1~3과 오보에 · 클라리넷 · 호른 · 바순을 위한 카사치오네(야외에서 저녁에 연주하는 기악모음곡), 클라리넷 · 호른 · 바순을 위한 트리오가 수록되었다. 목관특유의 숨소리를 잘 잡은 녹음, 모든 곡에 촉촉한 생명력을 주는 오보이스트 라요스 렌체슈의 숨결, 그가 직접 쓴 곡목해설이 음반을 빛낸다. 릭클의 음악은 경쾌하고 활기차며, 모차르트의 관악 협주곡과 중주를 떠오르게 한다.

TOCC 0351
바르톡: 바이올린 소나타 2번, 무반주 소나타, 랩소디 1번(비올라 편곡)
비도르 나기(비올라), 피터 나기(피아노), 디베르티멘토 부다페스트
바르톡의 바이올린 곡을 편곡 · 연주한 헝가리 비올리스트의 매력
바르톡의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 · 독주곡 · 협주곡은 20세기 바이올린 역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이 음반에서 헝가리 태생의 비올리스트 비도르 나기는 바르톡의 바이올린 소나타 2번 Sz.76, 바이올린 무반주 소나타 Sz.117,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랩소디 1번 Sz.86을 비올라 곡으로 편곡 · 연주하였다. 비도르 나기의 최고조에 이른 원숙한 연주는 소나타 2번에서 피터 나기의 피아노로 더욱더 빛을 발한다. 비도르 나기가 비올라와 현악합주를 위한 곡으로 편곡하고, 직접 디베르티멘토 부다페스트를 지휘하며 협연하는 랩소디 1번은 이 음반이 선사하는 또 하나의 즐거움으로 다가온다.

핫 이슈!
해질녘 연보랏빛 라일락을 연상시키는 연주

11회 '영 뮤지션 국제 콩쿠르' 시니어 부문 1위를 비롯해 국내외 콩쿠르에서 입상한 경력을 갖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정혜진은 홍콩과 러시아에서 유학한 후 연주자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 곡은 친분 있는 이들과의 콘서트에서 연주하기 위해 작곡된 세 개의 바이올린 소나타로 슈베르트 19세 때의 작품이다. 이들 작품에 풍부하게 드러나는 자유롭고 따뜻하며 순박한 슈베르트의 감성에서 후기 작품에 드리운 '그림자'는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 해질녘의 연보랏빛 라일락을 연상시키는 작품의 이미지는 연주에 그대로 묻어나고 있다.



Naxos 8.573579 [CD]

[프로필]
바이올리니스트 정혜진은 예원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예고 재학 중 홍콩으로 건너가 Hong Kong Academy for Performing Arts에서 Advanced Certificate 과정을 마치고 러시아 Tchaikovsky Moscow State Concervatory 에서 박사과정을 마쳤다.

일찍이 국내에서 음악저널, 음악춘추, 조선일보, 세종콩쿠르 등에서 입상, 서울예고 재학 중 실기상을 받았으며 유학 중 Togliatti International Competition of Young Musicians Russia 1위, International Young Performers Competition Finland 대상, Music and Earth International Competition for Instrumentalists and composers 대상, Ippolitov-Ivanov 국립대학 Young talents of Russia competition 1위 등을 수상하였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뉴서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시작으로 St. Petersburg Camerata Orchestra와 Hermitage Museum theater에서 협연, Vienna Mozart Orchestra와 Vienna Konzerthaus에서 협연, Hong Kong Academy Symphony Orchestra, Obninsk Chamber Orchestra, Moscow Chamber Orchestra of Paul Solbodkin Centre, Symphonic Orchestra of Russia State Music Tele-Radio-Center, Hong Kong Ars Nova Orchestra, Togliatti Institute Orchestra 등과 협연하였으며 KBS 클래식 오디세이, ARTE TV Recital 출연, Greece Athens Radio Hall Joint Recital, Young Talented Musicians Festival in Tchaikovsky's Hometown 연주, 모스크바 한국 대사관에서 한국 최초 우주인 배출 기념 연주회, Tchaikovsky Moscow State Conservatory 마야스코프스키, 말리, 라흐마니노프, 볼쇼이 홀 등 많은 연주활동을 해오고 있다.

조영미, Takako Nishizaki, S. Kravchenko에게 사사하였으며 현재 홍콩에 정착한 후, Takako Nishizaki Violin Studio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실내악 연주와 교육에 힘쓰고 있다.

[수록곡]
Schubert : Three Sonatas for Violin and Piano
Sonata in D major, Op. 137, No. 1, D.384
1. Allegro molto / 2. Andante / 3. Allegro vivace
Sonata in A minor, Op. 137, No. 2, D.385
4. Allegro moderato / 5. Andante / 6.Menuetto: Allegro / 7. Allegro
Sonata in G minor, Op. 137, No. 3, D.408
8. Allegro giusto / 9. Andante / 10. Menuetto: Allegro vivace / 11. Allegro moderato

Accentus

www.accentus.com

Accentus ACC 20354 [DVD]
Accentus ACC 10354 [Blu-ray]

말러: 교향곡 5번, 소년의 이상한 뿔피리

마티아스 괴르네/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안드리스 넬손스

스위스에서 펼쳐진 환상적인 말러의 밤

2015년 8월 19일과 20일, 안드리스 넬손스는 세 번째로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를 지휘했는데, 이 오케스트라로서는 재 창설자이자 음악적 지도자였던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세상을 떠난 뒤 맞는 두 번째 여름이었다. 전반부에서는 바리톤 마티아스 괴르네가 출연하여 소년의 이상한 뿔피리 가운데에서 7곡을 발췌하여 불렀다. 그의 따뜻한 온도감과 강도 높은 표현력, 어둡지만 섬세한 음색이 빛을 발하며 KKL 콘서트 홀의 분위기를 완전히 압도해버리는 카리스마를 발산한다. 한편 대단히 독특한 말러 사운드를 자랑하는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진가는 후반부에 연주된 말러 교향곡 5번에서 드러난다. 2004년 아바도의 바톤 하에 동 작품을 연주한 바 있는 만큼 완벽한 연주를 들려준다. 특히 넬손스의 장송행진곡은 마치 아바도를 기리는 듯한 느낌마저 전달해 준다. 화질과 음질 모두 완벽에 가깝다.

Accentus ACC 20363 [DVD]
Accentus ACC 10363 [Blu-ray]

알반 베르크: 보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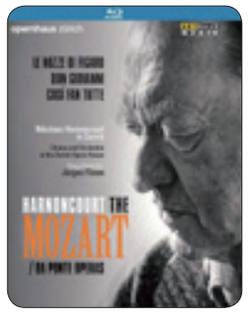
크리스티안 게르하허(보체크)/ 군 브리트 바르크민(마리)/ 파비오 루이지(지휘)/ 필하모니아 취리히/ 안드레아스 호모키(연출)/ 미쉘 레빈(무대미술, 의상)

20세기 베르크의 파격에, 21세기적 감각을 더한 프로덕션

스위스 취리히 오페라의 2015년 9월 프로덕션으로 음악적으로나 시각적으로나 신선하고 파격이 서려 있다. 베르크 특유의 진행과 해체적인 미학을 살려내는 루이지 파비오 지휘와 바리톤 크리스티안 게르하허의 보체크 역과 소프라노 군 브리트 바르크민의 마리 역의 열연이 빛나는 무대. 난해하다고만 느껴지던 20세기 오페라가 미장센의 대가 안드레아스 호모키의 연출로 새로운 재미를 어떻게 입는지 궁금한 이들에게 적극 권하고 싶은 영상물이다. 한국어, 독일어, 영어, 일본어, 프랑스 자막을 갖췄다.

Arthaus

www.arthaus-musik.com



Arthaus 109236 [3Blu-ray]

모차르트 오페라 다 폰테 3부작

취리히 오페라 하우스/ 니콜라우스 아르농쿠르(지휘)

취리히에서 남긴 아르농쿠르의 모차르트 3대 오페라

2016년 안타깝게도 영면에 들어간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지휘자 니콜라우스 아르농쿠르. 합주와 오케스트라뿐만 아니라 오페라에서도 탁월한 원전에 대한 서지학적 이해 및 시대적 발성에 대한 지식, 옛 연주법에 대한 투철한 고증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낸 바 있다. 특히 몬테베르디 및 모차르트 오페라에서 그가 이룬 성취는 진실로 위대한 업적이라고 높이 존경받고 있다. 이러한 그가 스위스 취리히 오페라 하우스에서 남긴 세 편의 모차르트 오페라가 블루레이 박스로 묶여 발매되었다. 1996년 '피가로의 결혼', 2001년 '돈 조반니', 2000년 '코지 판 투테'로서, 그가 빈 필하모닉과 남긴 다른 모차르트 오페라 영상물보다 훨씬 더 생동감 넘치고 긴박감 넘치는 것이 특징이다. 세 프로덕션 모두 위르겐 플림의 작품으로서 시각/영상적으로 통일성과 일관성을 준다. 명품 오페라 프로덕션이란 이런 것이다.

HD 1080i/ PCM Stereo, DD 5.1/ 16:9/ **자막:** GB, DE, FR, ES, IT, JP
피가로의 결혼: 197MINS, **돈 조반니:** 187MINS+24MINS(Bonus),
코지 판 투테: 214MINS+22MINS(Bonus)

Arthaus 109231 [3DVD]
Arthaus 109232 [3Blu-ray]

Best Wishes From JOSE CARRERAS

호세 카레라스/ 몽세라 카바예 외

병마를 이기고 돌아온 호세 카레라스의 모든 것

백혈병을 극복하고 다시 무대로 돌아온 호세 카레라스가 가진 세 개의 실황 영상물이 하나의 박스로 묶여 발매되었다. 가장 먼저 그가 무대로 돌아온 1988년 빈 슈타츠오퍼에서 가진 컴백 리사이틀이 눈에 띈다. 마스네, 푸치니, 리스트, 투리나, 토스티의 가곡들이 수록되어 있고 앙코르로 카르딜로와 라라, 팔보, 칠레아, 그리그의 노래가 이어진다. 빈 청중들이 건강하게 돌아온 카레라스에게 환호하는 모습도 이 영상물의 백미. 다른 하나는 1989년 모스크바 볼쇼이 오페라 하우스 실황. 필생의 파트너 몽세라 카바예와의 듀오 콘서트로서 벨리니, 비발디, 베르디, 푸치니, 토스티, 오브라도르 등등의 작곡가들의 작품을 부른다. 마지막으로 1990년 샌 프란시스코에서 공연한 미사 크리올라 공연 실황도 수록되어 있다.

1080i HD(Upscale)/ PCM Stereo/ 4:3/ 274MINS

Arthaus 109075 **[DVD]**
Arthaus 109081 **[Blu-ray]**

THE SEARCHERS OF THE GRAIL

플라시도 도밍고(파르지팔)/ 비올레타 우르마나(쿤드리)/ 마티 살미넨(구르네만츠) 외/ 키로프 오케스트라/ 발레리 게르기예프(지휘)

성배를 향한 음악적 탐험

파르지팔(플라시도 도밍고), 아돌프 히틀러, 인디아나 존스(해리슨 포드). 이 세 사람은 예수가 마지막 만찬에서 사용하고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그의 피를 담았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성배를 찾고자 했던 인물들이다. 영국의 영화감독으로서 "위대하고 타협하지 않는 위대한 영상의 시인"으로 일컬어지는 토미 팔머가 연출, 제작한 이 '성배를 찾는 사람들'이라는 다큐멘터리 영상물은 음악적, 정치적, 영화적으로 성배를 찾아나선 사람들을 주인공을 삼아 신화의 이야기를 창조적으로 재해석한 것이다. 특히 도밍고와 우르마나, 살미넨 등이 게르기예프가 지휘하는 키로프 오케스트라(현 마린스키)의 반주로 촬영한 바그너 오페라 영상물을 비롯하여 나치 독일의 역사적 기록들과 영화 장면들이 포함되어 있어 전설의 현대적인 해석을 흥미롭게 재구성해 나아간다. 한글자막을 통해 감독의 의향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도 하다.

HD 1080i/ PCM Stereo/ 4:3/ 자막: GB, DE, FR, ES, KO/ 88MINS

Arthaus 109239 **[Blu-ray]**

유명 바로크 오페라 아리아와 장면들 – 울게 하소서

바로크 오페라들 가운데 유명한 아리아들과 장면들을 블루레이로 만나다

Arthaus가 소장하고 있는 영상들을 모아 각 나라별 오페라 유명 아리아들과 장면들 시리즈를 제작한 일련의 앨범들 가운데 바로크 오페라편. 란달 베어가 지휘하는 샌 프란시스코 오페라의 비발디 '오를란도 푸리오소' 가운데 오를란도역의 마릴린 혼이 부르는 오를란도의 아리아 "성난 구름이다", 해리 빅켓이 지휘하는 뮌션 프린츠레겐텐테아터의 핸델 '리날도' 가운데 리날도역의 데이빗 다니엘스가 부르는 "사랑하는 신부여"와 "배은망덕한 마음아", "바람이여, 회오리바람이여"를 비롯하여, 이본느 케니가 부르는 아리아들로서 리차드 히콕스가 오스트레일리아 오페라를 지휘한 핸델 '줄리오 체사레' 가운데 클레오파트라의 아리아 "내 운명을 슬퍼하리라"와 니콜라스 콕이 지휘한 잉글리쉬 내셔널 오페라의 퍼셀 '페어리 퀸' 가운데 티타니아의 아리아 "울게 하소서", 앤 머레이가 부르는 아리아들로서 찰스 매케라스가 지휘하는 잉글리쉬 내셔널 오페라의 핸델 '세르세' 가운데 세르세의 아리아 "당신을 퇴짜놓은 남자를 흠모한다면"과 이보르 볼턴이 지휘하는 핸델의 '아리오단테' 가운데 아리오단테의 아리아 "기쁨을 받아들이세요"가 수록되어 있다.

1080i HD(Upscale)/ PCM Stereo/ 4:3, 16:9/ 자막: DE, FR/ 70MINS

Arthaus 109241 **[Blu-ray]**

유명 프랑스 오페라 아리아와 장면들 – 사랑을 주소서

프랑스 오페라들 가운데 유명한 아리아들과 장면들을 블루레이로 만나다

Arthaus가 소장하고 있는 영상들을 모아 각 나라별 오페라 유명 아리아들과 장면들 시리즈를 제작한 일련의 앨범들 가운데 프랑스편. 마렉 민코프스키가 지휘하는 파리 샤틀레 극장 프로덕션의 오펜바흐 '아름다운 엘렌' 가운데 펠리시티 로트가 부르는 엘렌의 아리아 "이런 아름답고 꿈같은 연인을 보내준 것은 하늘이다"와 존 엘리엇 가드너가 지휘하는 파리 샤틀레 극장 프로덕션의 글룩 '알체스터' 가운데 안네 소피 폰 오터가 노래하는 알체스테의 아리아 "확고한 신이시여"와 폴 그루브스가 노래하는 아드메투스의 아리아들, 역시 존 엘리엇 가드너가 지휘하는 파리 샤틀레 극장 프로덕션의 글룩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가운데 마그달레나 코체나가 노래하는 오르페오의 아리아 "나의 사랑"과 "에우리디체를 잃었다", 미셸 플라송이 지휘하는 툴루즈 캐피톨 내셔널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토마스 햄프슨이 노래하는 토마 '햄릿' 가운데 덴마크 왕자의 아리아와 나탈리 드세이가 노래하는 오펠리아의 아리아, 호세 반 담이 노래하는 클로디우스의 아리아 등등이 수록되어 있다.

1080i HD(Upscale)/ PCM Stereo/ 4:3, 16:9/ 자막: GB, DE, FR/ 130MINS

Arthaus 109243 **[Blu-ray]**

유명 이탈리아 오페라 아리아와 장면들 – 정결한 여신

이탈리아 오페라들 가운데 유명한 아리아들과 장면들을 블루레이로 만나다

Arthaus가 소장하고 있는 영상들을 모아 각 나라별 오페라 유명 아리아들과 장면들 시리즈를 제작한 일련의 앨범들 가운데 이탈리아편. 리차드 보닌지가 지휘하는 오스트레일리아 오페라 프로덕션으로서 베르디 '일 트로바토레' 가운데 레오노라의 아리아 "사랑은 장밋빛 날개를 타고", 도니제티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가운데 루치아의 광란의 장면, 벨리니의 노르마 가운데 노르마의 아리아 '정결한 여신'을 조안 서덜랜드가 부른다. 그리고 리카르도 샤이/ 빈 필하모니커의 롯시니 '라 체레넨톨라' 가운데 "괴로움과 눈물속에서 태어나"를 앤 머레이가, 에베리노 피도/리옹 나쇼날 오페라의 도니제티 '사랑의 묘약' 가운데 "아름다운 그녀의 모습"과 "받아, 너는 이제 자유야"를 로베르토 알라냐와 안젤라 게오르규가 부른다. 또한 아담 피세르/ 빈 슈타츠오퍼가 연주하는 폰키엘리의 '라 죠콘다' 가운데 죠콘다의 아리아 "자살이라뇨!"와 알베르토 에레데/ 오스트레일리아 오페라가 연주하는 푸치티 '토스카' 가운데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를 에바 마톤이 노래한다. 한편 프란츠 벨저-뫼스트/ 취리히 오페라의 베르디' 맥베스' 가운데 주인공들의 아리아를 파올레타 마로쿠와 토마스 햄프슨이 노래한다.

1080i HD(Upscale)/ PCM Stereo/ 4:3, 16:9/ 자막: GB, DE, FR/ 140분

Arthaus 109245 [Blu-ray]

유명 독일 아리아와 장면들 – 온 마음으로 참회를

독일 오페라들 가운데 유명한 아리아들과 장면들을 블루레이로 만나다

ArtHaus가 소장하고 있는 영상들을 모아 각 나라별 오페라 유명 아리아들과 장면들 시리즈를 제작한 일련의 앨범들 가운데 독일편.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빈 필을 지휘한 R.슈트라우스의 '엘렉트라' 가운데 브리기트 파스벤더가 부르는 클리템네스트라의 아리아 "나는 악몽을 꾼다". 크리스토프 폰 도흐나니가 로열 오페라 하우스를 지휘한 R.슈트라우스의 '살로메' 가운데 브린 터펠이 부르는 요하나안의 아리아 "죄악의 잔이 가득 찬 자는 어디 있는가". 도날드 러니클스가 지휘한 '카프리치오' 가운데 키리 테 카나와가 부르는 백작부인의 아리아 "내일 아침 11시에". 주빈 메타와 바이에른 슈타츠오퍼의 바그너 '탄호이저' 가운데 르네 콜로가 부르는 탄호이저의 아리아 "마음 속의 열정!" 및 발트라우트 마이어가 부르는 비너스의 아리아 "나의 사랑이여, 저 동굴을 보세요!". 마렉 민코프스키와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오케스트라의 모차르트 '후궁으로부터의 도주' 가운데 프란츠 하브하타가 부르는 오스민의 아리아와 크리스친 샤퍼가 부르는 콘스탄체의 아리아, 폴 그루브스가 부르는 벨몬테의 아리아가 수록되어 있다.

1080i HD(Upscale)/ PCM Stereo/ 4:3, 16:9/ **자막:** GB, DE, FR/ 80MINS

Arthaus 109247 [Blu-ray]

유명 러시아 아리아와 장면들 – 어디로, 어디로

러시아 오페라들 가운데 유명한 아리아들과 장면들을 블루레이로 만나다

ArtHaus가 소장하고 있는 영상들을 모아 각 나라별 오페라 유명 아리아들과 장면들 시리즈를 제작한 일련의 앨범들 가운데 러시아편. 갈리나 고르챠코바가 부르는 프로코피에프의 '불의 천사' 가운데 레나타의 고백장면과 글린카의 '루슬란과 류드밀라' 가운데 고리스라바의 아리아 "이렇게 달콤하고 매혹적인 목소리라니"를 비롯해서, 안나 네트렙코가 부르는 류드밀라의 아리아 "오 나의 슬픈 운명이여". 블라디미르 오그노벤코가 부르는 루슬란의 아리아 "아마도 어느날". 라리사 디아드코바가 부르는 라트미르의 아리아 "아니, 나는 잠들 수 없네". 콘스탄틴 플루즈니코프가 부르는 핀의 아리아 "나의 아들아" 등이 발레리 게르기예프와 마린스키 오페라의 연주로 수록되어 있다. 한편 겐나디 로제스트벤스키가 글라인드본 페스티벌 오페라를 지휘한 차이콥스키 '예프게니 오네긴" 가운데 오를라가 부르는 타치아나의 아리아와 블라디미르 글루샤크가 부르는 오네긴의 아리아들, 미카엘 쾨닝이 부르는 렌스키의 아리아 "어디로, 어디로" 등등이 수록되어 있다. 한편 게르기예프 지휘의 프로코피에프 '전쟁과 평화' 가운데 안드레이 왕자와 마샬 쿠투조프 장군의 아리아도 수록되어 있다.

1080i HD(Upscale)/ PCM Stereo/ 4:3, 16:9/ **자막:** GB, DE, FR/ 120MINS

Arthaus 109255 [Blu-ray]

모차르트: 어린이를 위한 마술피리

취리히 오페라 하우스 오케스트라/ 토마스 마르텔(지휘)

4개국 언어로 감상하는 어린이를 위한 오페라 마술피리

스위스의 취리히 오페라 하우스가 선보인 어린이를 위한 모차르트의 '마술피리' 프로덕션을 수록하고 있는 블루레이. 어린이를 위한 오페라로서 음악을 편곡하고 내용을 각색, 적절하게 축약하여 60여분의 짧은 시간 안에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편성한 프로덕션이다. 음악은 알렉산더 크람페가, 무대/연출은 울리히 페터가 맡은 이 취리히 오페라 하우스의 어린이를 위한 '마술피리'는 이전의 어린이 버전과는 전혀 다른 컨셉을 채택했는데, 그것은 바로 세계의 다양한 언어로 공연, 보다 많은 국가의 어린이들에게 '마술피리'의 연극적인 재미와 음악적인 가치를 알리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이 블루레이에는 똑같은 내용의 오페라가 네 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각기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로 제작된 것이다. 각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는 가수가 파파게노를 맡아 해설과 대화의 진행을 이끌고 가수들은 원어인 독일어로 노래를 부르는 형식이다. 독일어와 영어 버전은 취리히의 오페라 하우스에서, 일어와 프랑스어 버전은 메지에흐의 연극극장인 테아트르 드 조라에서 촬영했는데, 여기 고용된 더블 캐스팅들은 오리지널 무대 못지 않은 노래와 연기를 펼쳐보인다.

1080i HD/ PCM Stereo/ 16:9/ **자막:** GB, DE, FR, JP/ 60MINS × 4(언어별)

Arthaus 109175 [DVD]

하인리히 쉬츠 – 독일 음악의 아버지

독일 음악의 아버지 하인리히 쉬츠에 대한 다큐멘터리 필름

하인리히 쉬츠(Heinrich Schütz, 1585~1672)는 독일 음악의 기초를 쌓은 음악가의 한 사람으로 독일 근대 음악의 아버지이자 독일 음악가로서 최초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작곡가이다. 중부 독일의 귀족 가계에 태어났으며, 미성을 인정받고 카셀의 궁정교회 성가대에 들어가 음악 교육을 받았다. 대학에서 법률을 배운 뒤 베네치아에서 가브라엘리(Giovanni Gabrieli, 1557?~1612)를 사사. 1617년 이후는 드레스덴의 궁정악단 지휘자가 되었다. 1627년에 또다시 이탈리아에 유학했으나, 1630년 전쟁의 여파 때문에 각지를 전전하고, 1645년에 드레스덴에 돌아가 전쟁으로 황폐해진 궁정 악단의 부흥에 힘썼다. 총 40여년동안 드레스덴을 중심으로 독일 각지의 관현악단의 부흥에 노력했지만 드레스덴의 선제후는 음악의 부흥에 관심이 적어서 실의 속에 은퇴하여 여생을 작곡에 힘쓰다가 세상을 떠났다. 외르크 코벨 감독이 다큐멘터리로 제작한 이 영상물은 독일과 베네치아, 코펜하겐의 여러 음악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쉬츠의 삶을 조명했고 쉬츠의 전작품을 녹음한 지휘자 한스-크리스토프 라데만이 출연하여 음악적 고증을 담당한다.

PCM Stereo/ 16:9/ **영상언어:** DE, GB, **자막:** GB, DE/ 66MINS

Arthaus 109252 **[Blu-ray]**

롤란드 커크 – 다큐멘터리 영화
Rahsaan Roland Kirk
– The Case Of The Three Sided Dream

시각장애인 관악기 연주자 라산 롤란드 커크의 삶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

흑인, 그리고 시각 장애인이라는 어려움을 딛고 미국 재즈의 전설이된 라산 롤란드 커크는 1935년 태어나 2살이 되던 해 시력을 잃게 되었다. 그 후 9살 무렵 처음으로 리드 악기를 연주하기 시작하여 음악활동을 넓혀나가 10대 중반에는 몇 개의 악기를 동시에 연주하는 기행으로 점점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였다. 단순한 기행 뿐만이 아니라 그의 음악적 면모도 점점 성장하여 몇 장의 음반을 발표하며 유럽 투어와 함께 '재즈와 인간 운동' 이라는 단체를 이끌며 미국 재즈계에 흑인 연주자의 채용을 촉진하는 운동을 하기도 하였다. 첫 번째 중풍 후 불굴의 의지로 한 손으로만 연주하는 기법을 익혀 연주활동을 계속하였으나 두 번째 중풍으로 숨을 거두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음악 뿐 아니라 다방면으로 더욱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롤란드 커크의 삶과 음악을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다.

* Best Documentary Sound track Cologne 2015
* Official Selection Full Frame documentary film festival 2014
* World Premiere SXSW Film Festival 2014

C Major 735908 **[DVD]**
C Major 736004 **[Blu-ray]**

레너드 번스타인 – Larger Than Life

레너드 번스타인의 삶과 음악에 대한 만화경

레너드 번스타인에 대한 대단히 흥미로운 다큐멘터리 필름. 이 영상을 통해 어떻게 번스타인이 세계적인 지휘자가 되었고 왜 지난 세기를 대표하는 거장인가를 확연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자식들인 제이미, 알렉산더, 니나 등등의 인터뷰와 스테판 온드하임, 피터 존스, 크리스토프 에센바흐, 노먼 레브레히트 등등 음악계 인사들의 인터뷰가 번스타인의 영상과 함께 펼쳐진다. 특히 지휘자 뿐만 아니라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교육자이자 진행가, 여기에 대중의 흥미를 잡아채는 탁월한 스타적인 기질까지, 번스타인의 음악적, 그리고 음악외적 재능까지를 모두 일별하는 놀라운 다큐멘터리다. 게오르그 뷔블로트 감독의 편집에 의해 번스타인의 음악과 삶이 재조명되는 이 영상물에는 구스타보 두다멜과 켄트 나가노, 마린 알솝과 같은 현대 지휘자들의 보너스 인터뷰까지 수록되어 있다.

1080i HD/ 16:9/ PCM Stereo/ **자막:** EN, GE, FR, KO, JA/ 76MINS + 24MINS(Bonus)

C Major Entertainment

www.cmajor-entertainment.com

C Major 737608 **[DVD]**
C Major 737704 **[Blu-ray]**

은막의 마에스트로 –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클래식 영상물의 관점에서 바라본 카라얀

이전 Arthaus 레이블에서 DVD로 발매되었던 게오르그 뷔볼트 감독이 제작한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다큐멘터리인 '은막의 마에스트로(Maestro for the screen)'이 발매되었다. 이번에는 한글자막까지 첨가되어 훨씬 내용을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어서 관심을 끈다. 카라얀은 레코딩뿐만 아니라 클래식 영상에서도 독보적인 경지를 이룬 마에스트로다. 천편일률적인 콘서트 실황에서 벗어나 클래식 음악의 영상에 음악적인 요소와 자신만의 개성을 불어넣어 음악적 메시지가 영상을 통해 전달되는 것을 지향한 새로운 세계를 추구했기 때문이다. 이 영상물에는 클로조 감독을 비롯한 몇몇 카라얀의 감독들과의 작업 및 자신이 직접 감독으로 나선 현장이 생생하게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카라얀이 직접 첼발로를 연주하는 바흐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3번과 모음곡 2번 영상이 최초로 음반화되어 실려 있다.

HD 1080i/ PCM Stereo/ 16:9/ **자막:** GB, FR, DE, SP, KO, JP/ 52Mins+32Mins(Bonus)

C Major 736508 **[DVD]**
C Major 736604 **[Blu-ray]**

안드레스 쉬프와 카펠라 안드레아 바르카

안드레스 쉬프(피아노, 지휘)/ 카펠라 안드레아 바르카

잘츠부르크에서 펼쳐진 쉬프의 아름다운 고전정신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건반 위의 고전주의자 안드레스 쉬프.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며 빈 고전음악에 대한 새로운 음향을 발견해 나아가고 있는 그는 헝가리 피아니즘 특유의 아카데미즘과 빈의 독특한 뉘앙스를 30여년 넘게 부단히 발전시켜왔다. 그런 까닭에 그의 음악은 1980년대 처음 등장했을 때와 지금은 전혀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고매해졌는데, 그 안에서도 결코 잃지 않는 넘치는 서정과 아름다움에 대한 완벽주의는 여전히 빛을 발한다. 이 블루레이는 2015년 1월 24일과 25일 잘츠부르크의 모차르테움 그레이트 홀에서의 실황을 담고 있는 영상물로서, 쉬프가 카펠라 안드레아 바르카와 함께 한다. 슈베르트 교향곡 5번은 지휘를,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Op.15와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K.482에서는 지휘와 피아노를 함께 담당하고 있다.

HD 1080i/ PCM 2.0, DTS-HD MA 5.1/ 16:9/ 109MINS

C Major 750408 **[DVD]**
C Major 750504 **[Blu-ray]**

말러: 교향곡 9번

슈타츠카펠레 베를린/ 다니엘 바렌보임(지휘)

새로운 21세기 말러의 시작, 슈타츠카펠레 베를린의 말러 사이클

2010년부터 2011년은 말러의 탄생 150주년과 서거 100주년으로서 작곡가와 관련한 많은 행사가 전세계에서 열렸는데, 슈타츠카펠레 베를린 또한 이에 동참하여 기념비적인 역사를 남겼다. 이 시기 악단은 베를린과 빈, 뉴욕에서 다니엘 바렌보임과 피에르 불레즈 두 명의 지휘자와 함께 말러 교향곡 사이클을 진행했는데, 이는 단순히 이벤트적인 성격 외에 더 많은 음악적 의의를 갖고 있다. 무엇보다도 오랜 동안 친분이 두터웠던 불레즈와 바렌보임은 서로 말러에 대한 의견을 상의하여 해석의 가장 첨예한 부분까지를 새롭게 발견해냈다는 점이 놀랍다. 특히 음향적인 측면에 있어서 슈타츠카펠레 베를린이 이룬 경지는 대단히 놀라운 것으로서, 이 2009년 4월 5일 베를린 필하모니 홀에서의 실황 영상물은 프로젝트의 시작과 그 방향을 알리는 좋은 예라고 말할 수 있다. 보너스로는 불레즈와 바렌보임이 진행한 이 프로젝트에 대한 많은 기록이 담겨 있어 영상물의 가치를 한껏 높이고 있다.

HD 1080i/ PCM 2.0, DTS-HD MA 5.1/ 16:9/ 79MINS+22MINS(Bonus)

C Major 736708 **[DVD]**
C Major 736804 **[Blu-ray]**

2015 잘츠부르크 모차르트 협주곡의 정수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3번 K.488, 바이올린 협주곡 5번 K.219
(보너스트랙: 슈베르트 교향곡 8번 '그레이트' 4악장, 모차르트 바이올린 소나타 28번 K.304 2악장)
민코프스키(지휘)/ 루브르의 음악가들/ 프란체스코 코르티(포르테피아노)/ 티보 노알리(바이올린)

민코프스키 지휘와 시대악기로 만나는 모차르트 협주곡의 정수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3번 K.488, 바이올린 협주곡 5번 K.219를 수록한 영상물로, 원전연주의 거장 마크 민코프스키와 그의 분신과도 같은 '루브르의 음악가들'의 2015년 잘츠부르크 모차르트 주간 실황을 담고 있다. 경쾌한 속도감을 몸소 보여주는 민코프스키의 제스처와 클로즈업 화면, 루브르의 음악가들의 감각적인 반응과 기동력, 프란체스코 코르티의 피아노포르테 연주와 루브르의 음악가들 악장 티보 노알리의 깊이 있는 연주, 잔향의 조미료를 쏙 뺀 앙상블과 모차르테움의 생생한 울림 등이 한데 어우러진 최고의 영상물이다.

C Major 737408 **[2DVDs]**
C Major 737504 **[Blu-ray]**

발레 〈타치아나〉

존 노이마이어 (안무)/ 함부르크 발레단/ 레라 아우어바흐(음악)/ 엘렌 부세(타치아나 역)/ 에드윈 레바초프(오네긴)/ 레슬리 헤일만(올가 역)/ 알렉산드르 트루쉬(렌스키 역)

〈예브게니 오네긴〉의 여주인공 타치아나, 발레로 다시 태어나다

1973년 독일 함부르크 발레단 창단 때부터 초대 단장 겸 상임안무가로 지금까지 발레단을 이끌고 있는 존 노이마이어 안무작 〈타치아나〉 2015년 함부르크 슈타츠오퍼 실황물이다. 원작인 〈예브게니 오네긴〉의 서사를 잘 살리면서 무용수들의 다양한 춤사위가 한데 어우러진 환상적인 작품이다. 타이틀롤을 맡은 수석무용수 엘렌 부세의 비극적인 몸짓과 에드윈 레바초프가 춤으로 표현하는 오네긴의 어두운 이면은 한편의 연극이며, 소설이고, 레라 아우어바흐의 음악과 어우러지는 최고의 춤이다. 34분 분량의 보너스 트랙으로 작품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볼 수 있는 것도 이 영상물이 지닌 큰 매력이다.

Dynamic

www.dynamic.it

Dynamic 37735 **[2DVDs]**

마이르: 코린토의 메데아

로베르토 로렌치(크레온테)/ 다비니아 로드리게스(메데아)/ 미카엘 스프레이스(야손) 외/ 오케스트라 인테르나치오날레 디탈리아와 트린실바이나 국립 합창단/ 파비오 루이지(지휘)

메데아 신화에 대한 새로운 해석

메데아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최고의 악녀 캐릭터로서 황금양모의 영웅 야손을 돕기 위해 남동생을 찢어 죽이고 야손 사이에서 얻은 자신의 두 아이들을 죽임으로써 야손에게 복수하는 이야기. 지금은 케루비니의 '메데아'가 유명하지만 19세기 초반만 하더라도 독일에서 태어나 이탈리아에서 활동했던 마이르의 '코린토의 메데아'가 더 인기가 높았다. 1813년에 초연되었던 이 작품은 당시의 큰 인기에도 불구하고 세인들의 기억 속에서 급속도로 망각되었는데,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다시금 재평가를 받기 시작했다. 한스 노이엔펠즈의 2010년 바이에른 슈타츠오퍼 프로덕션 이후 두 번째 영상물인 이 이탈리아의 마르티나 프랑카에서 열리는 발레 디트리아 페스티벌 2015년 7월 실황. 영화와 같이 황홀한 무대와 원색적인 아름다움, 가수들의 탁월한 절창이 어우러지며 19세기 초반의 영화를 다시 한 번 재현하는 듯하다.

Dynamic 37760 **[DVD]**

오페라 애호가들의 관심으로 부활한 로시니의 첫 오페라!

로시니: 행복한 착각

아르타바즈드 사르그시안(베르트란도 공작)/ 소프라노 실비아 달라 베네타(이사벨라 부인)/ 바우르잔 앤더차노프(오르몬도)/ 티치아노 브라치(타라보트)/ 안토니노 폴랴니(지휘)/ 비르투오지 브루넨시스/ 야센 쇤레버(연출)

로시니의 첫 오페라로 성공을 안겨준 작품

'행복한 착각'은 로시니 생애 첫 작품으로, 1812년에 '행복한 착각'의 성공 이후 승승장구의 삶을 살았다. 이 영상물은 2015년 독일 빌트바트의 로시니 페스티벌 중 7월 23~25일 실황이다. 유부녀 이사벨라를 사랑했지만 이룰 수 없게 되자 음모를 꾀한 오르몬드가 벌을 받고, 이사벨라는 다시 남편과 재회한다는 내용이다. 이사벨라 역의 소프라노 실비아 달라 베네타와 4명의 가수 모두 흠잡을 데 없으며, 안토니노 폴랴니의 경쾌한 지휘와 신나게 부풀어 오르는 크레센도는 젊은 로시니의 재기 넘치는 면모를 재발견하게 한다. 자막은 영어, 이탈리아어, 독일어, 프랑스어이다.

[보조자료]

로시니 생애 첫 작품으로, 그는 1812년에 '행복한 착각'의 성공으로 인해 이후 승승장구의 삶을 살았다. '행복한 착각'은 모차르트의 '후궁 탈출'(1782)과 유사한 일종의 탈출 오페라로 아름다운 선율의 아리아들이 즐비한 매력적인 작품이다. 한동안 잊혀졌지만, 최근 로시니 재발견 열풍과 함께 다시금 이 작품이 오페라 애호가들의 관심을 얻고 있다. 이 영상물은 2015년 독일 빌트바트의 로시니 페스티벌 중 7월 23~25일 실황이다.

음흉한 오르몬도가 베르트란도 공작의 부인 이사벨라를 사랑하지만 이사벨라가 오르몬드의 마음을 거절하자 오르몬드는 사악한 마음을 품고 그녀를 작은 배에 태워 먼 바다로 보내려 한다. 하지만 이사벨라는 타라보트의 도움으로 살아난다. 이 작품은 이로부터 10년 뒤의 이야기를 그린다. 어느 날 베르트란도 공작이 광산을 시찰한다. 베르트란도 공작을 본 이사벨라는 아직도 그를 사랑하는 마음에 타라보토에게 실은 자신이 공작 부인이었다고 밝힌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타라보토는 이사벨라를 돕는다. 그리고 이사벨라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된 오르몬도와 그의 조수 바토네는 다시 한번 납치를 시도하지만 타라보트가 두 사람을 붙잡는다. 이후 이사벨라는 다시 베르트란도 공작의 품으로 돌아간다.

영상물에 수록된 총 16개 트랙의 노래들을 화려하게 수놓는 이사벨라 역의 소프라노 실비아 달라 베네타와 4명의 가수 모두 흠잡을 데 없으며, 안토니노 폴랴니의 경쾌한 지휘와 신나게 부풀어 오르는 크레센도는 젊은 로시니의 재기 넘치는 면모를 재발견하게 한다. 자막은 영어, 이탈리아어, 독일어, 프랑스어이다.

Dynamic 37742 **[DVD]**
Dynamic 57742 **[Blu-ray]**

로시니: 신문

친지아 포르테(리세타)/ 엔리코 마라벨리(돈 프롬포니오)/ 로랑 쿠플라(필리포) 외/ 로얄 왈롱 오페라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얀 슐츠(지휘)

로시니 오페라 부파의 새로운 재발견

장-귀 르꺄(Jean-Guy Lecat) 감독이 연출한 로시니의 신문(La Gazzetta). 벨기에 리에쥬에 위치한 로열 왈롱 오페라 하우스 프로덕션으로서 2016년 6월 실황이다. 1816년 나폴리 피오렌티니 극장에서 초연된 이 오페라는 2막의 오페라 부파로서 카를로 골도니의 희극 결혼시합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파리의 여관을 무대로 우스꽝스러운 허풍쟁이 돈 폼포니오라는 늙은이가 딸 리제타의 신랑감을 구하는 광고를 신문에 낸 뒤 벌어지는 촌극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로시니는 11개의 노래 가운데 8곡을 세비야의 이발사, 이탈리아의 터키인 같은 자신의 초기 오페라들로부터 자기표절한 만큼 그 예술적 가치가 외면당했지만, 이 작품에 담긴 극한의 유머와 독창적인 아이디어는 최근 다시 조명받고 있다. 최고의 무대와 최상의 음악가들이 함께 한 로시니의 새로운(?) 걸작의 탄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회심의 영상물!

[보조자료]

장-귀 르꺄(Jean-Guy Lecat) 감독이 연출한 로시니의 신문(La Gazzetta)

벨기에 리에쥬에 위치한 로열 왈롱 오페라 하우스 프로덕션으로서 2016년 6월 실황이다. 1816년 나폴리 피오렌티니 극장에서 초연된 이 작품은 2막의 오페라 부파로서 카를로 골도니의 희극 결혼시합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초연 이후 대본의 허술함 혹은 음악적 구성의 일관성 부족 때문에 사장되었다가 20세기 중반 이후에서야 비로소 조금씩 무대에 오르기 시작했던 로시니의 잊혀진 오페라 부파였다. 세비야의 이발사와 같은 해에 작곡된 이 오페라는 많은 핸디캡을 갖고 있음이 분명하다. 당시 7년 연상의 스페인 출신의 소프라노 이자벨라 콜브란의 매력에 빠져있던 로시니는(이후 결혼에 성공한다) 그 답지 않게 단기간에 작곡하지 못한 채 초연이 지연되었던만큼 작곡이 일필휘지로 완성되지 못했다. 그리고 로시니는 11개의 노래 가운데 8곡을 세비야의 이발사, 이탈리아의 터키인, 시금석 같은 자신의 초기 오페라들로부터 자기표절하여 편집했을 만큼(시간이 없어서 그랬겠지만) 음악적인 독창성도 약간 떨어지는 편이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이 작품에는 세비야의 이발사에서 비로소 개화된 로시니의 전형적인 부파 스타일이 한층 발전한, 이후 후기에 이르는 걸작 부파들 사이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음을 어렴풋하게나마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둘 수 있다. 파리의 호텔 아쿠라를 무대로 우스꽝스러운 허풍쟁이 돈 폼포니오라는 늙은이가 딸 리제타의 신랑감을 구하는 광고를 신문에 낸 뒤 벌어지는 촌극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장 먼저 딸을 가진 아버지들(폼포니오와 안젤모)이 결국 신랑감을 찾지 못하고 딸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양보하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격언(푸치니의 쟈니 스키키까지 이어지는)을 부파적으로 정립한 한편, 1막에서는 아리아 위주, 2막에서는 대화 위주로 구성된 세비야의 이발사에서 벗어나 보다 독창, 중창, 합창, 대화가 극적으로나 구조적으로 안정되게 배치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로시니 크레센도를 비롯한 자신의 음악 어법이 보다 확연하게 드러났다는 점 등등이 그러하다. 세비야 이발사의 저 위대한 1막 피날레가 다시 사용된 1막 중반부의 5중창은 규모가 작아서 그렇지 음역의 옮김과 전개의 치밀함은 훨씬 더 정교해졌고, 시금석에서 온 3중창과 이탈리아의 터키인에서 온 2중창 등등도 장식적으로 화려해졌을 뿐만 아니라 보다 흐름이 유려해졌다. 더군다나 세비야의 이발사 서곡과는 전혀 다른 스타일의 완성도

를 자랑하는 서곡 또한 훌륭한데, 이는 이후 라 체레넨톨라에서 다시 한 번 써먹었다. 구혼자를 찾으며 벌어지는 황당무계한 스토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악적으로는 훨씬 발전했으며 이후 로시니가 완성한 실내극으로서의 부파의 원형을 완성했다는 점에 있어서 그 역사적 중요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다.

연출은 2005년 리체우 실황의 다리오 포 연출과 직접적으로 비교된다. 포의 연출은 보다 스펙타클하고 상상력이 넘치는 무대로서 영화적인 효과 및 스케일이 가미된 프로덕션이라면, 이 2014년 로얄 왈롱 오페라의 연출은 실내극으로서의 임팩트가 강하고 색채 또한 원색적이며 훨씬 코믹한 요소가 강조되어 로시니의 의도에 잘 맞아떨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로시니 페스티벌 실황에서의 브루스키노씨 컨셉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음악적으로 대단히 완성도가 높은 만큼 이 왈롱 버전의 신문은 로시니 부파를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보아야 할 필청 영상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리체우에서 등장했던 소프라노 친치아 포르테(Cincia Forte)가 다시 한 번 등장하여 허영심과 질투는 많지만 한 남자에게 지고지순한 매력적인 리제타 역을 완벽하게 소화해냈고, 아버지 폼포니오역의 엔리코 마라벨리 또한 이탈리아 저음가수로서의 매력과 코믹한 캐릭터로서의 매력을 한껏 발산한다. 알베르토역의 에드가르도 로샤나 필리포역의 로랑 쿠블라, 도라 리체역의 줄리 베일리 또한 연기와 가창 모든 면에 있어서 로시니의 흥겨운 부파의 세계를 완벽하게 구성해낸다. 더불어 한글자막이 지원된다는 점 또한 이 영상물만의 강점으로서, 최고의 무대와 최상의 음악가들이 함께 한 로시니의 새로운 걸작의 탄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회심의 영상물로 적극 추천한다.

한글자막

Dynamic 37718 [DVD]

당대 분위기를 충실하게 재현한 보리스 크리스토프 탄생 100주년 기념 공연

무소르크스키: 보리스 고두노프

마르틴 초네프(보리스 고두노프)/ 마리오 크라스테프(표도르)/ 이리나 제코바(크세니야)/ 플라멘 카르탈로프(연출)/ 소피아 오페라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및 발레단/ 콘스탄틴 추도프스키(지휘)

아름다운 대성당을 배경으로 성악진의 열연이 빛나는 '보리스 고두노프'

무소르크스키의 '보리스 고두노프'는 러시아의 이른바 '동란 시대'를 그려낸 푸시킨의 동명 비극에 기초한 대작 오페라이다. 이 오페라는 특이하게도 베이스가 주연을 맡는 것으로도 유명한데, 샬리아핀과 더불어 보리스 고두노프 역의 표준을 세운 보리스 크리스토프는 지금까지도 전설로 남아 있다. 크리스토프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이 영상물은 소피아의 알렉산드르 네프스키 대성당 앞에 설치된 무대에서 열린 공연 실황을 담고 있다. 연출가 카스탈로프는 아름다운 건축미를 보여주는 대성당을 배경으로 의상과 장식뿐만 아니라 각종 의식 등 여러 면에서 당대 분위기를 생생하게 재현했으며, 2막에서 경찰이 그리고리를 추격하는 장면에서는 말까지 동원하는 등 모든 장면에 사실성을 부여하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모든 배역이 열연을 펼쳤지만 고두노프의 번민을 생생하게 표현한 마르틴 초네프가 특히 돋보인다.

Dynamic 37740 [DVD]

2014년 베네토 페스티벌 오프닝 콘서트, 갈루피의 '노예 해방 미사' 최초 녹음

갈루피: 노예 해방 미사/ 모차르트: 대관식 미사

로베르타 칸치안(소프라노)/ 라우라 폴베렐리(알토)/ 알도 카푸토(테너)/ 마르코 부시(베이스)/ 상트페테르부르크 레게 아르티스 합창단/ 이 솔리스티 베네티/ 클라우디오 시모네(지휘)

알려지지 않은 걸작 미사의 재발견과 전통적인 명곡의 훌륭한 재현

발다사레 갈루피는 오늘날 주로 오페라 부파의 작곡가로 알려져 있지만 교회음악도 많이 썼다. 2014년 베네토 페스티벌 오프닝 콘서트의 첫머리를 장식하는 그의 '노예 해방을 위한 미사'는 제목에서 연상하기 쉬운 바와는 달리 북아프리카 해적들에게 납치되어 노예가 된 베네치아 공화국 사람들을 위한 미사이다. 이번에 최초로 녹음된 이 곡은 '키리에'와 '글로리아' 및 '크레도'로만 이루어져 있지만, 길이 면에서는 결코 짧지 않으며 강렬하고 화려한 표현이 곳곳에 등장한다. 연주 장소인 파도바 수행자 교회의 지극히 풍부한 잔향과 유서 깊은 장식은 갈루피의 미사뿐만 아니라 함께 수록된 모차르트의 '대관식 미사'에도 비교적 단출한 연주 규모를 훨씬 넘어서는 장대함과 위엄을 부여하며, 지휘자 시모네를 비롯한 모든 음악가는 강한 확신과 헌신으로 공연에 참여하고 있다.

EuroArts

EuroArts

www.euroarts.com

한글자막

EuroArts 2075278 [5 DVDs]

부르노 몽생종 에디션 3

스비아토슬라프 리히테르와 겐나디 로제스트벤스키

리히테르와 로제스트벤스키에 대한 삶과 음악적 진실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접근

프랑스의 클래식 음악 전문 다큐멘터리 감독인 부르노 몽생종이 제작한 필름을 시리즈로 발매하고 있는 유로아츠에서 이번에는 두 명의 소비에트 시절의 위대한 예술가들에 대한 영상물들을 여섯 장의 DVD박스로 묶어서 발매했다. DVD 1과 2는 이전에 발매된 바 있는 리히테르의 저 유명한 다큐멘터리인 '이니그마', 영상물로 처음 발매되는 로린 마젤/ l'ORTF 국립 오케스트라와 리히테르가 1966년에 협연한 실황으로서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K271 전곡, DVD3은 로제스트벤스키의 소비에트 러시아에서의 삶을 담은 다큐멘터리와 시닛케의 '죽은 영혼'(2003) 및 프로코피에프의 칸타타 '즈드라비짜'(2002) 공연 실황, DVD4와 5은 볼쇼이에서의 활동, 소비에트 작곡가들과의 만남, 그 밖에 여러 음악과 삶에 대해 로제스트벤스키와의 대화를 담은 다큐멘터리로 구성되어 있다.

[보조자료]

– 소비에트 시대의 러시아에서 음악가들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권위주의적 사회에 살면서 어떻게 순응하고 속이면서 살 수 있었을까? 그들이 그 외에 직면할 수 밖에

없었던 위험이나 어려움들은 무엇이었을까? 스비아토슬라프 리히테르와 겐나디 로제스트벤스키는 소비에트 시절의 정치구조에서 겪었던 수많은 강제와 권위의 압박, 감시와 견제에 대해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낱낱이 밝히고 있다. 더불어 음악가로서의 개인적인 삶과 추억은 물론이려니와 서방세계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당시 소비에트 음악가들과 함께 했던 교류와 경험, 그리고 그들이 남긴 역사적인 공연 실황 필름을 통해 리히테르와 로제스트벤스키라는 음악가를 다면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

– 몽생종의 질문은 그들의 음악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주고 편집의 높은 완성도는 영상에 대한 미적 호기심을 만족시키기에 모자람이 없다. 특정 시대, 특정 지역의 음악적 상황을 관찰하기에 이보다 더 생생한 음악적 증언이 있을까?

EuroArts 2061018 **[DVD]**

전쟁 교향곡: 스탈린에 대항한 쇼스타코비치

래리 바인슈타인(감독)/ 발레리 게르기에프(지휘)/ 네덜란드 라디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피의 숙청을 음악으로 묵묵히 견뎌낸" 쇼스타코비치의 위대한 승리!

'혁명'이라는 부제의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5번은 과연 혁명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었나? 스탈린은 왜 쇼스타코비치의 주변 인물에 대해 피의 숙청을 감행하면서도 정작 쇼스타코비치는 어쩔 수 없었을까? 반세기를 지배했던 광기의 시대를 음악의 힘으로 저항하면서 묵묵히 살아간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4번(1936)부터 9번(1945)까지 9년동안의 시대상에 초점을 맞춘 음악, 역사 교양 다큐멘터리.

**

98년 에미상(베스트 아트 다큐멘터리), 미국역사학자협회상(올해의 영화), 제미니상(베스트 퍼포밍 아트 프로그램) 수상.

EuroArts 2072818 **[2 DVDs]**

부에노스 아이레스 테아트로 콜롱에서의 마르타 아르헤리치, 다니엘 바렌보임, 서동시집 오케스트라 – 피아노 듀오와 오케스트라 공연

아르헨티나를 빛낸 두 거성의 콜라보레이션

2014년 8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역사적인 극장 테아트로 콜롱에서 열린 대규모 콘서트가 영상물로 발매되었다. 이 공연의 주역은 아르헨티나가 낳은 두 명의 거장 마르타 아르헤리치와 다니엘 바렌보임. 바렌보임이 창설한 서동시집 오케스트라와 함께 한 콘서트가 DVD 1에, 그리고 바렌보임과 아르헤리치가 피아노 듀오를 연주한 콘서트가 DVD 2에 수록되어 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탁월한 어쿠스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 콜롱 극장을 일별할 수 있다는 것도 이 영상물만의 장점. 오케스트라 공연에서는 모차르트의 피가로 서곡과 아르헤리치 협연의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1번, 라벨과 비제의 관현악곡들로 구성되어 있고, 피아노 듀오 공연은 모차르트와 슈베르트, 스트라빈스키, 슈만, 라흐마니노프, 미요와 구스타비노의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EuroArts 2061308 **[DVD]**

피아니스트들의 거리

나타샤 바인더/ 카린 레흐너/ 마르타 아르헤리치/ 세르지오 티엠포/ 릴 티엠포/ 미샤 마이스키 외

작은 거리에서 살아가는 3대에 걸친 피아니스트들

브뤼셀에 있는 작은 거리, 두 개의 빌딩이 맞대고 있는 사이의 골목. 건물 한 쪽에는 우리 시대의 거장 마르타 아르헤리치가 살고 있고 그 바로 옆에는 아르헤리치와 동향의 젊은 피아니스트들인 세르지우 티엠포 가족이 살고 있다. 여기에는 7살 위인 누나 카린 레흐너와 남매의 매니저이자 교사인 어머니 릴 티엠포, 그리고 카린의 어린 딸인 나타샤 빈더도 함께 한다. 이 영상물은 마리아노 난테 감독이 촬영한 일종의 음악 다큐멘터리로서 아르헤리치와 티엠포 가족이 브뤼셀의 작은 거리에서 여러 친구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특히 보너스 트랙으로 엄마와 딸이 함께 콜롱 극장에서 연주하는 피아노 듀오 연주회가 30여분. 티엠포 남매가 유아 때 모차르트 K.141을 연주하는 홈 비디오, 나타샤가 브뤼에서 연주하는 라벨 피아노 협주곡의 일부와 아르헤리치가 연주하는 슈만의 어린이 정경의 첫 대목 등이 수록되어 있다.

EuroArts 2060988 **[25DVDs]**

EUROPAKONZERT 25 DVD | Anniversary BOX 1991 – 2015
유로파콘체르트 시리즈 25주년 기념 박스

베를린 필하모니커의 생생한 역사이며 유럽 도시들의 현재진행형을 담은 기념비적인 예술품

매년 5월 1일 베를린 필하모니커는 저 유명한 유로파콘체르트(유럽 투어 콘서트)를 갖는다. 해마다 유럽의 각기 다른 도시에서 연주회를 갖는 이 유로파콘체르트는 오케스트라의 창단일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유럽의 문화유산을 공유한다는 취지하에 진행되고 있다. 첫 공연은 1991년 5월 1일 시작되었고 유로아츠가 그 충실한 단독 파트너로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연주회 실황들을 영상물로 남기고 있다. 그리하여 현재까지 25개의 연주회가 촬영되었는데, 이번 그 모든 연주회 실황들을 하나로 묶어 박스로 발매하게 된 것이다. 베를린 필하모니커를 지휘한 지휘자들을 보면 클라우디오 아바도를 비롯하여 다니엘 바렌보임, 사이먼 래틀, 주빈 메타 등등이 등장하고, 솔리스트로는 레오니다스 카바코스, 트루스 모르크, 플라시도 도밍고, 리사 바티아쉬빌리 등등이 출연한다. 그 외에 연주회가 열리는 해당 도시와 관련된 다양한 보너스 영상물들도 포함되어 있다. 총 41시간이 넘는 연주시간을 수록하고 있어 많은 음악 애호가들로부터 커다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유로파콘체르트 시리즈 25주년 기념 박스는 그 자체로서 베를린 필하모니커의 생생한 역사이자 유럽 도시들의 현재진행형을 담은 기념비적인 예술품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연주자]

Leonidas Kavakos, violin/ Magdalena Kožená, mezzo-soprano/ Gautier Capuçon, cello; Cañizares, guitar/ Alisa Weilerstein, cello/ Violeta Urmana, soprano/ Vadim Repin, violin/ Lisa Batiashvili, violin/ Truls Mørk, cello/ Radek Baborák, french horn/ Daniel Barenboim, piano/ Maria João Pires, piano/ Gil Shaham, violin/ Emmanuel Pahud, flute/ Swedish Radio Choir/ Mikhail Pletnev, piano/ Christine Schäfer, soprano/ Emanuel Ax, piano/ Eric Ericson Chamber Choir/ Anatoli Kotscherga, basso/ Kolja Blacher, violin/ Sarah Chang, violin/ Frank Peter Zimmermann, violin/ Plácido Domingo, tenor/ Cheryl Studer, soprano/ Bruno Canino, piano
*Berliner Philharmoni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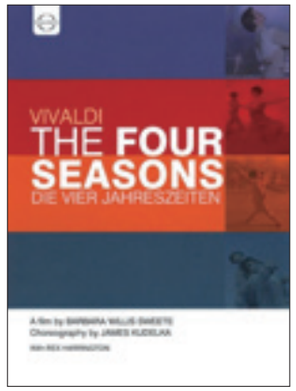
[지휘자]

Sir Simon Rattle/ Claudio Abbado/ Pierre Boulez/ Gustavo Dudamel/ Bernard Haitink/ Mariss Jansons/ Zubin Mehta/ Riccardo Muti

[곡목]

Compositions from Wolfgang Amadeus Mozart/ Giuseppe Verdi/ Hector Berlioz/ Franz Schubert/ Richard Wagner/ Pyotr Ilyich Tchaikovsky/ Igor Stravinsky/ Ludwig van Beethoven/ Johannes Brahms/ Antonín Dvorák/ Boris Blacher/ Niccolò Paganini/ Sergei Prokofiev/ Sergei Rachmaninoff/ Maurice Ravel/ Claude Debussy/ Robert Schumann/ Frédéric Chopin/ Joseph Haydn/ Béla Bartók/ Max Bruch/ Giuseppe Martucci/ Franz Schubert/ Edward Elgar/ Emmanuel Chabrier/ Joaquín Rodrigo/ Ralph Vaughan Williams/ Otto Nicolai/ Jean Sibelius/ Gioacchino Rossini and Johann Sebastian Bach

[BONUS: Documentaries, Intervi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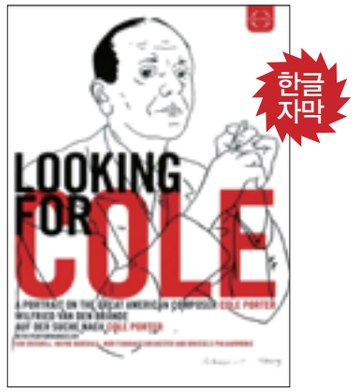
EuroArts 2061098 **[DVD]**

비발디: 사계 [발레버전]

내셔널 아츠 센터 오케스트라/ 핑커스 주커만(지휘)

현대발레로 재탄생한 비발디의 사계

캐나다 오타와에 있는 내셔널 아츠 센터에서 2002년 촬영한 비발디의 사계 발레 버전. 제임스 쿠델카의 안무로 펼쳐지는 현대무용으로서 음악은 이 극장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지휘자인 핑커스 주커만이 소속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자신이 직접 바이올린과 지휘를 한다. 봄–여름–가을–겨울의 계절적 변화를 한 남자의 삶으로 치환하여 젊음부터 노년에 이르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재해석한 이 발레에는 캐나다 국립 발레단원들이 등장하는데 스타급 수석 발레리노인 렉트 해링턴을 중심으로 추가로 한 명씩이 더 등장한다. 봄은 한국인 고찬호, 여름은 그레타 호드킨슨, 가을은 마르틴 래미, 겨울은 레제리 랜솜과 발레리나 빅토리아 베르트람이 출연하여 인상적인 영상미를 펼쳐낸다.



EuroArts 2061418 **[DVD]**

지난 세기 가장 유명한 미국 작곡가인 콜 포터를 조명하는 최초의 다큐멘터리

콜 포터: Looking for Cole

감독: 빌프리드 반 덴 브란드

공연: 킨 크리스웰/ 웨인 마셜/ WDR FUNKHAUS ORCHESTEWR AND BRUSSELS PHILHARMONIC

콜 포터의 삶과 음악을 심도 깊게 관찰하는 최초의 다큐멘터리 영화

독특한 통찰력으로 콜 포터의 삶과 음악을 심도 깊게 관찰하는 최초의 다큐멘터리 영화가 Euroarts를 통하여 출시되었다. 콜 포터 전문가인 빌프리드 반 덴 브란데가 포터의 자취를 따라 페루(미 중서부 인디애나 주)와 뉴욕, 이탈리아 베네치아 등을 오가며 놀랍도록 특별한 이 작곡가에게 새로운 빛을 투영한다. 이 다큐멘터리를 수놓는 'So in Love', 'I Love Paris' 등 포터의 아름다운 명곡 또한 놓치지 말아야 할 감상 포인트.

EuroArts 2072958 **[2 DVDs]**
EuroArts 2072954 **[Blu-ray]**

모차르트: 피가로의 결혼

루카 피사로니(알마비바 백작)/ 아네트 프리취(알마비바 백작부인)/ 마르티나 얀코바(수잔나)/ 피가로(아담 플라체트카)/ 마르가리타 그리츠코바(케루비노)/ 앤 머레이(마르첼리나) 단 에팅거(지휘)/ 스벤-에릭 베히톨프(연출)/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비엔나 국립오페라 합창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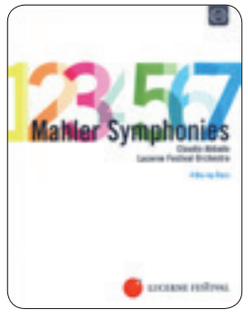
영국 디자이너들에게 무대와 의상을 맡겨 1920년대 영국 대저택의 구석구석을 2층 구조물의 시트콤 드라마 무대처럼 꾸며 오리지널 희곡이 가지는 극적 요소를 부각시킨 베히톨프의 인상적인 연출! 작곡 의뢰없이 모차르트 스스로가 좋아서 오페라를 만들고 초연 지휘를 했듯이 직접 피아노 포르테를 치면서 모차르트의 이미지를 강렬하게 투영하는 지휘자 댄 에팅거! 슈퍼스타가 없이도 오페라의 진수를 맛보게 하는 피사로니, 프리취, 얀코바, 플라체트카, 그리츠코바의 등의 완벽한 무대 퍼포먼스!

"희곡와 음악의 완벽한 결합!" – *모차르트 하우스, 2015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음악이 먼저다"라는 모차르트의 철칙이 유독 이 오페라에서 더 느껴지는 것은, 작곡 의뢰를 받지 않고 모차르트 스스로가 좋아서 만든 유일한 오페라이기 때문이다. 역사상 최초의 프리랜서 작곡가였던 모차르트는 대부분의 작품을 의뢰받아 만들었지만, 피아노 협주곡만은 자신이 좋아서 작곡했다. 그래서인지, 피아노 포르테 연주를 겸하면서 지휘를 하는 댄 에팅거의 모습에서 모차르트의 모습이 선명하게 투영되고 있다.

[보조자료]

– '피가로의 결혼'을 언급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세비야의 이발사'이다. 두 작품 모두 보마르셰가 쓴 희곡이 오리지널이고, 등장인물과 줄거리가 이어지는 내용이다. 평민으로 태어난 재능 많은 야심가였던 보마르셰(1732~1799)의 눈에 비친 당시 귀족계급의 사회상은 더 없이 훌륭한 희곡의 소재였다. 신분 상승을 위해 외교관이 되고 싶었지만, 그 꿈이 좌절되면서 보마르셰는 희곡에 눈길을 돌렸다. '세비야의 이발사'(1775)에서는 노골적으로 드러낼 수 없었던 귀족들에 대한 조롱이 '피가로의 결혼'(1784)에서는 대담하고도 직설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냈다. 루이16세의 지시에 의해 몇차례 대본이 수정되어 한차례 왕실 공연을 거친 뒤에야 대중 공연을 허락받았던 이 희곡에 대해 후일 나폴레옹은 "이 작품엔 이미 혁명이 일어나고 있었다"로 술회했다. 2년후 작곡된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1786)은 천재적인 대본가 로렌초 다 폰테의 도움으로 속전속결로 검열을 마치고 대중 앞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 2015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모차르트 하우스에서의 실황공연을 담은 이 영상물의 가장 큰 매력은 원작의 연극적 요소와 모차르트의 천재적인 음악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1920년대 영국의 대저택 모습을 재연하기 위해 영국 디자이너 알렉스 이일스, 마크 바우만에게 각각 무대와 의상을 맡긴 베히톨프의 연출은 오페라의 희극적 풍자속에 속고 속이고 또 속이는 아슬아슬한 극적 재미를 속이 꽉 찬 버라이어티 선물상자에 담아낸 것 같다. 특히 막이 바뀔 때마다 대저택의 이곳저곳을 분할화면으로 보여주는 무대세트는 시트콤 드라마의 공개촬영 모습을 보는 듯 부드럽고 빠른 장면 전환을 보여준다. 슈퍼스타 출연진이 없는 것은 오히려 장점이다. 이처럼 다양한 캐릭터들이 서로 기량을 뽐내야하는 작품에서 한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면 밸런스가 무너져 극적인 재미가 반감되기 때문이다. 모차르트 오페라에 정통한 루카 피사로니, 마르티나 얀코바, 아담 플라체트카 등과 이외의 주요 배역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완벽하게 해냄으로써 협연의 가치를 제대로 보여준 걸작이다.



EuroArts 2058574 **[4 Blu-ray]**

말러: 교향곡 1 – 7번

아바도(지휘)/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아바도와 말러의 잊을 수 없는 감동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선사해 준 클라우디오 아바도와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말러 교향곡 1–7번. 블루레이 4장 박스세트로 구성되어 오디오, 영상, 음악성에 이르기까지 탁월한 가치를 보여준다. 말러 해석에 새로운 스탠다드를 제시하는 클라우디오 아바도와 그가 직접 뽑은 앙상블 단원들의 이 연주실황에 고스란히 마음을 빼앗길 것이다.

"이보다 더 훌륭하고, 이보다 더 중요하고, 이보다 더 감동적인 연주는 찾기 어려울 것이다" – *분트: 말러교향곡 2번*

[수록곡]

[Blu-ray Disc 1]
Prokofiev: Piano Concerto No.3 in C, Op.26
Yuja Wang (piano)
Mahler: Symphony No.1

[Blu-ray Disc 2]
Mahler: Symphony No.2 "Resurrection"
Eteri Gvazava (sop), Anna Larsson (contralto), Orfeon Donostiarra
Mahler: Symphony No.3
Anna Larsson (contralto), Arnold Schoenberg Chor (female voices), Tolzer Knabenchor
Mahler: Ruckert-Lieder
Mahler: Symphony No.4
Magdalena Kozena (mezzo -sop)

[Blu-ray Disc 3]
Mahler: Symphony No.5, 6

[Blu-ray Disc 4]
Mahler: Symphony No.7

OpusArte

www.opusarte.com

OpusArte OA1211 [DVD]
OpusArte OABD7201 [Blu-ray]

도니제티: 폴리우토

엠마누엘 다구아노(네아르코)/ 미카엘 파비아노(폴리우토)/ 아나 마리아 마르티네스(파올리나)/ 이고르 골로바텐코(세베로)/ 티모시 로빈슨(펠리체)/ 엔리케 마졸라(지휘)/ 다비드 맥비커(연출)/ 계몽시대 오케스트라/ 글라인드본 합창단

작곡가가 죽기 전까지 상연되지 못했던 도니제티의 오페라!
초기 기독교도의 순례를 소재로 도니제티의 아름다운 선율과 죽음을 불사하는 굳건한 신앙심으로 감동을 주는 기독교 오페라! 풍부한 성량을 자랑하는 미카엘 파비아노의 목소리와 연기에서 위안을 받을 수 있는 작품!

2015년 글라인드본 페스티벌의 오프닝 오페라!
이 오페라의 작곡가인 도니제티는 살아 생전에 이 작품의 무대 공연을 보지 못했다. 1838년에 작곡을 했지만 당시 국왕 페르디난드 2세의 검열에 걸려 리허설 무대가 취소되었다. 표면적인 이유는, 초기 기독교 순례자의 모습을 무대에 올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었지만, 권력을 쥔 자에게는 어떤 형태이던 기존 질서의 파괴를 연상시키는 모습을 무대에서 보고 싶지 않을 것이었다. 화가 난 도니제티는 마침 파리 오페라단의 요청으로 프랑스어로 수정하여 '순례자'라는 제목으로 파리에서 상연을 하게 된다(1840). 원본 오페라는 1848년에 이태리에서 상연되지만 이미 몇개월 전에 도니제티가 죽은 후였다. '폴리우토'는 흔히 잊혀진 오페라라고 하지만, 단순한 플롯에 강력한 힘을 담은 초기 기독교 순례자의 이야기라는 차원에서 빈도수가 낮긴 해도 꾸준히 무대에 올려졌었다. 사랑의 힘으로 신성을 깨닫게 되고 죽음을 불사하는 굳은 신앙심을 보이는 남여주인공 폴리우토와 파올리나의 "여보 갑시다"라는 마지막 대사와 함께 사자가 우글거리는 원형극장으로 향하는 모습에서 신성한 경외심을 가지게 된다. 극의 줄거리가 그러하듯이 전체적으로 어두운 조명과 소박한 무대 연출로 오페라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에 최대한 집중한 모습이다. 폴리우토의 깊은 신앙심을 연기하는 테너 미카엘 파비아노의 풍부한 성량은 많은 기대감을 갖게 한다. 기독교도에게는 특히 깊은 감동을 줄 오페라이다.

OpusArte OA1212 [DVD]
OpusArte OABD7202 [Blu-ray]

로열 발레단 4개의 창작발레 모음
리암 스칼렛 '비스케라', 카를로스 아코스타의 '카르멘',
제롬 로빈스 '목신의 오후', 조지 발랄신 '차이콥스키 파드듀'

20~21세기 창작발레의 '베스트4'를 수록한 로열발레단 영상물
영국 로열발레단의 팬이라면 반드시 소장해야 할 영상물. 로열발레단 상주안무가 리암 스칼렛부터 카를로스 아코스타, 제롬 로빈스, 조지 발랄신 4명의 작품을 통하여 20~21세기에 '고전'부터 '현재'를 아우르며 살펴볼 수 있는 최고의 영상물이다. 특히 2015년 10월에 초연된 '카르멘'은 이중 압권이다. Full HD 1080p 화질의 영상과 24비트 스테레오와 DTS HD 마스터 오디오 기능은 보는 이를 로열 오페라 하우스 관객석에 앉아 있는 듯한 느낌을 줄 정도로 현장감을 살리고 있다.

[보조자료]

– 1931년 창단된 영국 로열발레단의 팬이라면 반드시 소장해야 할 영상물이다. 예술감독 케빈 오헤어이가 이끄는 로열발레단에 상주하는 3명의 안무가 중 한 명인 리암 스칼렛의 '비스케라'(2012년 초연)를 비롯하여 제롬 로빈스의 '목신의 오후'(1953년 초연), 조지 발랄신의 '차이콥스키 파드듀'(1960년 초연), 카를로스 아코스타의 '카르멘' 이렇게 4개의 레퍼토리가 수록되었다. 한마디로 창작발레의 '고전'부터 '현재'까지를 아우른 영상물이다.

– 출연진은 스타급이다. '비스케라'의 로라 모레라 · 마리아넬라 누네즈 · 료이치 히라노, '목신의 오후'의 사라 램 · 바딤 문타기로프, '차이콥스키 파드듀'의 야나 살레코 · 스티븐 맥레이, '카르멘'의 카를로스 아코스타 · 마리아넬라 누네즈 등 각 작품마다 로열발레단의 수석무용수와 객원수석, 캐릭터무용수, 제1솔리스트들과 군무진이 출연하여 각 작품을 빛낸다. 작곡가 로웰 리버만의 음악이 춤만큼 빛나는 '비스케라'에는 조총련계 무용수 최유희의 모습도 볼 수 있다.

– 이중 로열발레단 프로덕션으로 2015년 10월에 초연된 '카르멘'은 단연 압권이다. 60분 분량의 이 작품은 현재 객원 수석으로 재직하는 발레리노 카를로스 아코스타가 안무와 돈 호세 역을, 아르헨티나 출신으로 전 세계에 팬을 갖고 있는 로열발레단 수석 마리아넬라 누네즈가 카르멘 역을 맡아 빈틈없는 하모니를 이룬다. 비제가 작곡한 '카르멘'의 음악적 흐름에 따라 진행되는 붉은 색조와 춤 역시 유혹적이고 또 매혹적이다.

– '비스케라' '카르멘'을 소개하는 트랙은 두 작품에 대해 면밀히 설명하고, 다른 트랙에 담긴 카를로스 아코스타 인터뷰 및 작품 설명은 그의 안무 세계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 Full HD 1080p 초고화질의 영상과 24비트 스테레오와 DTS HD 마스터 오디오 기능은 보는 이를 로열 오페라 하우스 관객석에 앉아 있는 듯한 느낌을 줄 정도로 현장감을 잘 살려 제작한 영상물이다.

OpusArte OA1215 **[DVD]**
OpusArte OABD7204 **[Blu-ray]**

모차르트: 후궁으로부터의 탈출

샐리 매튜스(콘스탄체), 에드가라스 몬트비다스(벨몬테), 토비아스 케러(오스민), 브렌델 건넬(페드릴로), 프랑크 소렐(바싸 젤림) 로빈 티치아티(지휘), 다비드 맥비커(연출), 계몽시대 오케스트라, 글라인드본 합창단

2015년 글라인드본 오페라 페스티벌이 내놓은 수작!

글라인드본 오페라페스티벌의 2015년 프로덕션인 모차르트 '후궁으로부터의 도주'를 담은 영상물이다. 모차르트 전문 소프라노와 테너로 인정받고 있는 샐리 매튜스과 에드가라스 몬트비다스는 물론 모차르트 작품으로 경력을 쌓은 이들이 티치아티의 지휘로 경쾌하고 빈틈없는 앙상블을 이룬다. 연출가 데이비드 맥비커는 징슈필의 연극적 분위기와 음악을 자연스럽게 블렌딩하였고, 비키 모티머의 무대는 섬세한 회화를 들여다보는 것 같다. Full HD 1080p 화질의 영상 속 연극장면들은 섬세하게 연출된 한편의 유럽 사극드라마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자아낸다.

[보조자료]

– 본 영상물은 그 어떤 오페라 페스티벌보다 모차르트의 오페라에 무게를 싣고 있는 글라인드본 오페라페스티벌에서 2015년 6월 초연으로 선보인 모차르트 '후궁으로부터의 도주'를 담았다. 터키를 배경으로 한 징슈필 '후궁으로부터의 도주'는 작곡 당시 유행하던 터키풍의 흥겨운 선율과 초연 당시 요제프 2세가 음표가 너무 많다고 투덜대었을 정도로 콜로라투라의 극치를 보여주는 화려한 아리아들로 가득한 매력만점의 작품이다.

– 2012년 글라인드본 페스티벌 프로덕션 '피가로의 결혼'에서 열연과 맑은 목소리를 자랑한 소프라노 샐리 매튜스가 여주인공인 콘스탄체 역을, 유럽에서 모차르트 테너로 인기를 얻고 있는 리투아니아 출신의 테너 에드가라스 몬트비다스가 벨몬테 역을 맡아 남녀 주인공의 심정을 빼어나게 노래한다. '마술피리'의 자라스트로를 단골로 맡고 있는 토비아스 케러처럼 성악가들은 대부분 모차르트 작품으로 경력을 쌓은 이들이다.

– 영국 태생의 연출가 데이비드 맥비커는 작은 연극단체를 이끌다가 오페라 연출로 입지전을 치른 인물답게 연극적 분위기와 음악을 자연스럽게 블렌딩하였다. 콘스탄체와 이뤄질 수 없는 사랑을 강요하는 바싸 젤림은 '나쁜 남자'지만, 콘스탄체와 연기하는 부분에선 늘 눈가가 촉촉해지고 사랑에 애태우는 남자를 연기한다. 영국 로열 오페라하우스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무대디자이너 비키 모티머의 섬세한 무대는 섬세한 회화를 들여다보는 것 같다.

– 무엇보다 본 영상물 속 음악이 빈틈없는 앙상블을 이루는 데에는 지휘자의 몫이 크다. 2004년 잘츠부르크에서 빈 필과 모차르트 '코지 판 투테'를 선보이며 최연소 지휘자 기록을 갈아치운 1983년생의 로빈 티치아티의 지휘에는 윤기가 흐른다. 특히 연극적 장면이 많은 이 작품에서 Full HD 1080p의 화질의 영상과 카메라 워킹은 사극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영화적 재미를 더하고, 24비트 스테레오와 DTS HD 마스터 오디오 기능은 티치아티와 계몽시대 오케스트라의 경쾌한 호흡을 여실히 드러내어 모차르트음악의 정수를 보여준다. 자막은 한국어, 일본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로 되어 있다.

OpusArte OA1207 **[DVD]**
OpusArte OABD7197 **[Blu-ray]**

베르디: 포스카리 가문의 두 사람

플라시도 도밍고(프란체스코 포스카리)/ 프란체스코 멜리(자코포 포스카리)/ 마리아 아그레스타(루크레치아)/ 새디어스 스트라스버거(연출)/ 안토니오 파파노(지휘)/ 로열 오페라하우스 오케스트라 · 합창단

여전히 전성기인 도밍고의 눈물과 목소리를 만날 수 있는 최고의 프로덕션

2012년 9월 LA오페라를 시작으로 스페인 발렌시아, 데아터 안 데어 빈 등에서 공연된 최고의 프로덕션을 2015년 로열오페라의 무대를 통하여 만날 수 있다. LA오페라의 총감독이자 현존 최고의 스타 성악가인 플라시도 도밍고가 정치적 음모에 의해 아들을 잃게 되는 고뇌에 찬 프란체스코 역을 맡았다. 프란체스코 멜리, 마리아 아그레스타, 마우리치오 무라로의 열연과 파파노의 합류는 상상 그 이상의 무대를 보여준다. Full HD 1080p의 화질의 영상은 성악진의 표정은 물론 연출가 새디어스 스트라스버거의 역사와 상상력이 결합된 무대를 섬세히 비춘다.

[보조자료]

– '포스카리 가문의 두 사람'은 상대적으로 공연이 잘 되지 않는 베르디 초기작 중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공연 자체가 드문 작품이다. 최고 지도자이면서도 정작 억울한 누명을 쓴 아들 자코포를 구출하지 못하는 프란체스코는 자신의 운명을 뼈저리게 느낀다. 이러한 캐릭터는 정치 속에서 희생되는 가족사를 그린 '돈 카를로'의 필리포 왕와 닮아 있거나 '시몬 보카네그라'를 연상케 한다. 하지만 간결이 압축된 줄거리와 빠른 사건 전개, 단순하면서도 긴박감 넘치는 음악은 '돈 카를로'보다 이 작품을 대하기 수월하게 하는 요건이다. 그래서 '포스카리 가문의 두 사람'이 잘 공연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의아하게 느껴지는데, 그것은 주인공 프란체스코 역을 제대로 소화해낼 수 있는 성악가가 드물기 때문이다.

– 2012년 9월 LA오페라에서 초연한 이 프로덕션은 스페인 발렌시아, 데아터 안 데어 빈 등에서 공연되었다. LA오페라의 총감독이자 현존 최고의 스타 성악가인 플라시도 도밍고가 프란체스코 역을 맡음으로 많은 화제를 모았다. 본 영상물은 2015년 10월 로열오페라 초연 공연을 담았다. 1막 3장 '오 나의 마음을 두드리는 옛 심정이여'부터 3막 2장 '운명의 종소리인가'로 이어지는 도밍고의 음성은 그의 전성기를 연상케 한다. '섭외 0순위'의 테너로, 2016년 베르디 '가면무도회'로 내한하여 우리에게 더욱 친숙해진 프란체스코 멜리는 '제2의 도밍고'를 연상케 할 정도로 자코포 역을 소화해내고, 그의 아픔을 공유하는 루크레치아 역의 마리아 아그레스타는 로열오페라 데뷔 무대인만큼 열의에 차 있다. 악한 로레나노 역의 마우리치오 무라로는 파파노 지휘의 속도감 있는 오케스트레이션을 타고 극적으로 흐름을 쥐었다 폈다 한다.

– Full HD 1080p의 화질, 24비트 스테레오와 DTS HD 마스터 오디오 기능이 있는 이 영상물은 도밍고의 목소리를 상상 그 이상으로 들려주며, 미국 연출가 새디어스 스트라스버거의 무대를 섬세히 비춘다. 자막은 한국어, 일본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로 되어 있다.

OpusArte OA1216 **[DVD]**
OpusArte OABD7205 **[Blu-ray]**

헨델: 사울

크리스토프 퍼브스(사울)/ 레스팅 데이비스(다윗)/ 소피 베번(미할)/ 벤자민 휴트(최고사제) 외/ 배리 코스키(연출)/ 이보르 볼턴(지휘)/ 계몽시대 오케스트라/ 글라인드본 합창단

헨델의 오라토리오, 파격과 그로테스크한 연출을 입다

2015년 글라인드본 오페라하우스 프로덕션으로, 연출가 배리 코스키는 헨델의 오라토리오에서 극적인 요소를 잘 발라내어 그로테스크한 무대와 분장, 풍자성을 돋보이게 한 또 하나의 역작으로 재탄생시켰다. 타이틀 롤의 크리스토프 퍼브스와 다윗 역의 카운터테너 레스팅 데이비스를 비롯하여 조연의 활약도 매력 만점이다. Full HD 1080p의 초고화질은 출연진의 그로테스크한 분장과 무대를 생생히 잡아내며, 오페라처럼 '보는 재미'를 선사한다.

[보조자료]

– 2015년 글라인드본 오페라하우스 프로덕션으로 배리 코스키의 연출작이자 글라인드본 오페라하우스 데뷔작이다. 음악감독보다 연출가가 훨씬 강한 발언권과 결정권을 쥐고 있다는 코미쉐 오퍼에서 쌓은 그의 경력답게 오라토리오도 멋진 무대효과를 가미하면 오페라 못지않은 작품성을 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 코스키는 사울의 이야기를 18세기 속에 풀어 넣는다. 과도한 흰색 분장과 파티장의 분위기를 통하여 풍자적인 방법으로 성경 이야기를 유쾌하게 연출했다. 카트린 탁이 디자인한 무대에는 다윗이 벤 골리앗의 큰 머리가 뒹굴거나, 기괴하게 널려져 있는 꽃과 과일은 아르킴볼도의 회화를 연상케 한다. 땅속에서 엔도의 마법사가 슬며시 올라올 때는 관객석이 술렁이기도 한다.

– 글라인드본 하우스에 상주하는 계몽시대 오케스트라는 이보르 볼튼의 지휘로 함께한다. 눈에 띄는 이는 역시 타이틀 롤의 크리스토프 퍼브스이다. 그는 초대 이스라엘 왕의 파멸 과정을 극적이고 개성 있게 표현한다. 소릿결 두터운 중저역은 캐릭터의 존엄과 질투심을 실감 나게 그리며, 특히 엔도의 마법사를 만나는 3막 초반에 맹위를 떨친다. 다윗 역의 카운터테너 레스팅 데이비스는 존재감을 충실히 드러낸다. '사울'의 인기곡인 '무한한 자비의 하느님'에서 들려주듯 정갈한 표정 속에는 고결한 심성이 생생하다. 청순한 음성의 소피 베번(미할 역), 하이테너의 특성을 잘 살린 벤자민 휴트(최고사제 역) 등 조연의 활약도 매력 만점이다.

– Full HD 1080p의 화질은 배역들의 땀방울까지 비추며 현장감을 더하고, 24비트 스테레오와 DTS HD 마스터 오디오 기능으로 서곡과 중간 중간의 교향악은 그 소리가 스피커를 뚫고 나올 듯 기세가 맹렬하다. 자막은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로 되어 있다.

표지사진
브루노 몽생종 에디션 3
'리히테르'와 '로제스트벤스키'
5DVDs Box

〈아울로스뉴스〉 2016년 7월호
통권 제 67호 발행 2016년 7월 20일
발행인 임용묵
출력 좋은그림
인쇄 (주)투데이아트

발행처 주식회사 아울로스미디어
주소 130-110 서울시 동대문구 하정로 3길 10 삼흥빌딩 2층
전화 02-922-0100 **팩스** 02-922-2522
e-mail aulos@aulosmusic.co.kr
문의 02-922-0100(代)

홈페이지 www.aulosmedia.co.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aulosmedia
블로그 http://blog.naver.com/aulosmedia

*본 책자에 실린 글과 사진, 그림은 본사의 허락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책자는 아울로스 웹사이트(www.aulosmedia.co.kr)와 주요 클래식 온라인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으며, e-mail 발송 가능합니다.
*본 책자를 받고 싶으신 분은 아울로스 웹사이트에서 PDF파일로 다운 받으실 수 있으며, 문의처로 연락주시면 기타 발송 가능합니다.